

# 너를내가 되기 위하여

각과, 각학년  
여학생부장 교양모표지

민족협성신학대학교

제6대 함께가는 총여학생회

# 너를내가 되기로 위하여

각과, 각학년  
여학생부장 교양모표지

9/14/91  
1992년 2월 25일 - 0  
장영희  
작성  
(총학생회) 1992년 2월 25일

민족협성신학대학교  
제 6대 함께가는 총여학생회

## 바보 과대표를 위하여

우리 학교 1학년애 바보 과대표가 있다.

술만 먹으면 게가 되고 멍멍몽, 007빵 무얼하더라도  
진짜지 가짜지 아무튼 맨날 걸러 얻어 맞으며 예예 웃고  
별주 별각별각 마시며 베품 두드리며  
뽕짝 걸짝지게 뽑아대는 천하의 바보가 있다.

그러기에 항상 그 바보 주위에는 사람들이 도글거리고  
그 수첩에는 120명 자기 과 동기 이름 모두 적혀 있다.  
누구 누구와 언제 만나고  
누구 누구의 고민은 무엇이고  
누구와는 아직 얘기 못해봤는지  
멋있는 식기하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잔뜩 씌어있다.

수업 안들어 오는 애들 리포트 알려주고  
시험 때는 쇼스(자료) 제비 벌레몰듯 물어와 노나주고  
역사 연구반이니 쇼스의 의식을 외한것 보다  
그런 것 보다도 바둑반이니 농구반이니  
그런 모임을 만들어 120명 모두를  
함께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자기과 쇼모임에 참여시켰다.

일기장에는 자신의 참된 삶의 문제  
누구보다 겸허하게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개인의 안락과는 조모의 타협도 없었으며  
항상 5시간 수면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제했고  
서재에는 항일 무투사가 손때 묻어 간직되어 있었다.

그 날

자기 과 친구들에게는 아직 이르다하여 본대에 이르러가고  
아스팔트 하이바에 우리 선배 전투조들 떴고 있을 때  
익살스런 “간다 간다 뽕간다” 신명나게 우리 땅 누그러주고  
전투대장의 진격의 나팔소리 우렁차게 울리니  
그는 누구보다 최전선에 꽃병을 정확히 쏘았다.

드디어 놈들이 사나운 이빨 으르렁거리며 덩벼들때  
한 친구 전사 미프러지고  
모두 안타까이 돌아섰을 때  
그 바보 전사는 바보처럼 외연히 달려나갔다.  
다음날 한겨레 신문에 쫓고망게 바보 이야기가 실렸다.  
그대에서 2명이 화염병으로 잡혀오고 100명이나 친구들이  
성복서 항의 방문을 했다고 바보를 풀어달라고 울부짖었다고  
총학생회장님이 잡혀가도 그런 일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교문과 식당에서는  
바보의 바보같은 친구들을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손에는 당구 코드가 아니라  
볼펜이 아니라 오락실의 운전대도 아닌  
구탄 성명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난 뒤 학생의 날 가토 전투조 사전 모임에서  
한 1학년 학우의 권의 발표가 나의 심장을 쳤다.  
“나는 바보의 다룬 과 친구입니다”  
투쟁하란 말은 없었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짱돌 한번 던진적이 없지만 \* \* 이를 잡아간 놈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비록 잡혀간다 하어도...”

## ☒ 글 실는 순서

권두시

“바보 과대표”

글 실는 순서

일정표

조직표

• 새 쪽이, 너울내 이야기

너울내가 되기 위하여

공트

‘각하, 요즘 사느게 팍팍하시지요?’

자주적인 여학생회란?

기지촌에 관해

•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시 1

“위기의 여자”

쌀땃 수입개방 관련 자료

시 2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헤미니즘

여성해방, 남성해방 제안서

시 3

“우리 깊고 아득한 강을 이루자.”

메모

주소록

노래

북한여성 이야기 하구요.

양애리 학우, 이순심씨 사건에 관한 자료를 함께 읽으세요.

## ▣ 일정표

- 2:00 야간학부 여학생부장 모임
- ~ 4:00 첫번째 세미나-진행자: 송은실 회장.
- 5:00 1차 결집. 총여학생회실에서
- ~ 30 2차 결집. 학교차안에서, 그리고 출발!  
-목적지까지의 진행자; 김현주 1학년 여학생부장
- ~ 7:00 용인 한터캠프에 도착
- ~ 8:00 김정리 및 저녁식사
- ~ 9:00 간담회 (지도교수님과 학생처장님과 함께)  
-진행자; 심인숙 부회장.
- ~ 11:00 첫번째 세미나 (학교에서는 2차 출발!)  
-진행자: 송은실 회장.
- ~ 12:00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 . (2차 도착)  
-진행자: 김지연 3학년 여학생부장.
- ~ 2:00 여학생부장 교양-진행자: 송은실 회장.
- ~ ??? 자리매김, 취침. . .  
-진행자: 이선, 남경재 1학년 여학생부장
- ~ 7:00 기상!
- ~ 8:00 아침운동 및 세면-진행자: 나지숙 2학년 여학생부장
- ~ 9:00 두번째 세미나-진행자: 송은실 회장.  
출발! 수원역으로
- ~ 10:30 도착. 1차 해산.  
탐골공원 "가정폭력 사진전"을 향해 출발!
- ~ 12:30 도착.
- ~ 1:30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 .  
2차 해산.

“다음주 월요일, 12:30에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들동안의 빠듯한 일정애 너을내 여러  
분들의 민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자신을 진지함속으로, 그리고 마음껏 표  
현하시교 투신? 합시다!

## ■ 조직표

회 장 : 송 은 실 (신학과 3)

부회장 : 심 인 숙 (사복과 3)

서 기 : 정 지 영 (사복과 3)

회 계 : 이 현 경 (교음과 3)

### 사회복지부

박영미

양성미

박종선 (평등이)

### 신전홍보부

송선희

정희영

이수진

한혜진 (새뚝이)

### 학술편집부

나지숙

고자영

이재준 (평등이)

94학번

### 문화복지부

최승민 (평등이)

마민주

남경재 (새뚝이)

### 너울내~실무일꾼들

신 학 과 : 1 최만택 2 나지숙 3 김지연 4 한선주

사회복지학과 : 1 김현주 2 강미자 3 배진희 4 김현숙

교회 음악과 : 1 윤미정 2 최명우 3 권오경 4 ?

- 2 부.

사회복지학과 : 1 이선 2 ?

지역사회개발학과 : 1 남경재 2 박영미

경영정보학과 : 1 조은숙

산업디자인과 : 1 ?

미술학과 : 1 정연선

문예일꾼들 : 한선이 조민아

## 여학생부장님들 ! 정말 보고싶었습니다 !

여학생부장 교양 모꼬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더욱 끈끈한 정을 맺구요, 앞으로  
도 총여학생회와 모든 여학우들과의 만남에 앞서는 멋진 너울내가 되시기 바  
랍니다. 우리 힘차게 여학생부장 교양 모꼬지를 열어 짓겠습니다 !

~ 제 6대 함께가는 총여학생회 일꾼들이.

## 총여학생회의 두번째 이름들입니다.

~지킴이 : 총여학생회를 곳곳이 지켜 나가는 회장, 부회장의 이름입니다.

~평등이 : 민주남성으로서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길에 일 주체로 서고, 협성안에  
서의 평등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男학우들입니다.

~새뚝이 : 새내기 여학우 일꾼들의 이름이구, 잠시후에 제 얘기를 들려줄게요.

~너울내 : 여학생부장님들의 이름이구요, 너울래의 깊은 이야기는 잠시후에. . .

~해방의 불바람, 총여 도움단, 해방돌이 !

: 대동계동안 총여학생회 자원봉사단이름으로 디아코니아에서 도울 것입니다.

## ☒ 너을내가 되기 위하여. . .

“여학생부장으로 자리하고 있기는 한데, 무슨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소리가 낯설지 않게 들려옵니다. 우리 학교의 각과, 각학년의 여학우들을 하나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학생부의 할일인데, 타부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여학생부의 일은 어떤 것이고, 또한 어떻게 창조해 내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는 여학생부장이 총여학생회의 집행부라는 생각보다는 총여학생회의 일을 연락하는 연락책정도로 단정짓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학생부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창조적이고 지속적 인 사업을 고민하고 풀기 위해서 여학생부장 교양모교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힘드시다구요? 고민하기 전부터 힘이 들고 지치신다구요? 주위를 한 번 돌아보세요.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신 여학생부장님들과 함께 각과, 각학년의 실정을 파악해 보고 집단적인 고민속에서 여학생부 사업을 계획해 봅시다.

### 여학생부의 위치와 역할

기존의 많은 여학생부장님들, 그리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학생부장님들의 고민을 담아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어봅니다.

각과 각학년 여학생부는 먼저, 여성문제 해결의 주체로 우리 여학우들이 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여학우들의 힘있는 단결을 위해 세워진 것이며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학생회에 적극 반영시켜내고 학생회를 강화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익혀온 소극성이나 수동성을 떨쳐내도록 도우며 학내와 학교주변의 올바르지 못한 여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한 생활 문화 캠페인을 펼쳐내고 과나 학년의 남학우 중심적인 집행부내에서 생산된 학생회 사업속에서 여학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학생부에서 여학우들의 다수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부 단위로 제안해내는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1) 여학생부의 위상

각 학생회강화에 복무하는 집행부서이며, 단위 여학우의 대표성을 가진다.

#### 2) 여학생부의 역할

—과, 학년 여학우들이 학생회의 주민주체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여학우의 생일들을 챙기는 사소한 일부터 학우들에게 다가갑시다. 또한

총여의 사업을 알림으로 총여학생회 사업에 여학우들이 중심이 되도록 함



시다. 그리고 1일 1여학우 만남을 시도하여 학우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깊은 정을 나누도록 합시다. )

—과, 학년 여학생조직을 체계있게 다지고 내용성 확보에 지원을 한다.

(현재 과학생회에서는 여학생부의 자리가 없습니다. 신학과에는 여성분과가 있기는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생협회의 여학생연합부문의 역할만 감당할 뿐, 그외 여학우들의 요구에 합당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 학생회에 여학생부가 건설되어 졸업하신 여선배님들과 연대하고 타학교 여학생부와 의 연대를 통해 폭 넓은 여학생부사업을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학생부장은 운영위원임을 확실히 합시다. )

—여학우들의 복지문제 부분을 조사, 해결에 힘쓴다.

(여학우들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설등 여학우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총여학생회에 여학생대표의 위치를 가지고 요구하여 여학우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총여학생회로 결집시켜내고, 해결의 방법을 모색, 실현한다.

### 여학생부의 사업들은 . . . . .

. . . . . 혼자서는 힘듭니다. . . . . 함께합시다.

이후에 있을 모교지나 체육대회, 답사등에서 여학우 족구대회 등을 연다면? .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여학생부장님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장황한 것들 보다는 작다고 할지라도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경험해나가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막연히 막막해 하지 맙시다. 괜히 할 일 없다고 눈치보거나 주눅들지 말고 진지하게 학생회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누며 정말 나의 할 일을 가슴으로 느껴보며 추진해 나갑시다. 웬지 앓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버리고 각과 각학년 상황에 맞게 고민해봅시다.

저희 함께가는 총여학생회에서는 여러분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게 여러분은 소중하며  
저희 일꾼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뛰시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풍부화된 내용과 햇살같은 웃음으로 계속 만남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각하, 사는 게 짝짝하시지요?

II 김병삼, 아내 김영삼 대통령 각하, 3방부에서 온 간첩 전문입니다.

아차, 경계를 빼 먹었죠. 음메들경! 지금 북한 리박리 거슴츠름으로 휴전선을 지키던 막강한  
우리군이 일시에 두어지르 앞치럼 서쪽으로 서쪽으로 작군이 잔격해 오고 있습니다. 피심! 피심!  
각하, 각하, 각하, 자음 지 소이 듣기싫거나. 작의 동종 (호 미가일이 각하의 무적한 머리 뒤까지  
날아다니는 소입니다. 때때로이튼기 때때로이튼기 흥박지게 싸 봤지만 다 때때로 하노고  
맞는데 이거 기억합니다. 지날때마다 싸 봐주세요.  
옛, 그런 흥분합니다. 증강 섹하셨습니다. 앗, 지금 양 들은 무전인데 여기군이 이이 부대에  
상중하여 양도 진부름 중하셨습니다. 거제로 예능 아니라고요. 각하 제발 이거 증강의  
대장님한테 구원 요청 해주세요. 네? 벌써 전라해 왔는데 아까부터 계속 동라중이거든요?  
제기값, 전라기 내려놓으.... 정말이다다가 시위를 북바라가 되고합니다. 네? 그런것 말고 이거  
잡잡마다 흥분 걸렸거든요? 전라병사 상양부 하시는 것 불러주세요. 폭은 머리가 약간 없어요.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방 이쪽으로 상명하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좋은데 일러기 생각이 서남 거팔해서 왜냐 거방화현제... 그러면 일론은 강하합니다.  
제가 정장인 김하의 산정에서 목재 정계제인 대3 인원이 지켜서기가 며 편하실 겁니다.  
여 웃으십니까. 뭐거든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보충을 부르십시오.  
잠실 채움은 비밀들이 활격인 그 안에서 정공의 수훈사 위징가 제트자 날을 겁니다.  
작의 허술한 핵무기중은 리게드 우방 한방이면... 역시 각하의 승전무기한 증상이는  
대단하십니다. 이제 자도 기적이 납니다. "기쁜생 천아장사, 머징가 제...트, 음메들경!"

III 김병삼 아내 김영삼 대통령 각하 3방부에서 온 간첩 전문입니다.

아차, 경계를 빼 먹었죠. 음메들경! 지금 북한 리박리 거슴츠름으로 휴전선을 지키던 막강한  
우리군이 일시에 두어지르 앞치럼 서쪽으로 서쪽으로 작군이 잔격해 오고 있습니다. 피심! 피심!  
각하, 각하, 각하, 자음 지 소이 듣기싫거나. 작의 동종 (호 미가일이 각하의 무적한 머리 뒤까지  
날아다니는 소입니다. 때때로이튼기 때때로이튼기 흥박지게 싸 봤지만 다 때때로 하노고  
맞는데 이거 기억합니다. 지날때마다 싸 봐주세요.  
옛, 그런 흥분합니다. 증강 섹하셨습니다. 앗, 지금 양 들은 무전인데 여기군이 이이 부대에  
상중하여 양도 진부름 중하셨습니다. 거제로 예능 아니라고요. 각하 제발 이거 증강의  
대장님한테 구원 요청 해주세요. 네? 벌써 전라해 왔는데 아까부터 계속 동라중이거든요?  
제기값, 전라기 내려놓으.... 정말이다다가 시위를 북바라가 되고합니다. 네? 그런것 말고 이거  
잡잡마다 흥분 걸렸거든요? 전라병사 상양부 하시는 것 불러주세요. 폭은 머리가 약간 없어요.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방 이쪽으로 상명하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좋은데 일러기 생각이 서남 거팔해서 왜냐 거방화현제... 그러면 일론은 강하합니다.  
제가 정장인 김하의 산정에서 목재 정계제인 대3 인원이 지켜서기가 며 편하실 겁니다.  
여 웃으십니까. 뭐거든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보충을 부르십시오.  
잠실 채움은 비밀들이 활격인 그 안에서 정공의 수훈사 위징가 제트자 날을 겁니다.  
작의 허술한 핵무기중은 리게드 우방 한방이면... 역시 각하의 승전무기한 증상이는  
대단하십니다. 이제 자도 기적이 납니다. "기쁜생 천아장사, 머징가 제...트, 음메들경!"

현명한 판단이 따라 3분법을 적용 하였습니다. 전경 심개 증대를 증진해  
관계증 증들 때듯 처리하던 아저씨들 맛 좀 봐 주지요. 그게 뭐, 아니, 드디어  
힘든 결정을 내기셨군요. 전은 증진해 해주도록 하겠다. 김현모까지 눈이 잘 눈. 말인걸  
발은 사귀어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런 각하의 결판정기입니다. 각하가 관련된 대상에게  
그토록 사랑받는 아들을 구해줍니다. 비록은 각하에게 나중입니다. 죽고 싶어 하였습니다.  
안, 그게 이제 무슨 소용이냐. "수입 개방 결사 반대, 처리비준 거부쟁의, 제형상  
실시하라" 이런 흥이 감히 각하의 어떤 액까지 듣기는 거야.  
어, 이런 막 조 깨기 시작하네요.  
악! 이! 잘못했어  
전 아무 잘못 없었거든요  
그만 때려요.  
나쁜놈은 내가 아니거든요.  
수입개방 결사 반대!  
안세. 안세. 만안세 !!!

## 여학우가 주인인

# '자주적 여학생회'

## 어떻게 건설, 강화할 것인가?

### 들어가면서

'이론은 실천을 위한 담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론은 이론으로, 즉, 머리가 굽어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기위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자주적 여학생회론을 배우고 여성운동론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시대의 이중,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 학원에서는 여학우를 만나 이 억압으로부터 주인으로 서가는데 도움을 주고 그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심장으로 느끼면서, 사람을 만날때 그들의 삶을 느끼고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나갔다기 보다 이론에 기반하여 사람을 끼워맞추고 있지 않았나'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제기는 어쩌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문제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시대를 살고있는 여성의 아픔을 알았고 무엇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해결의 길에 우리가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얼마나 심장으로 새기면서 여학우의 삶을 공유하려 하였던가? 또한 얼마나 많은 여학우를 만나려고 노력했는가? 여학우를 만남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하였던가? 여학우의 삶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였는가? 우리는 과연 여학우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었는가? 여학우를 주인이라 말하면서 단순히 그들을 지도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각자 다른 그들의 처지를 알려하기 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기반하여 그들과 만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이론에 맞게 살것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여성문제는 이 조국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여성들이 아직 이 문제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잘 알지 못하며 더불어 이 문제의 원인을 알지못합니다. 또한 이 원인을 알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몰라합니다. 그렇다고하여 성급하게 '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혁의 길에 서라'고 말할 수는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이 문제해결의 길이 바로 사회변혁이라고 느끼게하는 것은 그들의 삶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삶속에서 주인으로 세워내는 길이며 또한 '사람사업'의 기본입니다.

~~여학우들의 삶을 잘 알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다룰수 있는 것! 이것이 여학생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학단위 사업에서 가장 취약하였던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학단위 사업의 기본또한 사람사업임을 강조하기위해서 입니다.

이상에서 말했듯이 여학우는 이론에 끼워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속에서 함께하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속에서 이후에 전개될 내용인 자주적 여학생회론을 접했으면 합니다.

결코 여학생운동은 잘 모르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성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 여학생회 건설 배경

### 1. 여대생의 처지에서 비롯됩니다.

#### (1) 여대생의 처지

여대생, 또는 젊은 여성이라고 하면 먼저 '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는 매무새, 그리고 활카페와 어디에도 구애받지않는 자유스러운 모습, 연예인과 남자, 유행에 대한 대화 등' 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것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표현한 것이기때문에 판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성도 많다는 것은 인지해야할 사항이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으로 여대생 또는 젊은 여성을 상징해왔습니다.

학원내에서도 여대생들은 현실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면서도 간판을 따기위해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해서는 전공지식을 썩히며 일상적으로는 미팅과 데이트로 시간을 보내는 한량(?)으로, 시집을 가기위해 대학을 들어온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 각성도가 떨어져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보며 소극적이며 수동적이어서 학교생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대생은 여가이지만 노동착취와 봉건적 현대속에서 신음하는 다른 근로 여성들과 달리 노동과는 거리가 멀고 교육을 받아 중간층이상의 남자와 결혼하여 계급상승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대생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겉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여대생은 무엇보다 이시대에 태어난 청년학생입니다. 청년학생은 일반적으로 선진사상이나 새것에 민감하며 무엇보다 정이롭고 민주적 각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이나 투쟁성이 높아 이 ~~알았~~했던 시대를 투쟁으로 변화시켜온 주역입니다. 이것은 청년학생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성이라하여 다른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이기때문에 다정다감하며 정서적이어서 주위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성향이 높습니다.

게다가 사회가 만들고 있는 통념속에서 꽃으로 머물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상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대생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여대생의 모습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여대생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대생 또한 청년학생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만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지한 여성으로 바라보게 되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대생은 원래 소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의나 대인관계에서의 적극성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여성들에 대한 인식에 일침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사회인'으로써 여학우는 자아실현의 통로로 취업을 선택하고 그 준비에 어느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예전의 결혼이 제일이라는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풍토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취업선택의 증가로 표출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취업전선은 여성들에게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결혼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배운 지식과 자아실현을 위해 일도 중요하며 결혼을 해서도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일을 가지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절대적인 적극성은 아닐지라도 스스로의 삶을 자주적으로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삶에 대한 욕구가 왜 우리 학원과 사회속에 여성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지 못한 것인가?

이것은 20여년의 반쪽자리 교육과 사회가 만들어놓은 풍토로하여 적극적 삶을 누릴만한 공간이 적고 그럴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4학년때가 되면 으레히 사회진출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게 되면서 크게 표출됩니다. 대부분의 여대생이 겪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업문제를 집단적이고 과학적으로 풀려하기보다 개별적이고 암묵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현실에 잘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에 대한 경험이 적기때문입니다.

즉, 여성들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하려 하지만 뚜렷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찾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벽과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오히려 여성들을 자포자기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여대생은 요즘들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의식 성장은 여성들의 적극적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간의 여성들 전반에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자주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발이 전체운동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주부들은 환경오염방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직장여성들은 직장내에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의 위치를 찾으려는 의지가 높고 여대생과 사회여성 단체는 성폭력 척결투쟁을 힘차게 벌여 사회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동시에 여성들의 의식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꾸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에는 위의 사항과 같이 여성들의 노력도 작용하고 있지만 서구의 의식들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구의식들-서구 여성의 자유롭고 개인적인 삶등-이 글러지지 않은 상태로-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이기 보다-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지다보니 무방비 상태인 여성들의 의식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산물인 서구의식이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의식이 여성들에게 이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속에서 여성들의 의식이 서구화된다는 것은 깊게 고려해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구화된 의식은 여성들이 올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보다 오히려 남과 여의 사이를 분리하고 남자를 적대시하거나 개별적인 모습-독신을 고집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을 드러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는 여성의 삶보다는 자유스러운(?) 서구의 여성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쫓는 경향이 드러나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팝송과 클래식이 국악이나 판소리보다는 자연스럽고 햄버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것은 보통이며 커피가 생활화되었으며 외국배우를 자신의 애인상으로 여기면서 사모하고 눈작고 넓직한 자신의 얼굴을 한탄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분위기가 은근히  
겉에서부터 속까지 서양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여대생들의 의식은 이렇듯 서구화되고 있지만 그들이 서있는 땅이 한반도이기에 여성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봉건적 사회관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결혼이나 자신의 인생관은 적극적인 삶속에서 변하고 있지만 결국은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 통념에 자신을 맡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20년이 넘는 반쪽자리 교육에 길들여진 여대생은 뼈속깊이 박힌 수동성과 소극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자팔자야 결혼하면 되는 거고 결혼을 어떤 남자랑 하느냐에 달리지 않았어?”라는 ‘결혼제일주의’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빠져 결혼에 대한 집착이나 과도한 기대,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은 남성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하며 여성의 자주성을 억누릅니다.

또한 이중적인 성윤리는 여성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눌리게 합니다. 성폭력의 위협과 또한 정조를 지킬것에 대한 사회적 강요는 그렇지 못한 여성을 외면하게 만들어 자의든 타의든 여성들은 그 위협속에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의식변화와는 무관하게 강요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것에 갈등하고 괴로와하며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나서는 사람이 많으며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 (2) 여성들의 처지 발생원인

먼저 여성에게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게된 기원을 따져보면 굉장히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계급사회의 출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짚기전에 직접적으로 지금 시대의 여성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기원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최대의 적인 미제는 1945년 민중의 피나는 투쟁속에서 되찾은 조국을 빼앗아 그의 하수인을 만들었고 이 하수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을 억압하였습니다. 미제는 먼저 한반도를 식민통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의 가장 기저가 바로 분열 정책입니다.

분열은 우리 민족의 최대 무기인 단결을 저해하고 한민족끼리의 불신을 통해 자신의 지배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도 계층이라는 것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통해 그 분열의 골을 깊게 만들려 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정책은 봉건시대에서부터 전해내려온 것이었지만 자본주의라는 것과 결합되면서 더욱 모순적인 모습을 창출하였습니다.

바로 남녀차별구조를 이용한 노동의 착취입니다.

그 예로 노동자 임금투쟁의 경우, 남자 근로자의 절반밖에 차지않는-남녀 임금격차 세계 1위-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남편이 버니까, 결혼할것이니까’ 등의 이유로 격하시키고 막상 임금투쟁이 발생하면 투쟁하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투쟁 참여률이 적은 여성노동자들을 보이면서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여성들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왜그러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투쟁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이때 투쟁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관점이 서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여성들을 탓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배자들과 자본가들의 전술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속성은 지배자의 논리와 더불어 여성들을 상품화시키면서 여성의 차별화 정책을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삶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어 어렸을때부터 시작하여 취업하고 결혼하여 죽을때까지 여성의 각주적 삶을 길곡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화는 여성 스스로를 상품화시킬 뿐아니라 남성들과의 대립을 유도하기도 하고 남성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합니다.

우리 남한사회는 일제의 강점과 미제의 침탈도 이어지는 분단속에서 7천만 민중이 고통 받아온, 민족의 문제가 첨예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산하에 살고 있는 남한여성이기에 여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처지가 고하다면 바로 '민족 모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처지를 중심으로하여 여성들은 성모순과 계급모순을 기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정신대로부터 현재 기지촌과 기생관광에 이르는 여성들의 억압사라는 수치스런 역사는 이러한 민족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군의 주둔과 분단이라는 상황은 한국사회를 군사화시키고, 군사문화가 사회속에서 확대되는 기초를 만들었으며, 한국경제가 대미종속적으로 되면서 미국의 하청업체로, 자본주의적 성격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유입하여 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억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예측되면서 미국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지배통합기조로 분단이 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가부장적 사회성격을 유지, 강화시킨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이 땅,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여성-근로여성, 농민여성, 빈민여성 등-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더 억압받고 굴욕적인 처지로 만들었으며 여성문제를 표면화하고 심화시켰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대생이, 젊은 여성이 억압받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근본적으로는 남성이 아니라 미제의 식민통치방식인 분열책동과 봉건적 사회제도의 모순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이 척결되지 않는 한 '여성해방, 인간해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코 여성 한사람, 한사람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며하고 있는 여성이 주체로 하여 여성문제로 하여 억압받고 있는 민중의 힘이 하나가 될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다짐은 이구어내기위해 여성 여학우의 특성과 처지에 맞게 지도하고 의식화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내에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인' 여학우를 지도하는 조직, 여학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학생회와 학우내에서 건설되었던 배경이자 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여학우는 결코 소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서적이면서 다정다감한 많은 여학우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주위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하며, 자신의 차별적 처지를 옮겨 직시할 때는 자신의 생활적 요구로부터 변혁을 감당하며, 헌신적이고, 규율성있는 자세로 변혁운동에 복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헌신성과 끈기로 여학우들을 조직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청년학생으로써 여학생의 혁명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학우는 특권을 가진 위치로 여겨지지만 식민지 여성으로, 여성이 단결하고 나서서 사회변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진보적인 학문과 사상을 쉽게 접하면서 청년학생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옮겨 이해한다면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배계급에 의해 물젖은 낡은 사상의 잔재, 여성떨시주의 (같은 여성이면서도 "여성들끼리 모여서 뭐가 잘되겠어?" 하는 식의 생각들)를 극복하고 여학우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끊임없이 여학우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속에서 의, 조직화하여야 겠습니다.

이것이 여학생회의 몫입니다.



## 2. 구국운동의 요구입니다.

### (1) 여성문제를 발생시킨 미제와 그의 하수인을 제거하는데 여성들이 앞장서야합니다.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여성문제를 심화, 발전시킨것은 근본적으로는 미제입니다.

여성이 자주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억압을 깨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억압 근본요인인 미제와 그의 하수인을 세상의 절반인 여성 스스로가 주체되어 몰아낸다면 사회변혁과 민족해방의 길은 더욱더 가까와질 것입니다.

여학우의 경우 정치적 각성도가 떨어지며 자신의 처지를 지배자들의 논리속에서 꿰뚫지 못해 거세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학우들의 처지에 근거한 생활적 접근에서부터 자신의 처지를 뚜렷하게 알게 하고 그것을 여학우의 특성에 맞게 풀어낼 수 있는 방도로 지도한다면 여학우들은 청년학생다운 모습으로 그길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내에서 그 힘을 모으고 지도하는 조직이 바로 여학생회입니다.

### (2) 전체 운동을 강화시키는 부분운동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투쟁의 역사는 많은 민중들의 투쟁속에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시기 대중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진출이 높아지고 다종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민중들의 정치적 요구 또한 다양하면서도-그 수준이 다르지만-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변혁운동의 발전은 더 많은 민중들과 함께 할 때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다양한 처지에 있는 민중들을 그 처지에 입각해서 더 많이 묶어세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학원내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정의를 사랑하고 시대추세에 민감한 특성에 기반하여 학우들을 의, 조직화하는 학생운동이 존재하고 그 지도조직으로 총학생회가 건설되었습니다. 학생운동 또한 전체운동속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부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생운동속에서도 학생이면서 여성인 여학우들의 처지에 기반하여 여학우를 의, 조직화,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부문적 역할을 담당할 조직으로 여학생회가 건설되었습니다. 즉, 여학생회 건설 또한 이러한 구국운동의 요구속에서 건설되었으며 이렇게 건설된 여학생회는 학원내의 여학우들이 학생으로뿐아니라 여성으로 가지는 처지를 알고 그 억압의 요인들을 제거하기위한 사회변혁투쟁의 길로 지도할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학생회가 건설된 것은 여학우의 자주적 삶, 즉, 여학우의 처지의 근본요인인 미제와 그 하수인을 제거하는데 여학우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의, 조직화하는 지도조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차적 과제인 사회변혁투쟁에 더 많은 여학우들이 앞장서 전체변혁운동에 큰 힘을 주고 민족과 민중의 해방을 일구는데 복무하기위해서입니다.

# 지주적 여학생회

## 1. 여학생운동이란?

**짧게 말하면 여학생운동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억압의 요소를 쫓아내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굳이 여학생운동을 여성운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여학생 운동을 벌여내는 주체가 학생이면서 여성으로 가지는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들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학생운동을 청년 여학생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지요.)

청년 여학생운동은 청년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입각하여 그러한 억압받는 처지의 요소, 즉, 미제에 의한 식민지상태의 인권유린, 자본주의 사회와 기형적인 경제체계속에서 인간마저 상품화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돈중심 풍토, 여전히 인간들을 차별, 억압하는 봉건적인 사회풍토 등을 청년이라는 기백을 가지고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힘으로 제거해가는 투쟁입니다.

### (1) 여학생운동의 이념 및 과제

여학생운동은 조국의 민주화와 해방을 위해 헌신복무하는 애국적이고 구국적인 운동이므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재조건의 타파를 위해 모든 여학생이 단결투쟁함으로써 사회변혁과 민족해방, 여성의 해방, 인간해방을 안아오는 사회 변혁투쟁입니다.

이에 여학생운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가야합니다.

① - 민족 최대의 적으로 7천만 민중의 아픔, 분단의 근원이며 여성문제를 심화시킨 미제를 몰아내는데 최대의 과제를 가지고 투쟁한다. 특히 주한미군으로 하여 억압받고 있는 기층민중여성들과 연대하여 주한미군범죄를 근절투쟁과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힘찬 투쟁을 전개한다.

② - 미제의 하수인으로 민중억압의 최전선에 있던 지배권력세력을 제거하고 여성문제를 심화시키는 사회제반요소를 척결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특히 앞서서 성폭력 문화를 척결하고 그 제도적 뒷받침으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투쟁을 사회여성단체, 민중여성과 연대하여 전개한다.

③ - 통일조국을 앞두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의 여성들의 삶을 알기위한 자주교류투쟁을 전개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북합의서 이행투쟁을 전개한다.

④ - 학원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의식과 문화를 학우들을 의식화하고 투쟁을 전개하면서 척결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 여학생의 처지를 같이 느끼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동지들을 의, 조직화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2)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 1)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

지금까지 여학생운동은 전체운동속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더불어 그 주체들속에서도 합의를 보지못하는 가운데 좌, 우편향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운동속에서 오히려 총여학생회의 불필요성과 이에 따른 역량 배치의 미비로 하여 조직발전의 질곡으로 와닿았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튼튼해 질 수 있는 여학생운동가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여 운동을 그만두게 하는 극한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학생운동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서 무엇보다 -여학생운동가들이 주체가 되어야겠지만- '전체운동판속에서 부문운동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기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학생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어떻게 자리잡아가야 하는가?

먼저 무엇보다 청년학생운동의 부문역할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가야합니다. 즉,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 이 민족의 처지에 근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의 변혁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운동을 받아안으면서 여학생이 가지는 처지에 기반하여 운동을 풀어나가 전체운동을 풍부화하면서 복무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운동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독자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년여학생운동이 가지고 있는 여학우에 맞고 그들의 처지를 풀어나갈 수 있는-여학생의 독자적 이해를 실현하는-내용 과 그에 따른 투쟁을 창조적이고 자체적으로 조직하여야만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고 치우치게 되면 편향을 견게 됩니다. 즉, 전자에 치우칠 경우 자신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여학생운동의 불필요성이 제기되고 후자에 치우칠 경우 너무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을 드러내 운동이 아닌 동아리활동과 같은 편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성격이 정확하게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속에서 합의를 봐야만 여학생운동이 그 사명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 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

여학생운동은 여성운동과 또 다른 구별성을 가지면서 공통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명확히하는 것은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과 관계된 일이므로 신중하게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관점이 서 있을때만이 여학생운동의 일방적인 지원 형태나 오히려 단절되고 분리된 형태등의 편향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은 여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하는 운동이므로 사회 여성운동과는 다소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성운동은 아직 그 사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핵심 역량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여 많은 편향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조하고 지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여학생운동의 몫입니다.

여학생운동은 무엇보다 사회여성운동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여성운동단체들이 해야할 역할들이 커질때만이 전체 여성운동을 지도하는 조직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여성운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여성단체의 대표체와 함께 정세에 맞는 투쟁을 제기하고 또한 이렇게 제안하는 투쟁사안은 힘차게 받아안고 연대투쟁을 벌여야겠습니다. 이것은 92년 보은, 진관투쟁과 성폭력특별법제정투쟁, 93년 윤금이씨투쟁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투쟁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연대되고 있지못한 기층여성단체를 찾아 그 연대에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93년도의 모범으로 송탄의 기지촌 활동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운동을 통해 단련된 핵심역량을 집단적으로 사회여성운동에 투신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사회여성운동은 핵심이 없이 그 중심 사상이 없고 이것으로 명실상부한 여성운동의 지도조직으로 서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후 사회여성운동의 발전의 과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 (2) 여학생운동의 역사

### 1) 제1기 여학생운동의 모색기 (-84년)

여학생운동은 전체 학생운동과 같이 70년대 후반 '씨클활동'의 형태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여학생운동은 지금 정의하는 운동과 달리 전체운동에 더 많은 여학우를 인입하기위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70년대 후반 '인구분산정책'에 의해 수도권지역에 대학교가 건설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은 미약하나마 비합법적인 씨클활동의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여학생운동은 이속에서 여학생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대 후반의 민중 투쟁과 사회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맑스, 레닌주의는 이당시 민중들로 하여금 민중을 억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주인이되어서 해야한 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운동은 철저하게 자신의 현실에 기반하지 못함으로써 급진적인 성향을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에서도 여학생들이 여성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모순의 적대적 관계로 파악하는 경향과 민족민주운동의 내부에서는 공동의 적에 투쟁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독자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남성들의 보수화, 반동화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열주의적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 학생운동이 봉건적 풍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 여성활동가들의 사상적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80년대초에는 비합 연구씨클로 운영되면서 많은 이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맑스, 레닌주의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여성운동의 사조도 있었습니다. 끈질긴 상상적 모색 과정에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 모순에 본질적 원인을 두는 맑스주의적 관점이 밝혀졌지만 실제 사상적으로는 급진주의를 위한 좌편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학우의 삶속에서 문제를 설득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중심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여학우와 괴리되고 오히려 여학우들이 여학생운동을 불신하는 대중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여학생운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 여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과정을 보면 선진인자를 의, 조직화하는 공간으로 비 합법씨클과 대중의, 조직화를 위한 공개씨클, 학도호국단 여학생부활동, 84년 유화국면에 이르면서 여학생회건설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2) 제 2 기 여학운의 내용성 확보 (85-90년)

유화국면을 겪으면서 비합법운동풍토에 젖어 있던 학생운동은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다소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건설되어 대중적으로 학생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여학생운동 또한 나름대로 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늦지만 총학생회안에 여학생부가 건설되거나 여학생특별위원회라는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89년도나 90년도에는 여학생회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체계를 가진 여학생운동은 처음으로 여성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이 '툼보이 티버드 불매운동'이었습니다.

이렇듯 여학생운동 또한 합법적 공간이 생기면서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하려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87년 대선을 계기로 많은 여학우를 조직할 수 있는 활동과 조직이 제기되면서 여학생운동 또는 여학생회의 역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학생회가 건설될 수 있는 의, 조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89년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학생회가 건설되었는데 이러한 각 학교, 각 지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평양축전 참가투쟁'이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있던 여학단위는 지구차원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또한 개별적으로 활동을 벌여왔던 여학생회는 전국적으로 한가지의 사안으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국 모임은 그 이후 전국여대생 대표자협의회(이하 여대협)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지역에서도 89년도에 처음으로 지구내의 학교가 모여 논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함께하는 투쟁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의 예로, 'AIDS추방운동'과 평화적 시위보장을 위한 '최루탄 추방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적으로 호응을 받아 사회여성단체와도 함께 연대하여 벌여낸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이 학원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여학생회활동의 정형이 없으므로 하여 전체 학생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89년, 90년에는 여학생회활동과 여학생운동의 활동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인식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남기는 수준에 그치고 사람이 남지 못함으로 계승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학생회 자체의 조직기반이 없어 활동하는데도 크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업의 전개가 어려워지자 우리지역에서도 학생회다운 학생회를 건설하자는 노력으로 91년에는 '자주적 여학생회 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시기에는 여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노력으로 여학생회가 건설되었고 여학생운동에 맞는 내용을 투쟁으로 벌여내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여학생회 자체의 사업 정형을 가지지 못하고 간부들의 인식이 전화되지 못함으로써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우는 여학생운동을 벌여내지 못했습니다.

### 3) 제 3 기 여학생운동의 조직력 강화(91년-)

91년 이후부터는 보통 자주적 여학생회라는 이름하에 여학생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지역 또한 91년부터 각 학교의 여학생회 강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기층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단대여학생부 건설과 소모임 건설을 위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92년도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르익어 모범을 낳는 학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회에 단련된 사람이 남지 못하고 그 정형들이 계승되지 못하여 직접적인 여학생회 발전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학생회는 핵심간부 배출을 위한 교양 강화와 기층 토대건설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91년 5월투쟁의 회오리를 넘기고 92년엔 직접적으로 지구차원의 연대, 전국적 연대의 기풍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보은, 진관투쟁'을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전여대협)가 의장을 중심으로 튼튼하게 서고 이속에서 투쟁을 전국화시킬것에 대한 고민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여성단체와도 직접적으로 연대투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은, 진관투쟁'이 전국화에 성공하였고 이어 '정신대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투쟁'과 '성폭력 특별법 제정투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은, 진관투쟁'만큼 대중적으로 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하였지만 여대협차원으로 전국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의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 투쟁으로 이후 전여대협과 지구여대협 건설,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각 학교 총여학생회가 자신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운동에 복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투쟁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계기적 투쟁으로 머무를 소지가 컸으나 이 계기적 투쟁을 각 단위에 맞게 자신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92년 대선속에서 여성에 맞는 대선방침을 정하여 대중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부문의 역할을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 투쟁'은 역사에 기리 남는 투쟁으로 크나큰 성과를 낳았으며 여학생운동의 인식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여학생운동은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과 현재 여학생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부문운동으로 인식을 넓히고 자신의 역할을 세우는 등 변화,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학생회의 조직적 발전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전체운동의 발전 요구속에서 한층려 강화와 부문운동의 활성화라는 요구에 부응하며 선배들이 남긴 큰 성과를 바탕으로 여학생 운동의 발전에 헌신하는 간부들이 서간다면 그 미래를 밝을 것입니다.

### (3) 여학생 운동의 전망

앞에서도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밝혔지만 무엇보다도 여학생운동을 책임진 여학생운동가, 간부의 올바른 관점에 기반한 노력없이 여학생운동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주체의 문제라고 하지만 여학생운동만큼 아직 사업의 정형과 하부기반이 없는 운동의 경우 이것을 이루려는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발전 정도가 달라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의 혁신속에서 더욱더 주체를 단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더욱 창조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운동가들을 더욱 튼튼하게 사상적으로 단련시켜야겠습니다. 자신이 하는일이 얼마나 구국운동에서 중요한 것이며 여학생운동이 바로 자기 사상에 기반하여 여학우를 더욱 억압받는 처지로 부터 자주적으로 서게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자각할때 더욱더 큰 힘으로 그 길에 설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여학생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활동가들도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비롯하여 여학생운동이 무엇인가에대한 교양이 되어야 함은 말하지 않아도 전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여학생운동의 의,조직적 성과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은 그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힘을 더 빨 뿐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의,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벌여내고 총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학우가 주인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여학우들의 지향은 이런 것인데 다른 것을 상상하거나 자신이 배운 이론에 입각하여 사업과 투쟁을 조직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학생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고민하는 취업대책마련, 여학생 복지개선, 여성학의 질개선, 학교내외의 봉건적 차별철폐, 성폭력문화척결등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여야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는 여학생뿐아니라 4천만민중을 억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주한미군 범죄를 척결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겠습니다.

## 2. 자주적 여학생회란?

### (1) 여학생 자치 활동기구의 필요성과 그과제

여학생 자치 활동기구(이하 여학생회)는

- ① 여학생운동가들(또는 여학생)이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적 훈련과 정치적 경험등을 쌓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 ② 여학생 대중의 처지에 입각하여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을 벌이며
- ③ 이러한 자치활동(또는 투쟁)을 통하여 여학우를 학원에서나 자신의 삶에서 주체로 이끌어 세우는 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 그렇다면 왜 여학생만을 위한 자치활동기구가 필요한것일까요?

그이유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학생회가 필요한 것은 여학생이 있기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학생은 비주체적인 존재로 길들여지고-제도교육과 잘못된 사회인식속에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청년학생인 존재로 잠재적인 혁명성을 가진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학생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이들의 인식을 높여내고 단련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여학우들이 자주적인 모습으로 충분히 서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인 여학생회를 통하여 예비사회인인 여학우를 민주시민으로 능력을 배양-정치적 각성도를 높여내고 집단적 경험들을 늘리는 것-하여 자주적 인간으로 설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여학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여학우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자치활동 기구인 여학생회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체 학생회(청년학생운동)의 강화에 복무하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총학생회가 존재하면 그 총학생회가 모든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모든 학우 한명한명의 요구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대, 과, 동아리에 학생회를 두고 이를 지도하면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듣기도 하고 실현하기도 합니다. 여학생회가 있기전에 총학생회 즉, 청년학생운동의 활동은 여학우라는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학우들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치적 각성도도 그렇지만 학원내에서도 팽배해져 있는 남성중심의 행정과 사업풍토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걸름없이 그대로 받아안고 그들의 처지속에서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청년학생운동내에서도 존재하는 잘못된 풍토를 고쳐내고 올바른 관점을 잡아내는 역할을 할 조직이 따로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학생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총학생회가 해야할 일을 떼어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여학생회는 여학우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많은 여학우의 자주적 삶을 책임져야하는 지도조직이고 더불어 이를 통하여 전체 운동을 강화해야합니다.

### 그리고 이렇게 건설된 여학생회는 어떤 과제를 실현해야하는가?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여학생회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의 전망에서도 밝혔지만  
**첫째, 여학생운동을 실질적으로 여학생회 사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주체를 배출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여학생운동처럼 기층토대가 없고 사업의 정형이 서 있지 못한 운동은 무엇보다 핵심적 역할을 할 운동가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올바른 운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더라도 사업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우를 주인된 관점에서 만나고 이들을 주인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학생운동 발전에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운동가를 키울 수 있는 단련 구조 즉, 학습이나 교양체계가 서 있어야 하며 이를 단련할 수 있는 실천으로 투쟁과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학생운동가를 단련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인식을 여학우들에게 넓혀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면서 여학우들을 여학생운동가로 -교육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여학생운동을 함께 벌어나갈 수 있는 기층을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첫째와 연결된 부분이지만 핵심 배출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주체들을 통해 여학우들을 다양하게 묶을 수 있는 방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학우를 묶는 방도로 여학생회 산하에 여성문제연구회를 두거나 각 단대 여학생부를 두면서 과의 소모임을 지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핵심이 없었고 어렵게 꾸리더라도 사람이 남지 않아 깨어지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핵심을 꾸리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서 먼저 핵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즉, 선진적인 여학우를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 기지촌 활동이나 탁아자원활동, 그리고 대중기획사업등. 무엇보다 이러한 공간은 많은 여학우를 여학생회 중심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인 학우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묶을 수 있는 방도-여성문제연구회등의 학습모임-를 고민하는 것 또한 빠지말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마련된, 소위 말하는, 기층은 흔들림없이 튼튼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의 대중보다는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기층을 중심으로 벌여내는 사업은 여학생운동은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실제 여학우의 생활속에서 민주적 훈련과 정치적 경험들을 늘리면서 여성해방의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여학우의 소극성은 제도교육과 잘못된 사회인식이 근본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신의 소극성을 발견하면서도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도를 몰라 포기해버리는 문제가 더 큼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의 소극성을 더욱 부채질, 심화시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에서도 보듯이 여학우의 자주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것의 원인을 알면서 이 원인을 깰 수 있는 방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방도에는 물론 집단적으로 풀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풀 수 있는 방도를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비사회인인 여학우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일을 여학생회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학우에게 자신의 처지와 그 처지의 파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학우의 수준에 맞는 활동들을 조직하면서 집단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야합니다. 이속에서 여학우는 자주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렵뜻하게나마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며 서구화의 영향으로 개인적인 인식이 뿌리 깊은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학우의 인식의 발전 정도에 맞게 교양사업과 투쟁을 제안하는 것도 정치적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학우가 핵심인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을 꼭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 (2) 자주적 여학생회 건설 배경

자주적 여학생회가 건설되게 된 배경은 여학생운동의 발전사속에서 얘기 되었으므로 별다르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학생운동의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자주적 학생회가 건설되었듯이 여학생회 또한 이러한 흐름속에서 건설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3) 여학생회의 위상

자주적 여학생회란 말 그대로 여학우가 주인인 조직으로 여학우들의 처지에 기반한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여학우가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여학생들의 대표조직입니다.

그리고 자주적 여학생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학생운동을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직입니다. 즉, 여학우들의 자주적 진출이 높아지면서 또한 이러한 자주적 진출을 더욱 높이기위해서 여학우들의 자주성에 입각하여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이 자주적 진출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 (4) 여학생회의 역할

첫째,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집중제의 원칙속에서 수렴하고 이것을 대변,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여학우의 정치, 사상적 각성도를 높이면서 이들을 삶의 주체로 세워내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셋째,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사회의 여성을 억압하는 요소에 맞서 투쟁을 지도, 전개하여야 합니다.

넷째, 전체운동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 (5) 여학생회 사업의 목표와 운영원칙

첫째, 여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내용과 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남한 여성운동의 올바른 사상적 관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대중과 여학생운동가를 교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면서 핵심적 여학생운동가를 배출하고 단대, 과여학생회, 소모임, 여성문제연구회 등 하부토대 건설과 지원, 지도를 통해 여학생회의 역량을 구축하여 자주적 여학생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서구의식에 물들어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여학우를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세우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 올바른 공동체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학원내의 여학우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넷째, 여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여대협을 강화하고 다른 기층여성간의 연대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운영원칙이 요구됩니다.

첫째,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의사수렴의 통로 정례화, 모든 사업내용의 공개화)

둘째, 통일적이어야 합니다. 즉, 여대협의 지도력과 여학생회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의 관점에서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상통일이 되어야하며 그 지도통로가 확실해야 합니다.

셋째, 자주적이어야합니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점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어느 시기, 어떤 사업에서도 여학우를 주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여학우의 자주적 삶을 위하여 사업을 벌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바라보는대서도 항상 책임감있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자주적 입장에 있어야겠습니다.

넷째, 창조적이어야합니다. 사업의 시발과 진행에 있어서도 여학우의 처지에 입각하여 전체운동과 괴리됨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고민되고 집행되어야겠습니다.

## (6) 기간 여학생회에 대한 관점검토 및 비판

기간 여학생회가 건설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학생회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와 더불어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89, 90, 91년도에 집중적으로 드러났는데 여학생회의 불필요성과 총학생회 산하 부체계화원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여학생회가 해체된 곳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여학생회 건설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되었고 또한 건설취지가 명확하더라도 전체에 집단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을 따져보면 먼저, 건설취지의 불명확성과 부문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 전체 학우와 여학우를 지도하는 조직에 걸맞는 사람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의 여학생운동과 여학생회에 대한 관점의 문제, 여학생운동을 핵심적으로 풀어갈 사람의 부재로 사업이 단절되는 점, 사업의 정형부재와 하부토대 구축없이 상층 중심의 사업이 연속되는 점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문제를 느끼면서도 집중적으로 풀지 못하여 반복되는 문제를 노정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학생회를 지켜보는 사람에서부터 여학생회 간부까지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학생회는 오히려 전체운동에 저해를 준다느니, 총학생회에 집행부 서로 두어도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느니' 즉, 이러한 문제가 전체운동에서 명확한 부문운동에 대한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주체의 문제만을 들추어내어 '비판'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자신도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많은 여학생운동가들이 운동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찾아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애초에 여학생회가 건설된 것은 전체운동속에서 여성이라는 세상의 절반을 변혁의 길로 동참시키기위한 것으로 부문운동의 요구에서 부터였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여학생회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점이 세워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물론 주체의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지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취지에서 건설된 조직이 전체운동에 복무하기위해 애쓰는 모습이나 전체운동의 미성숙을 바라보지 못하고 곧장 여학생운동가들을 비판하고 여학생회를 해체해야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조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어차피 건설된 조직! 건설취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강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전체가 함께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층련이 건설되고 전체 운동의 역량이 성숙되면서 또한 부문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가면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학생회를 방조하는 부분입니다. 서둘러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학생회의 올바른 모습을 찾기위해서는 주체의 자기사업에 대한 비판과 사업속에서 대안을 실현하는 것뿐아니라 여학생운동을 지도, 방조해야하는 집단이 함께하는 모습과 공동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 노력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 (7) 여학생회와 다른 기구의 관계

### 1) 총학생회, 단대학생회와의 관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서로가 쉽사리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며 여학생간부들이 가장 '벽'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예 풀릴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체의 노력이 전제가 되면서 여학생회의 위치와 역할이 잘 규정, 합의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학생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입니다.

총학생회의 역할을 드높이기 위해 단대, 과학생회가 있는 것과 같이 동연이나 총여학생회 또한 총학생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산하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여학생회의 모든 사업은 총학생회에 총화되고 더불어 총학생회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실제 그 관계에 봉착하면 잘 풀여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학생회와 총학생회가 부문으로써의 여학생회를 세워내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관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집단적으로 합의를 본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학생회가 부문운동이다 보니 총학생회에서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문제를 전제로 체계상의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즉, 부문운동의 경우 전체 골간운동과 달리 부차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문운동을 소외시키는 경향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문운동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주체가 선정되거나 이러한 부문운동의 고민을 총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리 체계가 서더라도 서로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이러한 체계는 아직 선례가 없는 부분이므로 고민해보면서 단위에 맞게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여대협과의 관계

여대협은 우리지역의 경우 경기여대협(주)와 각 지구 여대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인총련이 건설되면서 지역적인 여대협의 연대의 필요가 제기되어 경인여대협 또한 고민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여대협은 말 그대로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로 수준이 낮습니다. 중앙집행력을 담보할 주체가 없어 의장이 선출되더라도 그 역할이 골간 의장과는 현저히 다른 낮은 수준이고 무엇보다 아직 여대협이 각 학교 여학우뿐 아니라 여학생회 간부조차 몰라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89년 지구여대협 건설 이후 최근 92, 93년의 여대협의 활동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92년도 '보은, 진관투쟁' '정신대문제 해결투쟁' '성폭력특별법 제정투쟁'은 지구차원이었지만 전국과 연대하여 열심히 투쟁을 전개하여 지구 여대협의 역할을 높여냈으며 93년도의 '윤금이, 김국혜씨 투쟁' 등은 최초로 지역차원에서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에 서곤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쟁과 더불어 지역, 지구 여대협 건설사업은 각 지구 중앙운영위(각학교 여학생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속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 학교의 여학생회 사업이 지역적으로 총화, 지도되면서 지금까지의 여학생운동의 오류와 한계들이 하나하나 관점에서 부터 풀리고 있어 여대협의 강화가 가지는 의미를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문 운동에 대한 이해와 요구들이 높아감에 따라 여대협의 강화가 이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속에서 각 학교 여학생회는 여대협을 지도조직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대협은 총학생회와는 달리 여학단위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조직으로 각 학교 여학생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남한의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 지역차원으로 여학단위에 맞는 사업을 벌이면서 각자의 미약한 힘을 강하게 하고 작은 힘을 하나로 모아 더 크게 하는 조직입니다.

여대협의 조직수준이 낮기는 하나 각 학교 여학생회의 관점변화에서 시작한 여대협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은 지금 시기 더욱더 여학단위를 지도하는 조직으로 튼튼하게 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3) 여성단체와의 관계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여성단체와 연대하면서 힘주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남한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시발입니다. 현시기 여성단체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에는 청년 여학생운동의 역할이 컸습니다.

청년 여학생운동의 발전과 함께 사회여성운동의 발전은 전체 여성운동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사회여성단체와의 연대투쟁은 '보은, 진관투쟁'이나 '성폭력특별법제정투쟁'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큰논란과 의식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사회여성단체가 올바른 관점으로 투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회 여성운동의 발전은 사회여성운동과의 연계를 지으면서 커질뿐아니라 여학생운동의 발전 또한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회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대투쟁도 중요하지만 단련된 여학생운동가의 집단적 배출도 필요합니다. 사회여성단체가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이러한 사회여성단체를 이끌어갈 핵심인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여성단체에 집단적으로 핵심을 배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여성운동의 변화, 발전을 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8) 여학생회의 하부토대 구축에 대하여

모든 단위는 하부토대를 가지는 것은 그 학생회의 발전과 관계된 일입니다. 하부토대는 직접 운동을 집단적으로 벌여낼 수 있는 대중이면서 운동발전의 핵심인자를 배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학생운동처럼 하부토대를 가지지 못하고 시작한 운동의 경우 자기 하부토대를 마련하는 문제는 운동의 발전뿐아니라 운동의 존속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학생회에서는 하부토대를 단대, 과여학생부와 각 소모임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부토대는 실제 일년동안 존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하더라도 하부토대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학우를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하부토대를 구축하다보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학생운동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부토대 뿐아니라 여학우를 직접 만나는 여학생운동은 사람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간부가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니 즉,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내기 보다는 사업의 대상으로만 대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실제 하부토대건설에서 가장 중 심적으로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단대여학생부장이나 과여학생부장을 만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부장들은 자신의 결의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에 결의를 가지고 사업을 임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들 모두는 막상 사업을 맡게 되면서 자신은 '이런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들을 만나는 여학생회 간부는 이들의 지향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여학생회의 중앙사업을 들고 하달하는 형식으로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여학생부장들은 자신의 요구와 수준에 맞지않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여학생회 간부들을 피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점은 바로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자연히 여학우를 여학생회 두리로 묶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학우의 처지를 자신의 삶속에서 풀고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는 간부, 이것이 하부토대뿐아니라 여학생운동 발전에 핵심입니다.

**둘째,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고 정례화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많은 여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무시한채 사업을 벌였고 그 한계를 계속적으로 노정해왔습니다.

여학생운동론과 여성문제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면서 '여학우는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여학우의 실제적 요구는 모르는채 단순한 사고 속에서 사업을 배치해왔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여학우를 이론에 끼워 맞추는 식'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철저히 지향하도록 하면서 여학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건설해야겠습니다.

① 먼저 단대여학생부장들을 여학생회의 중앙운영위라는 정식 명칭아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내는 사업을 벌여야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단대여학생부장 지도사업과 회의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관점은 철저히 극복하면서 여학생부장들을 지도하고 이들이 핵심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② 더불어 여학우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여학우의 목소리함 설치'나 '단대, 과순례간담회'를 통해서 학우들과 직접 만나고 이들의 요구와 지향을 들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많이 시도되었던 부분이지만 정례화되지 않으면서 성과를 제대로 챙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학우 목소리듣기 사업'은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들을 수 있으면서 여학우의 인식을 높여내어 구체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된다면 많은 선진적인 여학우들을 조직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셋째, 여학우 자신의 처지와 그 처지 극복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적인 모임과 학습, 교양모임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하부토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학우는 자신의 처지를 느끼더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방도를 몰라 더욱더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여학우에게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그런 여학우의 경우 과나 단대에서 여학생부장을 하고 싶어하고 그럴 기회가 없더라도 과내에서 여학우의 모임을 만들어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여학우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가지 대중사업도 있겠지만 보통 학습의 기회나 이런 여학우의 모임인 '여성문제연구회'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맥을 통해 이런 여학우를 알게되더라도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 사람을 단련시키고 고민수준을 높여낼 수 있어 '일석 이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각과나 단대에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소모임을 만들고 이러한 소모임을 운영하도록 하여, 여학생운동의 핵심인자를 키우는 사업과 더불어 하부토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 (9) 여학생회의 간부상 - 기간 여학생회 간부의 편향을 중심으로

### 1) 집단이기주의

이것은 여학생운동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여학단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편향입니다. 이러한 편향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여성문제의 발생원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을 풀어나가는 운동방향에 기인합니다. 즉, 여성문제의 발생원인 또는 여대생의 처지 발생원인을 우리 민족과 사회현실 속에서 파악하려하지 않거나 그것을 알더라도 전체운동의 지도속에서 풀려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운동을 풀어갑니다. 이속에서 전체운동을 풀어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괴리되거나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옳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여학생회에 대한 관점 검토와 비판' 참조)

지금시기-모두가 하나되어 통일과 민주, 자주를 위해 투쟁해야할 시기-에 있어 가장 없어야 할 편향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것을 전체의 입장에서 풀어야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까지 부문운동이 전체운동속에서 자리잡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많은데 특히 올바른 전체운동의 지도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운동아닌 운동을 벌여낸다면 이것은 전체구국운동과는 상관없는 운동을 벌이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전체운동은 말 그대로 전체의 큰 물줄기입니다. 이러한 물줄기를 거스르고 '독자성'이라는 이름하에 따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큰 의미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 전체구국운동을 벌여내는 간부들에게 있어서는 안될 편향입니다.

### 2) 개인주의

청년 학생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계급적 한계이지만 여학단위에서는 여학간부들이 단위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관료주의 (소극성)

특히 이러한 부분은 여학단위의 사업부는 방식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여학생회 사업은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내면서 풀어나가야 할 '여학생운동'입니다. 여학우를 만나지 않고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알 수 없고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낼 수도 없습니다. 학생회실에 가만히 앉아서 학우들을 만나기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여학우를 만나면서 간부들의 여성으로 가지고 있는 소극성 극복하고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간부가 변화함으로써 여학우 만나기를 서슴지 않고 간부와 여학우의 삶이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이론 중심 주의

'여학우들은 대충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속에서 여학우를 만나면서 풀려기 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에 근거하여 사업을 풀어나가는 위험한 발상이 여학단위 사업속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주의는 간부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는-철저히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는 상관없이- 단편적인 사업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다음에는 이것하자!' 는 식의 발상은 진정 대중운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성문제가 발생한 것이 민족과 사회현실속에서 발생했다면 그 시대적 흐름속에서 변화하는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양내용과 학습에 의존하면서 교과서적으로 여학우를 생각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론은 실천을 만들기 위한 담보, 사상적 의지를 키워내기 위한 것입니다. 실천과 투쟁없는 '이론주의'는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 여학생운동을 하는 간부는 먼저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하는 어떠한 말과 일에도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아픔을 가슴 뼈속깊이 느끼며 이것을 해결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꺼리낌없이 회조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해결하려합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신이 가지는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으며 전체 집안을 위해 하루하루 끈질기게 삶을 일구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간부들이라면 무엇보다 믿음으로 학우들을 만나고 머리를 굴리기 전에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이러한 모습을 바꾸기위해 끈질기게 학우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간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사업을 하는 운동가, 여학생운동가들도 이러한 간부다운 모습과 품성으로 여학우를 만납시다. 여학생회가 진정한 자주적 여학생회로 서가는 길, 이것은 여학 간부들의 혁신과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여성들이 분개하거나 안타까와 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다 고 얘기했다. 우리는 약소국민이며, 또한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후에 순옥이 사는 클럽 방에 찾아가 좀더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조이의 상사나 미군 당국에 이런 사례를 알리려고 생각하며, 순옥이 사체를 얻을 때 받았던 증서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그녀는 조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체를 갖은 후 그의 앞에서 증서를 찢어 버렸다고 한다. 설사 그 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조이가 그런 일로 인해 계급이 강등되거나 벌을 받으면, 그는 보복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순옥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쉽고 결국 순옥은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순옥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경우, 돈이야 값으면 되지만 어떻게 다른 미군을 믿을 수 있는냐고 하소연을 하였다. 또 다시 다른 미군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믿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미군도 불신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서로간의 불신의 벽은 점점 두터워지게 되고 순옥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미군은 답답한 군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데 그치게 되고, 결국 그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순옥의 경우 상처가 그녀의 가슴속에 굳어지기 전에 우리와의 만남으로써 그녀의 한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지만, 순옥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지촌 여성들을 만나면, 많은 상처로 인해 굳어진 얼굴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순옥은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좀더 진실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기지촌 여성의 삶의 소리

\* 참고 문헌 : 두레방 소식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저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게 해주세요' 커다랗고 매력적인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얘기를 시작했다. 기지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두레방에서 자주 가보는 송산 성병 진료소에서의 일이었다. 방에는 열다섯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성병 검진을 받으러 나오는 여성들이다.

순옥은 청주가 고향이며, 상업여고를 졸업하고 송산에 온지 3-4개월쯤 되었다. 그녀는 송산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스무살의 백인 미군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은 빛을 안고 클럽에 들오게 되는데, 그 때문에 주인에 묶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빛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순옥의 애인 조이(가명)는 동거하기를 원했다. 순옥은 주변에 있는 고리대금업자 아줌마에게 달려 이자로 사체를 얻어 클럽 주인에게 진 빚을 갚았다. 클럽일도 그만두고 방을 얻었다. 조이는 사체를 다달이 갚기 시작했으나 워낙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월급도 작았으므로 살기가 마뚝했다. 그래서 순옥은 만두집에서 일도 하고 양말을 떠서 생계비를 보냈는데, 그래도 마냥 행복했다. 그러던 중 동거 삼개월째 되는 어느날 순옥은 고향에 들으러 갔다. 그 사이 조이는 이태원에 놀러갔다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그는 순옥이 고향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나가버렸다. 순옥은 사체를 혼자 갚을 능력이 없어 클럽에 다시 들어가면서 또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송산에 왔을 때 빌린 것보다 두배나 되었다.

사체를 얻을때 조이와 그녀는 이빚을 같이 증서에 넣었다. 또한 조이는 내년 유월까지 모두 갚는다고 서약했는데, 실제로 그는 내년 오월에 미국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빚을 다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녀가 남은 사체를 갚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종종 빚을 갚지 않고 떠나는 미군들이 있어 아줌마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순옥이 일하는 클럽에는 조이의 친구들이 여럿 오곤 했는데, 순옥은 그들에게 조이에 대한 불만을 한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다. 친구들은 순옥의 서투른 영어보다는 조이의 말을 더 믿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이에 대한 불평을 하면 미군들이 그녀를 상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클럽속도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순옥은 생계를 위해 아무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었다.

# 기지촌 활동

## 네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만리나

94 겨울 기지촌 활동은 이렇게 ...

지난 1월은 24일 부터 지인 까지 일주일간 동남지역에서의 기지촌 활동(이하 기발)이 있었다. 우리 의결은 지난 93년 제 1기 대원 9명을 배출함에 이어 이번 겨울 기발에서도 12명의 대원들과 함께 했다. 호철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광방, 돌이방을 비롯하여, 지역의 주민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취지에 걸맞 지역 자. 그리고 퇴폐아 향락으로 대두되는 클럽방문등을 비롯하여 비슷한 일정을 보였다. 활동기간중에는 그 지역 강사로 계시는 분들께 군동이 있었으며 매일 학업과 총과를 하는 등의 일정으로 겨울기발이 이루어졌다. 지역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활동의 장치가 없지는 않았지만 기발 대원들의 자주성과 헌신성이야말로 어려운 일을 이겨낼수 있는 힘이 있다. 살지로 기발대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에도 호철아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되는 등 학기중에도 자원봉사자로 동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클럽 방문등을 통한 제기로 그곳 직업 여성들과의 벗을 깨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한다. 올 겨울 기발 역시 3기 대원을 모집하여, 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간담이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일구어 나갈 계획이다.

함께 하는 삶, 나누는 사랑, 기지촌 활동 ...

기지촌 활동은 아직까지 역사라 짧다. 그러나 우리 경기 지역에서는 생도하기까지만 하다. 91년 겨울 서울 지역의 몇몇 학교가 후원방을 중점으로 활동을 하였고 92년에 이르러서야 경기지역의 기발이 시작되었으며, 93년에 이르러서야 그 틀을 잡게 되었다. 우리 의결도 지난 여름을 시작으로 현재 2기까지 20명의 대원을 배출했다. 기지촌 활동의 의의는 여러가지는 모두 있겠지만 첫번째로 민족, 계급, 성향이 결집되어 있는 기지촌의 현실을 보면서 조국의 영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길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생각할수 있는 자리라는 점. 두번째로 지역단위의 활동을 통한에서 용과 시키는데 이르러 이후 학생들의 활동 근거지를 마련하는 활동이라는 점. 세번째로 기발의 응이 투쟁과 학생회 활동목에서 단결, 신권이라는 점.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변화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발이 유지될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청년학생들의 자주성과 헌신성 때문이었다. 조국이라는 명제, 여인네들 영감히 사랑하는 조국, 기지촌 활동이라는 제마 타래의 발판이 되어 자신의 삶에 의미 부여 주제로 우뚝 서는 것임은 많이 의의치 않는다.

가장 억압받은 민중이 살아가는 곳  
기지촌 여인 운동가

글, 정리 : 김옥리 (원유 91 제1-2기 대원)

영원한 자유 우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분단정국을 짓밟고 있는 미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우방일수 없다. 한국의 미군기지는 미군기지의 체제 실체이다. 존재시선이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과 지역의 지배와 통제에 대한 전사적의 실체로서 자유의 이해를 실현해내는 정적 존재성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앞방적으로 위대한 주권이 성립이 민족의 대량운동을 전방으로 형성을 비연에 방지하는 것은 막대한 함량이 많은 주권의 4,000 주한 미군은 미군이 많은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입체적 지배이다. 현재 180여개의 속한 미군 기지는, 총면적 약 4천만평으로 현재 기지 면적의 2할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권, 비영양, 우리 주민에 형사, 중상하고 있다.

# 기지촌이란 어떤 곳인가

기지촌이라 하면 보통 이해원, 양주현, 의정부, 양산 등라 같이 미군기지촌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나 생활권을 일컫는다. 이곳들은 거의 전차상 주민지역으로 치부되면서 마을 기지가 몰려다 번성하게 되는 도시로 생활의 형태나 미군기지에 기생하는 형태인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미군기지가 없어질 경우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받게 된다. 미군과 가장 가까이 사는 기지촌은 미군의 정책이 용, 반반으로 시행되고 가장 먼저 안주하는 곳으로 마을의 정책이 곧 헌법상의 정책이 되는 현상속에서는 헌법도 어느 곳보다도 정세에 반영하다. 기지촌을 이루는 사람 대부분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로서 이들은 각각 강인, 경한, 안산이며, 저임금, 아내 귀락로 인한 가족응으로 겪은 이들로 기지촌 여성들은 통해 여성 문제가 집중 집중되어 집중되어 이들 나중대론의 직업에 따라, 또 또다 큰 직업 여성의 근태를 봐서 재직제도의 분화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기지촌의 여성들은 그야말로 개량(?) 생활을 미군에게 바쳐지는 '현대판 정신대'라고 할 수 있다. 정상대가 일반인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였듯이 이들로 미군기지로 미군의 이동과 같이 움직인다. 또한 기지촌 지역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생활의 기생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비롯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쪽 주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을의 리더, 행정적인 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자의들의 교육 문제이며, 아이들은 개인 문제를 받아들여면서 자지촌의 현실을 겪게 된다. 또한 아이들나 여성들은 성폭행이라 같은 미군 범죄에 대한 불만에 편어야 한다. 미군 범죄는 실로 다양하면서도 많으나 갓 알려지지 않은 있는 상황이면서도 '많은나 갓 알려지지 않은' 있는 상황이며 정상은 미군의 편을 들, 정부에서는 위락시설 위치에인 상황을 쓸 뿐 문화시설 등 지역발전의 장치는 거의 전무이다. 기지촌의 가장 큰 형성된 매호 여성들의 문제, 타인권을 거부하는 생활 문화에 평생을 전념하려고 싶어하게 되거나 해리양육하는 후견나 문제, 근본적 대책없이 미군에 의한 강연자의 강제 인쇄 귀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이도 문제가 후임되어 기지촌은 분산정상의 아픈 병원이 아니라 석인 정부의 고충까지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 위기의 여자

고 정 희

여자식으로 바둑판을 봤다가  
남자식으로 수를 두는 날들이 있었다  
여자식으로 씨를 뿌렸다가  
남자식으로 추수를 하는 날들이 있었다  
여자식으로 뿌리를 내렸다가  
남자식으로 꽃피는 날들이 있었다  
남자식으로 또 여자식으로  
커다란 대문에는 빗장을 지르고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를 잘랐다.  
이 온전한 평화  
이 온전한 행복  
그러나 어느 날  
여자식으로 사랑을 꿈꾸며  
남자식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우아한 중년의 식탁 위에  
검고 무서운 예감을 엮질렀다  
어둡고 불길한 예감 속에는  
산발한 유령들이 만찬을 즐기고  
사랑의 과일들이 무덤으로 누워  
피묻은 달을 하관하고 있었다  
먼 데서 어른대는 황혼의 그림자  
적막 속에 흔들리는 지상의 척도.....  
  
왜, 왜 사느냐고 메아리치는 강변에  
여자 홀로 바라보는 배가 뜨고 있었다

# 미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쌀 수입 개방

## 1. 대세론 유포

“한국농민들의 분노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특히 쌀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으로 개방무역이 시작됐습니다. 무역의 자유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무역의 자유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공영의 새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UR협상의 타결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 동아일보 12/15

“한국이 오늘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국제무역 덕택” “수입은 가격을 낮추고 선택을 폭을 넓혀주며 국내생산자들에게 제품을 향상시키게 하는 경쟁을 안겨준다.”

-12/17 관훈토론

주한 미 대사 레이니의 이야기들이다. 역대 주한 미대사들은 나름의 언술을 동원하여 수입개방을 옹호해 왔다. 전 대사 그레그는 “한국주부들이 미국, 일본 주부들에 비해 식료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며 값싼 수입농산물을 권한 적이 있었다.

## 2. UR 합의사항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미국은 2월 가트에 제출한 UR 이행계획서중 당초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한 전자, 비철금속, 목재 중류주 등 4개 분야의 관세를 일부인하기로 수정해 놓고도 미 대사관을 통해 자신들의 이행계획서 수정이 일본, EU, 캐나다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정부의 사소한(그야말로 사소한!) 이행계획서의 수정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밀실협상으로 끌어들이며 다시금 후퇴시키고야 말았다.

### 3. 한국에 대한 개방압력 이전에 수신제가해야할 미국

법대위는 12월에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정 가운데 미국이 14개 웨이버 품목의 수입제한을 담보로 캐나다에 대한 GATT 11조 2-c항을 적용과 예외없는 관세화가 상치”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NAFTA 협정의 내용을 말끔히 수정하든가 여부를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답하였다.

물론 의회는 이를 가결하였다.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UR협상에서도 미국은 웨이버 품목을 우리나라와는 달리 관세상당치로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자금과 극빈자 보호를 위한 국내 식량원조금, 구조조정자금 등을 모두 국내허용보조금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쇠고기, 담배, 커피 등은 품목별 보조금이 총생산액의 5%미만이라며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이 자국의 필요과 요구에 의해 농업지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또한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UR 의회비준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당당한 입장이 아니다. 지난 연말 미 상원 콘라드 의원을 비롯하여 60여명의 상원의원이 서명을 통해 UR 비준반대 입장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지난 3월 12일에는 벤슨 미 재무장관이 UR에 대한 미국국회의 비준이 94년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게파트 민주당 하원의원은 강력하게 의회비준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파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며, 미국은 의회비준절차를 거치는 대신 각료급의 협정으로 이를 받아들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6월까지 비준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4. 슈퍼 301조의 부활

#### <제기과정>

미국은 예초에 슈퍼 301조를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2/10 제프리 가튼, 국제무역담당 상무차관

“강경한 무역통제의 고수가 미국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

“타국이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공정한 가격 이하로 덤핑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미업계의 능력이 박탈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미국의 UR 협상단이 협상대이블에서 퇴장할 것”

1/28 캔터 미무역대표부의 미의회 증언

미 의회 증언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신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미국 통상법 301조를 계속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역상대국이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위반할 경우, 경쟁정책 등 GATT가 대상으로 삼지 않는 분야, GATT 비회원국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1조의 발동이 가능하며 WTO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WTO 설립으로 미 통상법의 운용이 제약을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WTO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례가 늘기는 하겠지만 301조의 절차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일본과의 무역마찰은 슈퍼 301조를 현실화시켰다.

지난 2월 11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호소카와 일본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클린턴은 지난해 미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사상 최대규모인 5억 93만 달러에 이르러자 참을성을 잃고 "외국산 상품의 일본시장점유율 수치목표를 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호소카와는 이것이 사실상 관리무역임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클린턴은 준비된 보복으로 "일본이 미,일간 통신개방협정을 위반해 실질적인 통신분야(이동통신)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슈퍼 301조의 부활 등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도 지지 않고 보복으로 맞서 결국 3월 4일 미국은 대통령령으로 슈퍼 301조를 재발동하였다.

#### <내용>

슈퍼 301조는 미국정부가 불공정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무역상대국에 대해 최고 100%의 관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강력한 무역보복조항이다.

이 법안은 지난 88년 의회내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 89년부터 90년까지 2년 시한으로 운용됐으나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부활됐다.

슈퍼 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 말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미국정부가 불공정 무역국과 관행을 지정하면 미 무역대표부는 그 대상국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미국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 법안에 의거, 각종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슈퍼 301조는 지적소유권 분야 301조 등 분야별 301조가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반해 한 국가를 불공정무역국으로 규정, 폭넓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법안이다.

#### <영향>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이 1차로 일본 있다고 해도 우리의 대외교역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슈퍼 301조 부활로 미무역대표부가 각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파악, 작성하는 각 국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올라가기만 해도 미국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국가가 보복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금융 및 유통시장 등 UR 협상의 미타

결론야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어 추가개방압력의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 5. 고역이 아닌 식량지배를 위한 미국의 쌀개방압력

한국에 대한 미국의 쌀개방압력이 자유무역, 공정무역이라는 허상의 가치를 좇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경제적 이해의 실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식량의 무기화'라는 말은 현대 정치학의 학술영어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을 구사할 능력과 경험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바로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은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더구나 UR 타결소식과 아울러 미국의 쌀경작지가 크게 늘고 있으며, 몇해전 미의회 세출위원회에서 밝혀진 치밀한 칼로스의 불법유통사례는 더욱 높은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1인당 쌀 소비량이 다른 나라 주둔 미군의 10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미국은 이 땅을 강점한 초기부터 쌀을 비롯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쌀개방은 미국의 잉여농산물 강매정책,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의 완전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상원조의 명목으로 저들이 먹다남은 밀 등 잉여농산물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우리 농민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농업생산의 몰락을 가져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1995년 5월 한미 잉여농산물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잉여농산물 투입의 여건이 조성된 상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에 대한 잉여농산물 투입을 종전의 무상원조의 형태로부터 무상과 유상을 병행하는 형태로 이행하였고, 여기서 유상원조, 즉 차관에 의한 농산물 투입을 더 중시하고 확대하는 데로 나갔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잉여농산물에 의존하지 않고선 농산물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2년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잉여농산물 투입을 차관형태로 완전히 이행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잉여농산물 투입형태를 차관형태로 이행한 것과 함께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45년부터 55년까지 미국 잉여농산물 투입규모는 연 평균 37만 2천톤, 63년 이후에는 그 투입량이 백만톤을 넘어섰고 69년에는 2백만톤, 71년에는 313만톤, 79년에는 547만톤으로 늘어났다.

잉여농산물 투입은 양적규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품목 또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잉여농산물 투입초기에는 밀과 콩 등 몇개 잡곡류 품목에 국한 났습니다만 50년대부터는 잡곡류 전반으로 확대가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일류와 축산물, 쌀수입이 확대되었고 잡곡류 시장은 사실상 미국 잡곡류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더욱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투입으로 한국의 농업생산이 파탄되고 미국의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고선 공업에



필요한 농산원료는 물론이고 식량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노골적이고 강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을 가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은 말 그대로 침략적이고 약탈적이고 강도적이다. 미 통상법 301조를 비롯한 각종의 보복수단들까지 발동하여 압력을 가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은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들로 돌려지게 된다. 80년대 후반기에 와서 기초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은 수입 다 자유화된 것이다. 기초농산물 품목만 개방되면 온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게 되었던 것이다.

쌀시장개방압력이 본격화된 것은 80년대 말부터였지만 한국의 쌀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책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해방적 후, 진주한 미국은 한국의 지배자들에게 미국이 한국민에게 쌀을 공급할 것이니 한국의 논을 다 밭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는가하는 제안을 했을 정도였다.

50년대부터 벌써 한국의 쌀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구사하여, 미국산 쌀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56년도였다. 처음엔 그 양이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60년대 후반기부터 투입규모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전후시기에는 해마다 평균 50만톤-70만톤의 쌀이 수입되었다. 한국에 대한 쌀투입이 늘어나자 미국은 쌀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규모를 크게 늘렸던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주식은 원래 밀이다. 미국에선 공업용 원료로 쌀 200만톤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안칸소주, 미주리주, 텍사스주를 비롯한 서남부주들에 쌀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쌀생산을 대폭 늘렸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간 평균 쌀생산량이 8백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결국 한국의 쌀시장이 개방되게 되었고 농산물 시장 전반이 완전히 개방되게 됐는데 미국이 한국에 것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쌀시장개방압력을 가한 것은 제고로 쌓인 얼마간의 잉여쌀이나 팔고 2천여호의 쌀생산능가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와 예속, 약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EU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왜 수많은 경제적(!)피해를 감수하고도 기를 쓰고 식량을 자급하려 했는지가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쌀시장을 장악한다는 것, 이걸 우리 국민의 숨통을 거머쥐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쌀시장을 장악하면 한국의 농업생산을 물론이고 경제전반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수 있고, 또 정치군사적 지배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 6.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개방압력

### 12월 9일 제네바 미국 대표부에서 차관보급 실무협상

한국의 쌀시장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괄교섭을 벌였으나 미국측이 쌀시장논의는 제외하자고 요구해 쌀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측은 이날 금융시장의 추가개방과

일부 개방일정의 조기실현, 무세화 및 관세인하대상 공신품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 2월 한미경제협력을 위한 대화(DEC)

유선방송업, 보험중개업, 우편발송업, 무선장비업, 어학원 등 10개 분야에 대한 개방일정 단축, 유통업의 투자제한 철폐, 경품한도제한폐지를 요구하는 등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통상관계에서 지적재산권분야(특히 대기업들의 소프트웨어복제와 상표권침해문제), 제2이동통신참여문제, 법률및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전망임을 내비쳤다.

### 3월 7일-10일, 비공식 통상 실무협의

대한한 피터 콜린스 미 무역 대표부 실무자들은 자동차 시장과 통신시장 개방확대, 지적재산권 보호등 강력한 개방압력을 가해 왔다.

이러한 개방압력은 한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쌍무협상 기구들인 한미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 반담평회의(3월 15일), 제3차 한미기술실무회의(16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 자동차 시장개방압력

미국은 현재 자동차 수출입에서 자신들이 120대 1의 엄청난 역조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를 EC수준인 현행 10%에서 자국의 2.5%로 낮출 것을 강압하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압력은 그저 무역협상이려니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압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형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없앨 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의 세금체계에 까지 간섭하며, 심지어는 외제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방송광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까지 불만사항으로 내놓고 내정을 간섭해 나가고 있다.

### 금융개방의 가속화

캐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월 27일 미하원 세입위 UR 청문회에 출석, "일본과 한국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소위 「무임승차」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시장을 개방한 정도만큼 양국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로이드 벤슨 미 재무장관이 아시아 각국을 순방, 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상품시장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개방 필요성을 역설하고 돌아온 직후 나온 것이었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미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시장개방을 위해 총력하고 있는 것은 "UR 협상에서 금융부문을 끝내 타결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캐터의 발언에서 증명되듯 UR 금융부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의도대로 관철되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의회까지 나서서 금융보복법안을 최우선 심의대상으로 올려놓는 등 금융시장개방의 압력에 광분하고 있다.

### 3월에 열린 제 20차 한미정례통상협의체회의

미국은 또다시 미국산 옥수수가루의 수입과 개사료 광고허용, 보관세 처리를 한 자두의 수입허용, 애완동물용 비카민의 수입기준 재분류, 돼지내장 수입검역에 대한 이의 등 광범위한 통상문제를 제기,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열처리후 냉동시킨 미국산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30일로 축소조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유통기한을 90일로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3월 31일, 무역장벽 보고서

이것은 슈퍼 301조의 부활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가 6개월 뒤인 9월 30일 지목하게 될 '불공정무역관행'의 기초자료가 된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국 자동차 시장은 공시, 비공식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외국 자동차에 닫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동차 시장을 비롯해 수출지원금, 금융, 투자, 서비스 등 여러분야에 걸친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했다.

### 4월에 열릴 제 16차 한미무역실무회의

미국은 자동차 시장의 개방압력을 더욱 가중하고 특히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 발동 등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자동차제조업협회도 4월 중순께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이 자동차시장 개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7. 제 입맛대로 끌고가는 다자간 무역협상

일단 마무리 되었던 UR 농산물협상은 출발부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UR농산물 협상의 주요한 두 의제는 주지하다시피 농업보조금의 삭감, 철폐와 예외없는 관세화이다. 농업보조금의 삭감, 철폐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감수한 EU 등과의 수출경쟁을 견디다 못한 결과이다. 즉 농업보조금만 없다면 미국이 세계 농산물 시장을 제패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외없는 관세화는 물론 무역장벽을 없애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공정무역, 자유무역과는 애초에 인연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에는 자국농업의 부흥과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농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보호무역을 인정하였었고 최근까지 14개에 달하는 수입제한 품목과 농업보호법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UR협상이 예전의 가트의 다자간 협상과 달리 금융, 서비스 등 광범한 경제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80년대 이후 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서비스 분야가 떠올랐고,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였던 것이다.

이후 전개될 라운드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린라운드의 경우 환경보호를 그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으로서는 환경비용의 투하 없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앞에 미국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 묘안의 하나로서, 새로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환경산업을 자국의 주도권하에 세계적으로 재편할 목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와 담합하여 국제교역에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이다. 동남아, 중국의 아동노동과 최수노동이 비인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들을 비롯한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에 근거한 가격경쟁력을 제어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처럼 공정무역이니 환경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보편적 가치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자국 중심의 세계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패권적 발상에서 연유한 연속적 과정이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8. 한국의 정권에겐 영원한 상전인가?

미국의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R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2월 8일, "반덤핑 분야에서 협조해달라"며 한국의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분야에 협조하는 대신 금융시장 추가개방과 반덤핑제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처졸하고 집요한 무역관행은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쌀의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일본보다 줄여준다는 것을 '미끼'로 쇠고기 등 주요농산물의 완전개방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냈다. 쌀이 한국정부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한 미국은 이를 최대한 이용해 축산물 등에서 큰 이익을 챙긴 것이다.

최근 최종개방이행계획서의 수정과정에서도 미국은 이것을 십분 활용했다. 느닷없이 이미 합의했던 쌀의 최소수입물량을 늘리라고 초반부터 주장하며 나온 것이다. 최근 이면계약에서 드러났듯 이런 '어거지'도 성과를 냈다.

종량세와 국영무역 적용은 가트 규정에도 보장돼 있고 한국이 '개도국'이니만큼 관세평균 감축률 24%도 이미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전략은 완전히 먹혀들어 26.7%라는 높은 감축률을 따냈다. 또 종량세와 국영무역 품목도 자국과 관계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김 영삼은 쌀수입개방의 장본인!

### 국책연구기관 등원 “쌀개방 불가피” 여론화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3일 “그동안 재야단체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UR가 타결되면 농촌이 금방 망한다」는 등 UR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시됐다”면서 “차제에 UR협상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밝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이고 손해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곧 산업연구원은 「UR협상 타결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세미나에서 성 극제 연구위원이라는 작자는 “UR협상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정부도 쌀문제에 대해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쌀시장을 사수할 경우 새로운 자유무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유일한 국가로 낙인찍혀 국제사회에서 고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서둘러 협상에 나서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쌀시장 개방안을 얻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 김영삼 대통령의 이유있는 침묵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30일 APEC 지도자 회의 및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넓은 세계, 밝은 미래로’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연설에서 “조그마한 데 집착하는 소모적 정쟁과 우물안 개구리식의 시시비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작 쌀개방문제가 어떻게 얘기되었는지 관심을 집중(김 영삼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를 얘기하느라 쌀문제는 말을 꺼낼 시간조차 없었다고 해왔었다.)시키고 있는 의원들과 국민들의 맥을 찢 후, “어떠한 함의도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미 백악관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은 아주 강력하게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문제를 제기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더욱 개선된 제안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특히 금융시장, 농산물의 관세화 등의 부문에서 한국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백악관과 청와대의 발표를 두고서는 국내 일간지들도 입을 다물

고 있지만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법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 하느라 무역이나 시장개방 등에 양보했던 것은 없었는지(중앙일보)” 물었고 APEC 지도자 회의에 관련해서는 “결국 UR 타결에 말썽을 피우는 프랑스를 비롯한 EC의 팔을 비틀려는 클린턴의 고단수전략에 김 대통령이 들러리 노릇을 했다는 것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보는 나의 시각이다.(동아일보, 재미교수 김 상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 **김영삼 대통령 ‘쌀개방 불가’ 발언록**

-쌀 등 기초식량은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이 불가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도 인정하지 않는다.

(민자당 14대 대통령선거공약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 중에서)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 92년 11월 21일 충북 충주,제천 유세)

-쌀은 외국으로부터 어떤 개방압력이 있어도 수입해서는 안된다.

(92년 11월 24일 유세)

-쌀문제만큼은 경제논리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쌀시장개방은 어렵다.

(92년 12월 31일 UR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 **12월 9일 담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미련하리만큼 홀로 남으면서까지 비장한 각오로 노력했습니다.

쌀을 지키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거부하고 국제적 고아로 혼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GATT 체제를 수용하면서 세계화, 국제화, 미래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고려할 때 UR 타결로 분명히 우리가 잃을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개방론자는 애국노요, 반대론자는 애국자라는 이분법은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개방과 그에 대한 반대가 정쟁으로 번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미봉책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이 피부로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농민대책을 집행할 것입니다.

상세한 비판은 다음으로 미루겠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12월 9일이면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캐나다도... 거의 모든 나라가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전투가 한창

이었고, 프랑스와 미국의 극한 대결로 UR이 타결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 이태전인 12월 7일에는 수만의 농민과 애국적 국민들이 모여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를 목청껏 외치며 정부의 자주적인 통상외교를 촉구하였다. 외세에 대항해 싸우자는 국민들에게 등돌리고, 한 치앞이 혼미한 전투상황속에서 백기를 높이 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으며, 新자를 좋아하는 김영삼의 新외교의 극치였다.

### 비밀협상으로 팔아넘긴 민족의 생명

그런 반 틈 GATT주재 EC대사에 의하면 한국은 협상이 본격국면으로 접어들기도 전인 11월에 이미 미국과 비밀협상을 열어 쌀개방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11월에 이미 끝났으며, 협약에 서명까지 마쳤고, 쌀개방조건은 알고 있으나 외교관 신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12월 2일 협상단의 긴급파견, 미국과의 협상, 12월 9일 담화... 한마디로 정치쇼에 불과했던 것이다.

###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5일이 타결일정인 가운데 2일에야 협상대표단을 파견하는 정부가 무슨 근거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APEC 지도자회의와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영삼은 쌀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자신의 매국성을 변호하려 하고 있으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영삼이 먼저 쌀이야기를 꺼내 클린턴에게 쌀개방은 불가함을 역설했어야 옳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를 두고 협상이라 해야 할 지가 궁금했을 정도였다. 협상과정은 매우 복잡한 듯 묘사되었지만 1시간을 넘지 않는 4차례의 만남으로 쌀과 기초농산물은 개방되었다. 책상 한번 못 쳐본 채, 미국은 요구하고 한국은 들어주고... 무엇을 한번 요구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런 무력한 협상팀에 대한 분노도 있었으나 더이상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협상전략까지 소상히 가르쳐 주었다. 미국 스스로 예외없는 관세화를 거부하는 농업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점, 예외없는 관세화를 거부한 북미자유무역협정 내용을 부각시킬 것, 일본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것 등등.

그러나 김영삼의 귀에는 이런 주장들이 들리지 않는 듯 하였고, 오히려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9일 담화를 통해 항복해 버렸다.

애국민중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최종개방이행계획서를 수정하거나 공란 제출하여 재협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 쌀을 제외한 기초식량의 개방에 있어 최소한 '관세상당치'를 획득할 것 등등. 이 또한 김영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면협약이라는 추악한 모습으로 '최선'의 내용을 드러내었을 뿐.

## 말로 하는 기초농산물 개방반대

정부는 10월까지만 해도 쌀은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본입장과 함께 쌀 이외의 기초식량은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하되 최소시장접근은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11월달에 들어 4일에는 쌀시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농산물 분야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을 가트에 비쳤고, 이어 11월 6일에는 쌀 이외의 기초식량작물 중 쇠고기, 마늘, 고추, 양파, 보리 등 5개만 불가품목으로 검토하고 쌀과 함께 쇠고기, 보리, 고추의 4개 품목만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품목은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2개의 기초농산물을 추가개방하는 것으로 물러났다가, 금기야 UR 타결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쌀만은 예외없는 관세화든 최소시장접근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국제화, 개방화를 앞세우면서 쌀개방을 안하면 금방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개방을 결정, 결국 쌀마저도 개방하기로 하였다.

## 이면합의서는 청와대의 소행

이면합의서를 둘러싸고 정부당국에서도 부서간 협조체제가 느슨해졌다는 연막과 함께 논란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농림수산부는 장관과 차관이 모두 수정된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신문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하며, 외무부 소관이라 얘기하고 있고 외무부는 제네바의 협상팀에 전권을 위임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허송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하였지만, 일개 대사의 몫은 아니었다. 정말 허송 제네바 대사의 독단이었다면 행정부내에 이런 일대 혼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공산품 부문에서 불과 6개 품목의 관세수정문제가 책임당국인 대외협력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결정되었을 정도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당국은 어디일까? 주무부서의 장관과 차관도 모르고, 부처간에 책임을 떠넘겨야 하고, 대외협력위를 거치지 않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한술 더 떠 농림수산부의 천중인 농업협력통상관은 '이 서신은 한미간에 이뤄진 비밀합의 사항들을 담은 공식외교문서로서의 양해각서가 아니다'라며 그 근거로 이미 25일 언론에 공개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천중인 통상관은 농림수산부가 왜 비밀문서가 아닌 공식외교문서의 발표를 한겨레 신문의 폭로를 통해서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가트에 제출한 개방계획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천중인 통상관의 주장은 다음의 전제가 성립하면 옳을 수 있다. 한미간에는 「서신」 정도가 아니라 「진짜」비밀합의가 있다면 말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개방이행계획서의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한미합의" "합의내용"을 근거로 개방폭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천중인 통상관이 두 가지 중 어느 주장에 긍정하더라도 그 직을 면하게 될 것이다. 청와



대에 의해.

따라서 결론은 이렇다. “청와대는 원가 새로운 협상성과를 따냄으로써 수세에 몰린 국면을 회복하려 했으나 그동안 꾸준히 재협상과 최종개방이행계획서의 수정제출을 요구해온 애국민주세력과 국민여론이 두려웠고, 몰래 행정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제네바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 재협상을 둘러싼 거짓말 대행진

정부는 쌀과 기초농산물 지키기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와 한총련의 재협상 요구에 대하여 “UR은 12월 15일로 이미 끝났다. 기술적 보완이나 개방확대는 있을 수 있어도 개방의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미-일 재협상 국면이 열리고 미국과 일본의 최종개방이행계획서는 각각 UR협상 당시 합의사항에서 크게 후퇴한 선에서 내용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협정문이 없는 공산품은 가능하나 협정문이 있는 농산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정부 스스로 깨버린 셈이 되었다.

김양배 농림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 민자당 김종필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후퇴한 것은 감자가루 뿐이며 실제로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이다. 김장관의 해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감자가루를 뺀 다른 많은 부분에서 개방축소를 이룬 것이다. 국영무역 97개 품목, 종량세 대상으로 63개 품목, 양허관세로 71개 품목을 반영했다며 자랑하던 김 장관은 “한 자, 한 획도 수정할 수 없다.”던 자신의 주장을 잊어버린 것일까?

모두가 나서서 함께 치뤘던 거짓말 대행진을 잠깐 돌아본다.

#### 김 양배 농림수산부 장관:

(1월 21일, 민주당 이희천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질의에 대한 답변)

“UR 최종협정안은 전체 협상 참가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집약된 최종협상결과다. 각 국이 2월 15일 제출하는 이행계획서는 검증하는 절차만 남아있고 철회 또는 축소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문제제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김 양배 농림수산부 장관:

(2월 14일, 국회 농림수산위)

“2월 15일까지 제출기로 돼있는 이행계획서는 작년 12월 14일에 우리가 양허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것으로 주요한 부분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

#### 민자당 제 166회 임시국회 홍보자료:

(3월 가트 사무총장의 발언인용)

이미 합의된 시장개방내용은 철회 또는 축소가 불가능하고 확대만이 가능하다.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원장(3월 7일, 수정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행계획서 수정은 조건부로 합의했던 일부 공산품에 국한될 뿐 농산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조건부 공산품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농산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공산품 분야의 수정은 가능할 지 몰라도 농산물 분야를 수정하려 하는 태도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김영삼 대통령:**

(3월 11일,이기택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

“UR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일부 인사들과 야당 일각에서 재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1백 20개국에 합의한 다자간 협상인데 어느 한 나라가 재협상하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민운동 탄압**

2월 1일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의 “국회비준거부, 재협상”주장은 어김없이 그 정당성이 증명되었다. 현 정부가 설사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농민의 주장을 겸허하게 검토하고, 농민들의 쟁쟁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한 몫 해야 할 것이며, 한 수 배워준 농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야 옳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이런 상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구속**

윤상영(익산군 농민회원), 강인원(남원군 농민회원), 장덕식(연천군 농민회장),우원택(연천군 면지회장), 강민주(중원군 사무국장), 강국진(아산군 면지회장)

**구류**

김석용(거창)

**불구속입건**

최종진(전농 사무처장), 최진국(전농 기획국장), 황장수(한농련 정책실장), 김인식(농단협 총무) 이광배(중원군 농민회), 홍득희(중원국 농민회), 이상천(중원군 농민회), 서원석(중원군 농민회), 추교성(괴산군)

## 공갈범, 김 영 삼 의 거짓 말 들

1. 오직 우리나라만이 미련하리만큼 홀로 남으면서까지 비정한 각오로 노력했습니다.

김영삼씨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는 미련하리만큼 홀로 남아왔다.

특정품목을 수입제한하면 가트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횡행한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고, 국익을 해치는 내용을 비밀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온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재협상에 나서고 최종개방이행계획서를 수정해 나설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극구 회피, 만류해 나서는 정부를 가진 나라도 우리 뿐이다. 농민시위를 폭력 매도하여 구속사태가 줄을 잇는 나라도 우리 뿐이고, 동족을 모해, 암살하기 위하여 나라의 생명줄을 외세에 갖다 바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도 우리 뿐이다.

2. 쌀을 지키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거부하고 국제적 고아로 혼자 살아갈 것이나, 아니면 GATT 체제를 수용하면서 세계화, 국제화, 미래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역분쟁의 와중에서도 특정품목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트체제를 탈퇴한 사례는 가트 역사상 없으며, 가트에 그러한 규정조차 없다. 따라서 탈퇴를 하려면, 또는 쫓아내려면 만장일치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각 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UR협상의 합의내용을 거부하고 자국의 요구대로 일방적인 최종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탈퇴 압력도 받고 있지 않으며, 농림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단지 미국과의 양자협약과 '다른 나라들에게도 인도네시아가 수입쿼타를 늘리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을 뿐이다.

요즘은 국회비준을 거부하면 가트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새로 발족하는 세계무역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새로운 억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 그대로라면 아마 EC와 미국이 먼저 가트를 탈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47년 의회 비준거부 이후 여지껏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였지만 가트를 주도하여 왔으며, EC의 유럽의회는 이런 권한

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가트와 같은 협약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간 조약체결방식이다. 이 경우 의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된다. 둘째는 당사국의 정부(행정부)간의 조약체결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회비준 절차를 거치며 국내법은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 셋째는 당사국의 각료간의 조약체결방식이다. 이 경우 국내법을 구속할 수 없으며, 국내법이 우선하게 된다. 미국의 가트 결합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다.

김영삼씨가 조금만 더 연구를 했다면 불면의 밤을 지새울 필요없이 재협상이나 차분히 준비, 진행하면 되었을 것이다.

### 3.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고려할 때 UR 타결로 분명히 우리가 잃을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오로지 경제적 효과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들은 그야말로 “계량적 분석”에 불과한 것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평가이다. 이들은 UR타결로 인해 각 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보다 정형화된 규범을 따르게 됨으로써 수출에 용이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C가 EU로 발전하는 등 지역블럭화 현상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으며, 선진 제국은 반덤핑제소법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노동자의 권리’ 운운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해 강화된 무역장벽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취약성 또한 문제가 된다. 시사저널 3.17일자는 “미국경제가 살아나면 서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 부진이 확연히 부각되고 있다.”고 결론맺으며 미국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신발, 의류와 같은 경공업 제품은 가격이 훨씬 싼 중국제품에 밀리고 있으며, 중화학 부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맹국가인 멕시코, 캐나다에게 시장을 뺏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을 것은 무엇인가?

개방론자들이 주로 돈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만큼 이 자리에서의 논의도 여기에 국한하겠다.

먼저 농산물의 무역상에서의 위치를 점검해 보자. 9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적자비중은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 약 51억 달러의 82.8%인 4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잃게 될 쌀의 공익적 가치기능이다. 이미 알려진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논의 천연적인 만능덤 기능

- 홍수조절기능:36억톤(춘천댐총저수량의24배)
- 댐 건설비 15조 5천억원 유지비 12조 6천억원
- 지하수 함량:157.5억톤(전국민 1년간 수돗물 사용량의 2.7배이며 소양댐 저수량의 8.3배)
- 댐건설비로 환산하면 약 65조원)
- 고온 여름철 대기냉방효과: 냉방용 원유 4천 6백만 KL 해당량(약 230억원)
- 논의 환경정화 기능**
- 토양유실 방지기능:토양 1Cm 생성에 200년 소요, 유실에 203년 (약 2천 8백억원)
- 대기정화기능:대지중 이산화탄소 제거 및 산소 방출(5조 2천 8백억원)
- 수질정화기능:논토양과 벼에 의한 수질정화(5조 9천6백억원)
- 논의 농업적 부가가치**
- 유기물 소모 적음, 토양산성화의 완화, 연작장애방지, 자연적인 제조효과
- 비료손실 감소 및 지하수 오염 경감, 천연적인 양분공급(617억원)

그외 국민건강권의 문제, 식량주권의 문제 등으로 인한 잠재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더하여 개방이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개방이 손해가 된다는 주장에 등호를 달아보자.

**4.개방론자는 매국노요, 반대론자는 애국자라는 이분법은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개방과 그에 대한 반대가 정쟁으로 번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 관변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국민이 전체의 64%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두고 김영삼은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을 더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나, 누가 보든지 이문제는 김영삼 자신의 의식만 개혁하면 되는 문제이다.

국론이 지금처럼 분열되고 있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가 지난 11월부터 '일본 쌀개방 오보', '가트 탈퇴냐, 쌀개방이냐' 하는 거짓공세를 앞세우고 국제화,개방화라는 허황된 이데올로기 공세에 집착하기 전에 우리의 국론은 하나였다.

농협 서명운동에 참여한 1300만 국민의 뜻이 있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동안 이미 3차례에 걸쳐 쌀개방반대 결의를 한 바 있다. 심지어 김영삼 자신과 그의 관료들까지 쌀개방반대를 공공연히 천명해 왔었다.

이렇듯 일치단결된 국론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외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거짓과 허황된 꿈으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사이에 대세론과 패배주의가 싹튼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김영삼이 잘못된 개방정책을 되돌려 재협상을 추진하고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면 개방에 찬성한다며 항의할 국민은 없다.

그리고 이 참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개방론자는 매국노이고 반대론자는 애국자라는 사실이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매국노와 애국자의 기준은 민족과 나라의 참된 이익에 부응하는가, 그르치는가에 있다. 지금 개방을 선동하는 자들은 이미 충분히 살펴본 대로 국익을 내팽개치고 외세에 아부, 굴종하는 자들로 결코 애국하는 자로 명명할 수 없으며, 다양성이라는 모호한 가치속에 용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김영삼의 눈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운동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보일 지 모르겠으나 다수의 국민은 이를 제2의 독립운동으로, 이 시대의 참된 애국운동으로 높이 치하하고 있다. 정쟁이라 한다면 어떤 특정한 정파, 집단이 이익을 보려 하는 행동이고 보면, 김영삼은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고 이운동을 탄압하려는 빌미를 찾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운동은 특정한 정파,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벌이는 운동이며, 그 목적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부국과 민족의 융성, 번영을 위한 것이다.

**5. 결코 미봉책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이 피부로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농민 대책을 집행할 것입니다.**

요즘의 농업정책은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미봉책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농민은 절감하고 있다.

최근 소위 농업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농지거래 자유화,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허용, 농촌인구 4%로 축소 등등 그 어느 하나 농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없다. 농업파탄의 공범이자 수입개방의 앞잡이였던 전경련마저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인데 어디 미봉책이라 느낄 수 있겠는가.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어 핵심적인 것 한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다. 그것은 향후 농업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신능정의 틀거리 그대로 소수 전업농을 설정하고 있고 요즘에는 심심찮게 기업농 육성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이들의 기본인식은 영세소농구조로는 경쟁력을 도저히 갖출 수 없으며 이들이야말로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상황, 토지확대의 제한성 등 자연적 조건과 아울러 항상적인 농산물 가격파동 구조속에서 안정적인 이윤확보를 통한 대규모 경영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처지로 볼 때 이는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농업은 암적인 존재'라는 6공 이승윤 전 부총리의 생각처럼 이참에 농업을 없애려는 자들의 음험한 논리가 되고 있다. 또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설원예나 과수에 그쳐 통일농업을 예비해야 할 민족적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화훼농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농업을 식량자급형 농업, 환경보존형 농업, 통일대비형 농업, 소득보장형 농업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애국민주세력의 입장은 지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영세소농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당당한 영농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반 사회문제의 악화, 국민경제적 혼란이라는 공익 측면에서의 심각한 피해 뿐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농업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영세소농의 협업화, 복합화를 실현하고, 면단위 정도의 지역적 건설을 이룸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위에서 말한 4가지 농업지표를 달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 정신대를 생각한다

차 정 미

1

위·안·부  
누가 역사의 수렁 속  
피고름으로 얼룩진 그대들 이름  
잊으랴  
무명의 그대들, 빛도 없이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  
온몸으로 온몸으로 쳐 받았거니  
무시무시한 장굴 속  
진흙 구덩이  
포탄 속을 헤쳐가며  
그대들 때론 탄약 운반원  
그대들 때론 취사 요원  
그대들 때론 부상병 임시 간호원  
되었다 해도 하늘이 두렵구나  
그대들 하룻밤 수십명의 왜놈들  
날카로운 성기의 창끝에 찔려  
아랫도리 피고름으로 아물 날 없고  
결국 성병으로 말라리아로  
나무토막처럼 픽픽 쓰러져 갔다지  
컴컴한 지하 방공호 속에 간혀

누가 그대들 무참히 짓밟았는가  
가슴 속 피맺힌 한을 품고  
누가 그대들 가슴에  
자결의 비수 꽂게 했는가  
그대들의 상처 받은 자궁  
민족의 자궁  
처절한 그대들의 이름  
위·안·부  
우리들의 어머니

2

매춘 관광 꽃바람 타고  
외화획득 경제성장 역군 되어  
식민치하 가난에 몸을 떨던  
위안부의 어린 딸들  
대한의 딸들 자라  
오늘 또 다시 엔화에  
목숨 같은 몸을 파누나  
끝도 없는 역사의 수렁 속

상처와 억압과 수모  
죄악과 죽음 차별과 한만이  
그대들의 이름이라고,  
착취의 그늘  
수치와 고통, 아픔과 눈물만이  
그대들의 숙명이라고,  
전쟁 보급품  
정액반이 일회용 소모용품  
그대들의 표상이라고  
누가, 누가 말하는가  
우리들의 어머니  
위·안·부  
짓밟힌 민족의 어머니시여



# 페미니즘



수세기 동안 남자들의  
고마우신 지도와 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룩된 인류의 진보가  
위협당하고 있다.

무책임한 외국의 사기꾼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외래사상을  
덜렁하고 세뇌되기 쉬운 여자들  
머리에 뿌려 놓았다.



여자와 동물에 대한 남자의  
지배가 끝나려 하고 있다.  
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  
을 다잡으려면 모든 남자는 단결  
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의 그리스도교 문명이 위태  
롭다.

만국의 남자들이여,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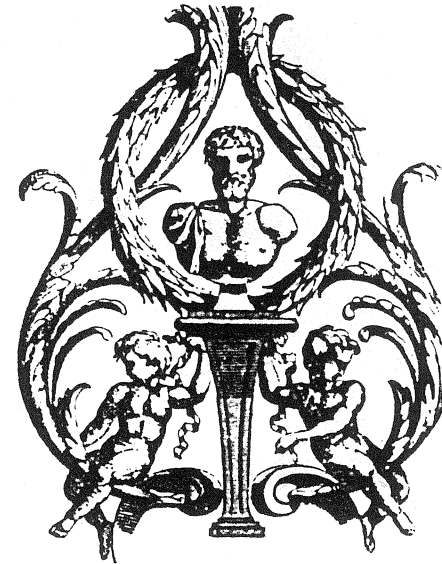
이 상황은,  
'여성해방'이라는 등 큰소리  
로 의쳐대는, 명색만 사람  
이고 도리를 모르는 무책  
임한 여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신의 가르침을 모독하는  
것이다.

남자를  
사랑하고  
섬길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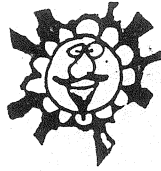
이봐  
다시한번  
더.



**남자를 사랑하고 섬길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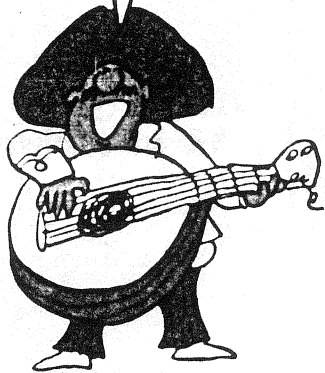


아래와 같은 여자에게의 가르침은 남자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그러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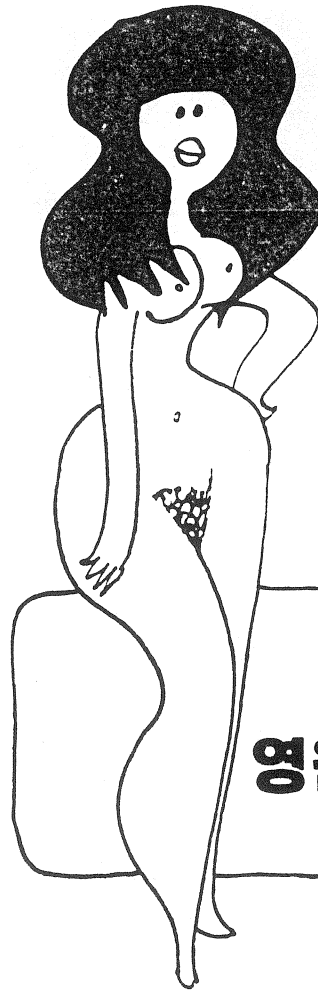


♪  
 좋구나 좋아 어디선가  
 어떤분의 말처럼 ♪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

↑  
 여백군의 제2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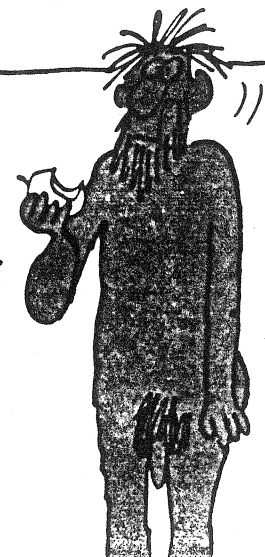
어디선가  
 어떤분이  
 아날세!  
 성경이라네!



날거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에서의 문제를  
 봅시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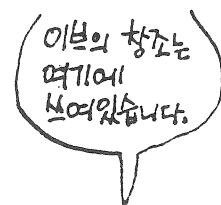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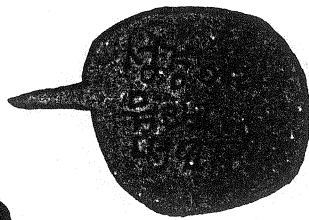
**이브는 아담의 영원한 '다음' 이었는가 ?**

이브마님  
 이전에  
 다른여자가  
 있었나 ?



**요컨대 여성들은 왜 이제와서 신의 가르침이며 오랜 전통인 것에 대해 반항하는가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여성이 항상 남성의 노예였으며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 창세의 해설

#### 창세기 1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구약의 해설

#### 창세기 1

26.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의 모든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기로

27.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28.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시되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히 땅을 정복하여라...

**틀려!**

이브는 좀더 뒤에 만들어졌지!



그럼 그여자가 이브였던가?

등장했던 대와 마찬가지로 수수개씩 천년 사라져 버렸군!



응. 앞의 여자는 어떻게 되어버렸지?



### 창세기 2

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어라? 두 사람이 아니었던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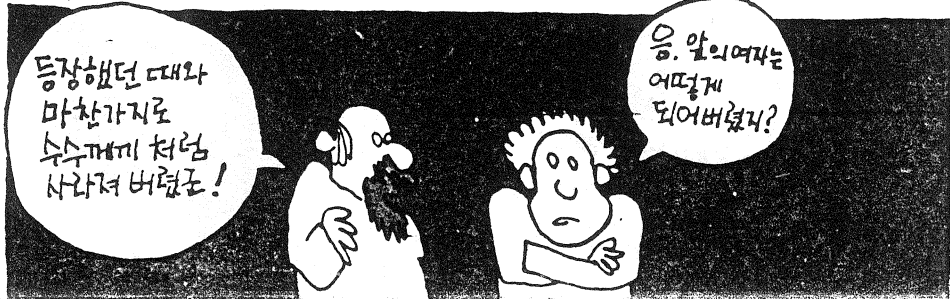
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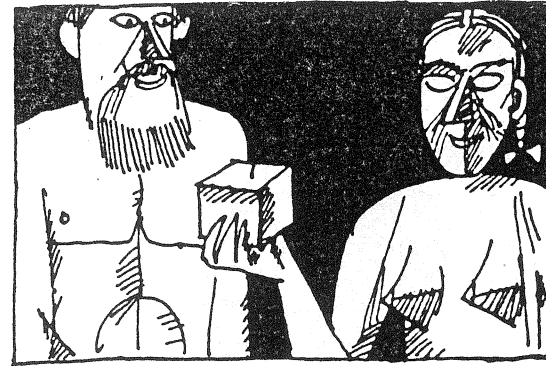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보다 먼저 살았다면 불가해한 모순이 되는데, 이 여성은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인 이브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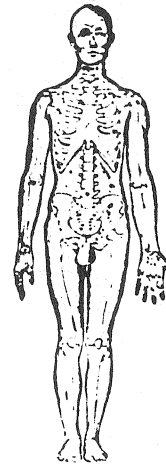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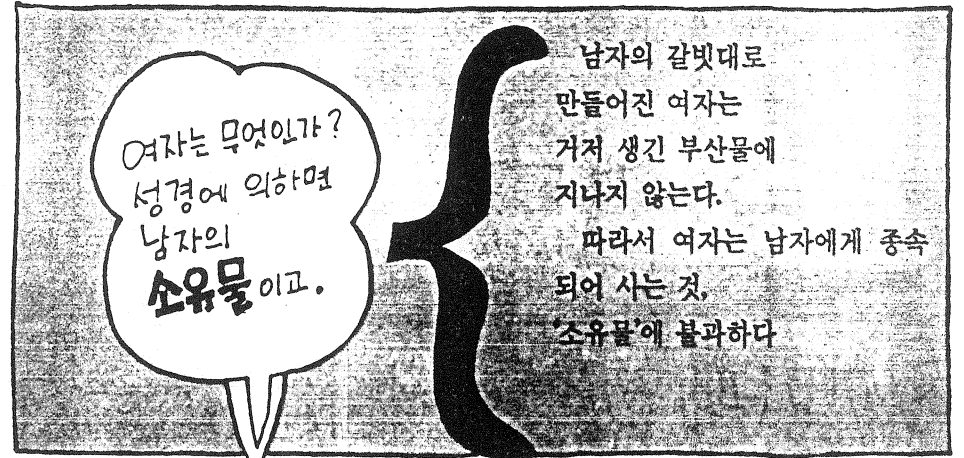


「창세기」에는 이브의  
탄생에 대한 어떠한 서술도  
보이지 않는다.

성서로는 앞뒤가 맞는 설명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녀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성서는 신의 목소리.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신성한' 책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았다.



주인인  
남자에게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므로  
거역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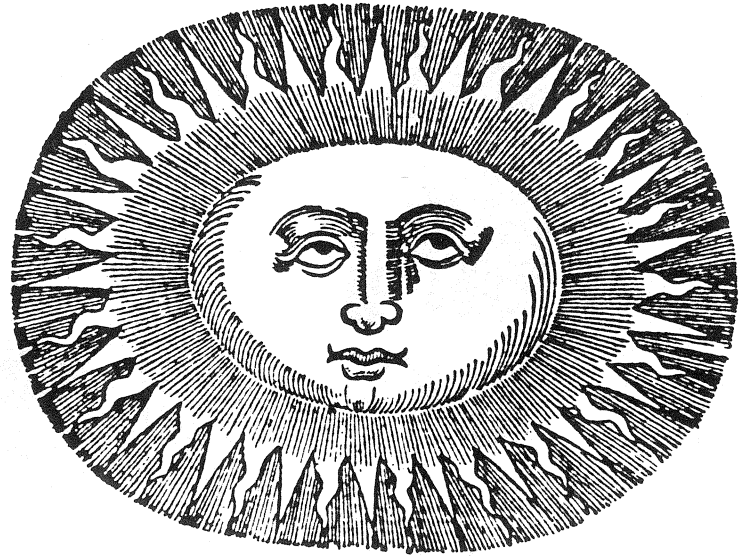
# 왜그런가?



답은 간단하다. 성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성신'들은 모두 남자에 의해 쓰여졌고, 여자가 쓴 것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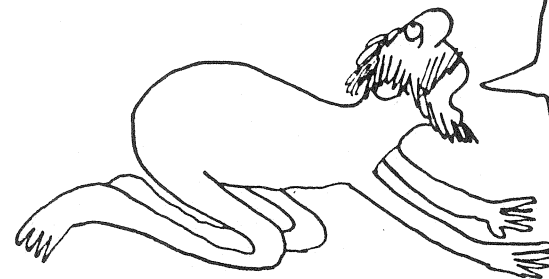


여성의 종교  
어쩌면  
하나도 없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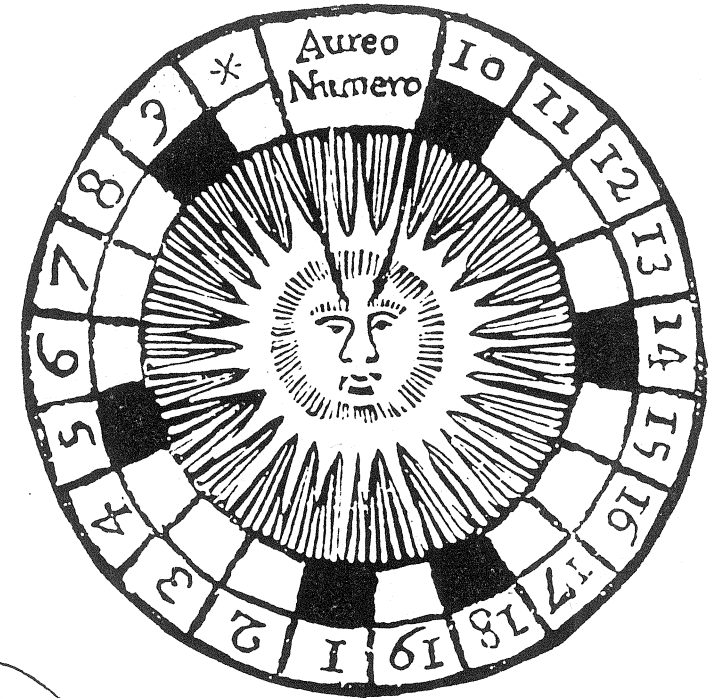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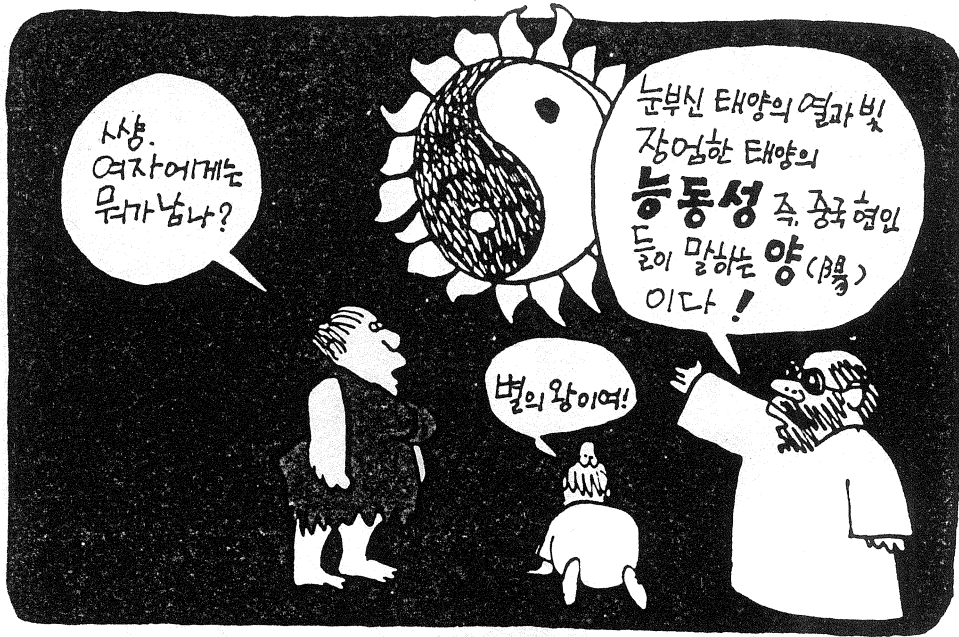


남자가 처음 만든 신은 태양이다. 남성적 존재 — 힘, 생명, 에너르기, 열...

“빛이거라” 신이 말하였다. 그리하여 남자의 입장에 잘 맞는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이다.



헤리우스.  
제우스. 디오스.  
야베. 주피터.  
아도니스.  
아베리우스.  
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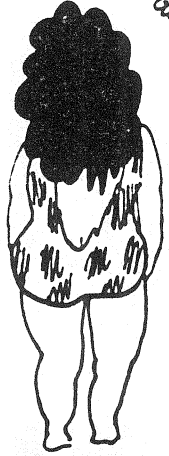
달-이두음, 차갑고 축축한 기운, 수동성.  
 수 음(陰), 29일내지 30일의 여성 주기, 로멘틱, 은은한 빛,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달은 암컷 같은 것이다.



세계는 남자의 것!



여자의 자리는  
아궁이  
앞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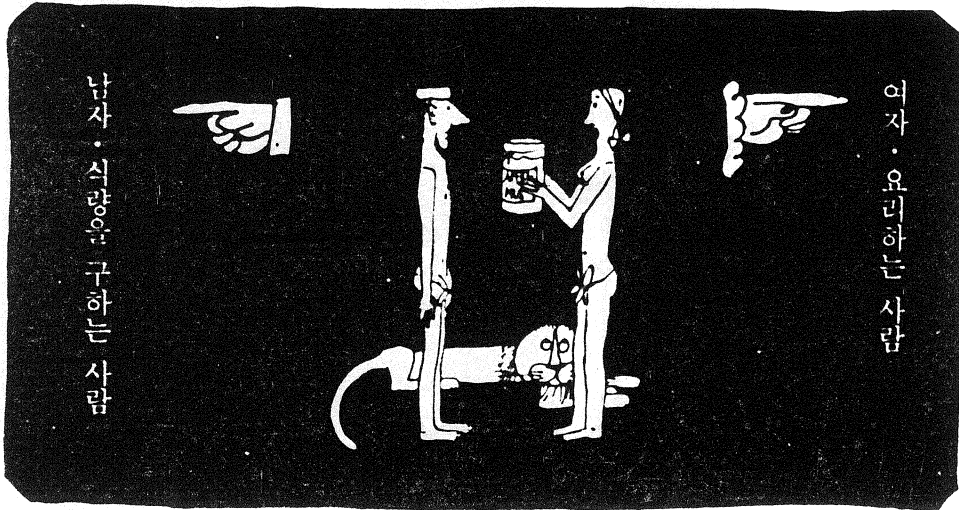
밥  
뜨개고.  
애키우고.  
밥준비.

(그리고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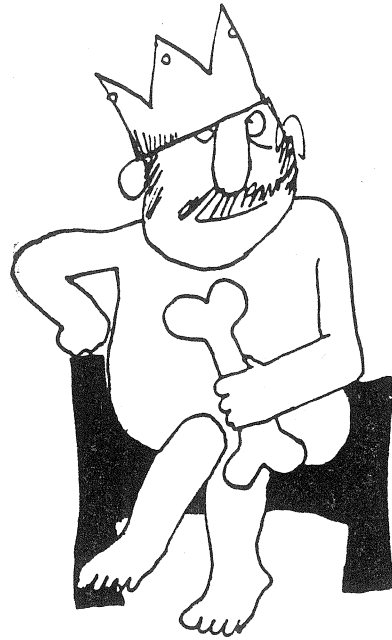
여기  
나야.  
남편은  
큰끼리 사냥  
중이거든!

그러면 여자가 임신했을 때,  
누가 자식을 돌보아 주었는가?  
육아와 바느질은 누가 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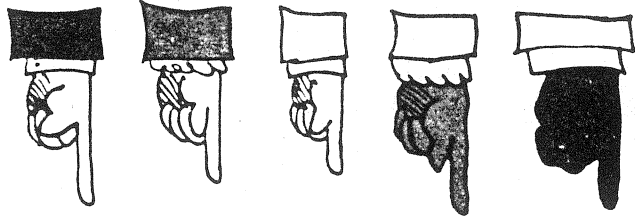
남자 · 식량을 구하는 사람

여자 · 요리하는 사람



처음부터 남자는 자신의 신체적인 우위에 입각하여  
경기의 규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자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남자를 임신시킬 수는 없다.





여자는 성의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여자는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여자는 아공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여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기르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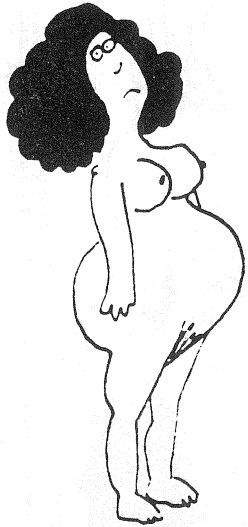
여자는 임신한다

이 생물사적 조건에서 모든 것이 파생하였다.



남자가 만든 종교는 모성을 '신성'시 하였다. 그 이후로 여자는 성스러운 어머니가 되었다. 참으로, 모성이 어머니들의 특권으로 되어버렸다!





임신한 여자는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녀는 이중으로 가정에 묶여  
있었다.

반대로 남자는 '꼭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누구와의 잠자리도  
가능했다.

이것이 경기의 규칙.



고대 그리스를 보라.  
인류가 문명화되어 사물의  
형식이 정비되었을 때  
이미 사태는 여자에게 불리했다.

- ★ 남자는 언제라도 가  
정을 버릴 수 있다.
- ★ 남자는 언제라도 집  
을 나와 다른 여자에게  
달려갈 수 있다.
- ★ 남자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도 좋다.  
(힘껏 외쳐라, 이 성  
의 불평등이야!)



김은 신이나  
김은 신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지이다.

결혼은  
여자를  
하녀로  
만들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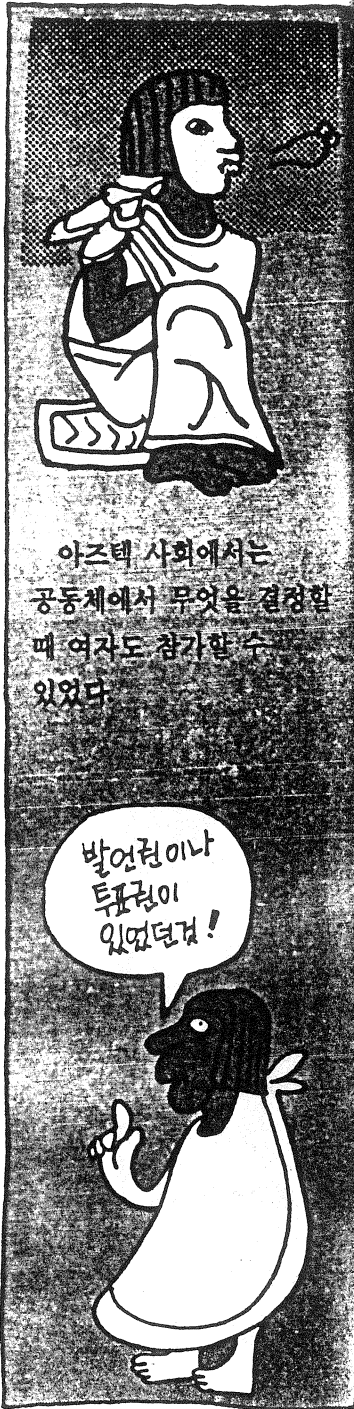
여자는  
자식을  
남고  
가정을  
지킨다.

남자는  
여사 노예를  
사서  
그녀와  
자도 좋아.

여자는  
집을  
나가면  
안돼.



그런데,  
스페인사람들이 타락한 그리스도교와 함께 남자의 뜻대로 되게 만든 여자들을 데려 왔다.  
그리하여 그들을 본보기로 세계에 유명한 멕시코 늑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즈텍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여자도 참가할 수  
있었다

어이,  
돌아왔어!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있었던걸!

어머나  
고마워요  
당신

이때부터  
인디오 여자들은 발언권도  
투표권도 빼앗기고 천시되어  
주인마님(스페인 여성이나 그  
곳에서 태어난 스페인계 여  
성)의 하녀로 길들여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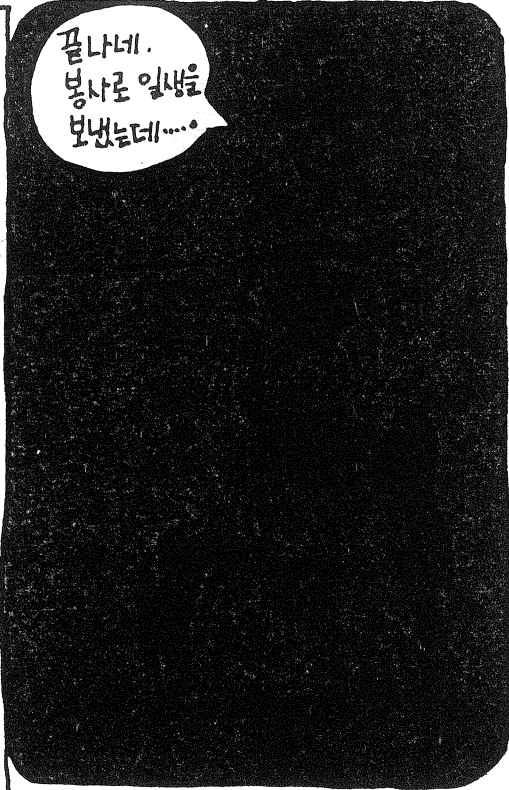


가정에서  
짐은 왕이다  
밖에서는...  
우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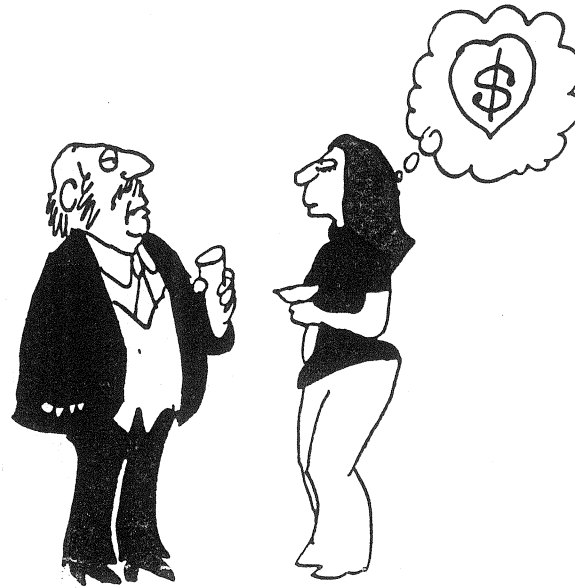
스페인은 그리스, 로마, 아랍의 전통  
을 이어받아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입한다.  
거기서도 여자는 '침실과 요리' 이상으  
로 여겨지지 않았다.



아즈텍의  
야만인놈!  
남녀평등  
이라구!



이리하여 모든 가정에 붙어 있는 2명의 남자가 등장한다.





창부는 한번 잠깐  
동안에 돈을 벌 수  
있지만 아내는  
일생 무료봉사.

이른바 편의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문자 그대로 여자를  
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섹스로  
대우는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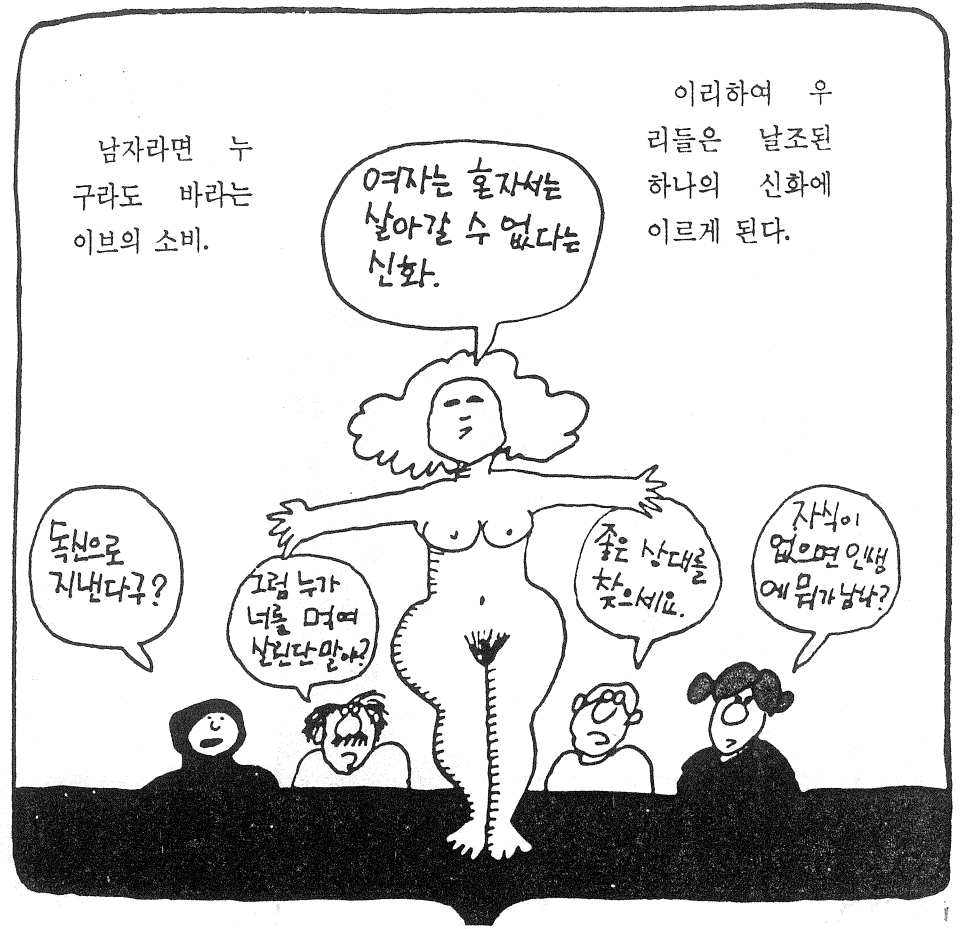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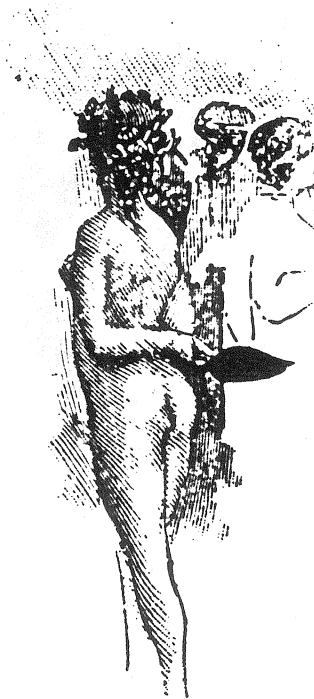
결국  
부자는 돈으로  
결혼하고....



그러나 섹스를 무기로 사용  
하는 것은 실패했다. 매춘에  
의 길이 열린 것이다.



공공연한 매춘  
(즉, 결혼)



남자라면 누  
구라도 바라는  
이브의 소비.

여자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화.

이리하여 우  
리들은 날조된  
하나의 신화에  
이르게 된다.

독신으로  
지낸다구?

그럼 누가  
너를 먹여  
살린단 말야?

좋은 상대를  
찾으세요.

자식이  
없으면 인생  
에 뭐가 남나?



내 말이  
그 말이야.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 구조적으로  
결혼에의 압력을 받는다.

그 결과, 여자는 영원히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남자  
에게 사용당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이제 지겨워 집을 나오고 싶어 한다. 처녀의 생각으로는 소름이 끼친다. 별의별 이유로 철부지 취급이다. 여자는 '연애'를 통하여 남자의 손으로 넘어간다.

가장 나쁜 보호인 남편의 보호 밑으로 .....

현대 여성은 일반적으로 결혼하면서 두 가지의 것을 지참한다. 섹스와 가사노동력이 그것이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것을 지참한다. 섹스와 돈.



돈 버는 사람이 지배한다. 따라서 여자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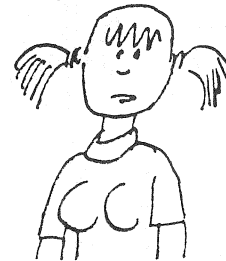
남자는 밖에서 돈벌어 오지.

여자는 집에서 열심히 일해도 수입은 아어.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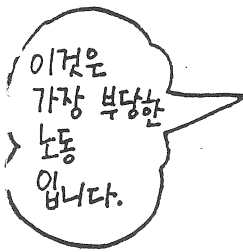
이브의 일거리-남편 치다꺼리, 육아, 요리, 청소, 교육, 건강관리, 입는 것에 대한 신경, 장보기, 남편과의 대화를 위한 공부.

이것은 가정부가 없는 경우.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의 고용인이 되는 것이다. 알뜰한 말로 '여왕님'이라는 듯 하더라도, 가정에 감금되어 남자보다 훨씬 힘든 노동을 강요 당한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 가사노동은 소득을 낳지 않는다.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다. 이윤을 가져오지 않는다. 보수가 없다.



여자가 여자를  
착취 하느것도  
잊지 말자!



가사노동은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  
다. 그것이 남자가  
여자를 일등하게 보  
는 가장 큰 이유다.

집으로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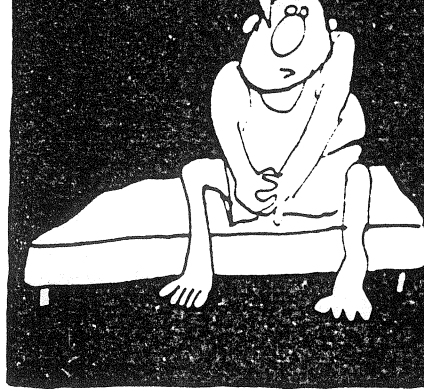


물론  
당신 이요.



남자의 노동은 가  
치를 생산하지만,  
가사노동은 남자의  
노동량보다 많아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완전히  
내 얼굴은 전부  
마누라가  
쓰지.



하지만  
돈을  
쓰는 경우엔  
어떻지?



여자만이 꼭 돈을 쓴다  
고는 할 수 없다.  
지갑을 쥐고 처에게 찢끔  
찢끔 돈을 주는 남자도 많  
이 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돈을  
관리 하는건  
여자야!



한푼도 없는  
초과노동에다가  
가게에서는  
주변일 뿐이잖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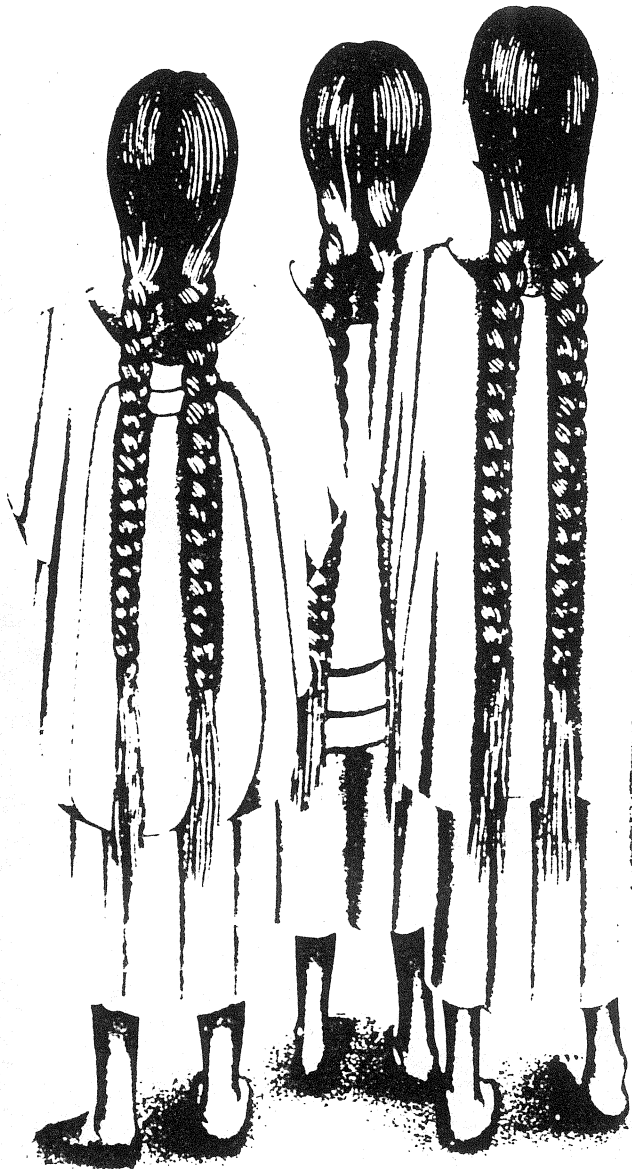


이름.  
그럼  
농촌 여성을  
보자!



라틴아메리카의  
중년 여성은  
세 가지의 일을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3대  
책임감이야.



우선  
농촌 여성은  
밭에서 남자와 거의  
같은 일을 한다.

집에 돌아오  
면 식사 준비와  
설거지, 세탁,  
청소, 이것저것  
전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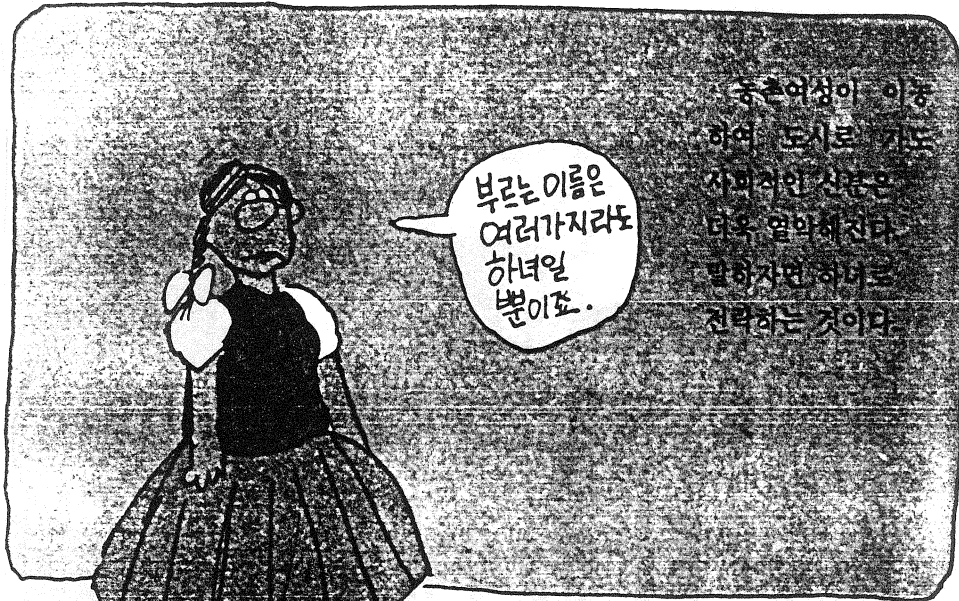
그리고  
마구  
아이들을  
갖는다.



거기서는 제3세계  
도시의 여성들이  
추구하는 보다  
쾌적한 생활 따위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희당하는  
농촌 여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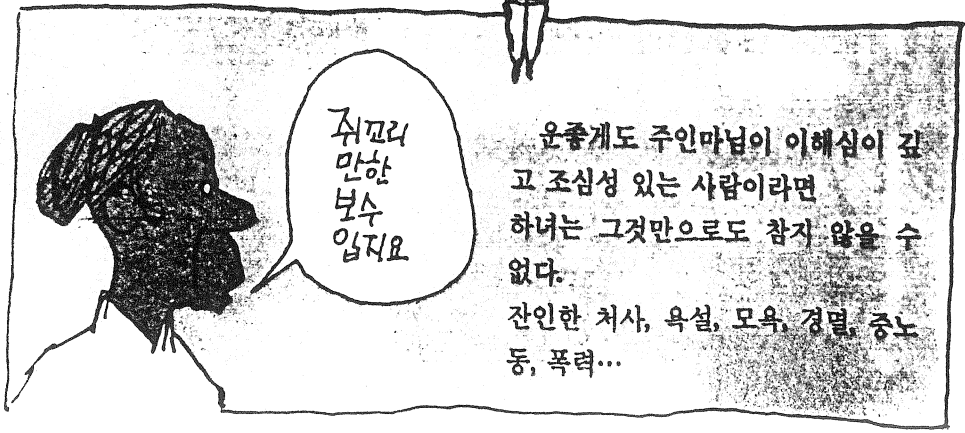


부라는 이름은  
여러가지라도  
하녀일  
뿐이죠.

중혼여성이 이젠  
하여 도시로 가도  
사회적인 신분은  
더욱 엄격해진다  
말하자면 하녀도  
선박하는 것이다.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여자노예.  
형편없는 임금으로  
착취당하고, 흑사당하며  
멸시당하고 무시당한다.

어찌어찌  
임신하게  
되였어도 상대는  
하나님에게나  
맡어봐요.



쪼끄러  
만한  
보수  
입지요

운 좋게도 주인마님이 이해심이 깊  
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하녀는 그것만으로도 참지 않을 수  
없다.  
잔인한 처사, 욕설, 모욕, 경멸, 증노  
동, 폭력...



이런  
분업때문에  
못살겠어.....

별수없지 뭐.  
당신은  
그런 사람인데.

사람의 본성이  
변할리  
있나!



남자와 여자는  
저마다의  
생물적 특징이  
있단 말이야!



신은 여성을 가사노동에  
적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와  
같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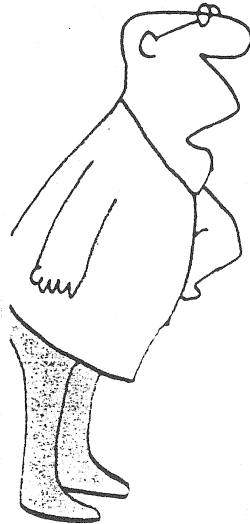
그래요  
그들은 아이를  
낳거나 남편을  
즐겁게 하는걸  
좋아해!

(세상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라는 것은  
— 못생기고  
강하고 지배적이고  
속이 깊고 선악하  
고, 너그럽고 용감  
하고, 두뇌량이 많  
고, 불성실하고, 논  
리적이고, 냉정하고,  
완고하고, 행동적이  
고 여러 명의 여자  
를 기질 수 있다.



한편, 여자는  
— 귀엽고, 약하  
고, 순종적이고, 속  
이 비고, 압전하고,  
샘이 많고, 인정이  
많고, 소심하고, 충  
실하고, 직관적이고,  
감상적이고, 온화하  
고, 수동적이고,  
한 남자의 것...



어디서  
그런 바보같은  
생각을?.....

누구라도 알고 있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적이고, 온화하고, 귀엽고,  
쉽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힘이 약하며  
소심하고 요염한게 아닌가.....

남자의 것을  
여자에게  
보여  
말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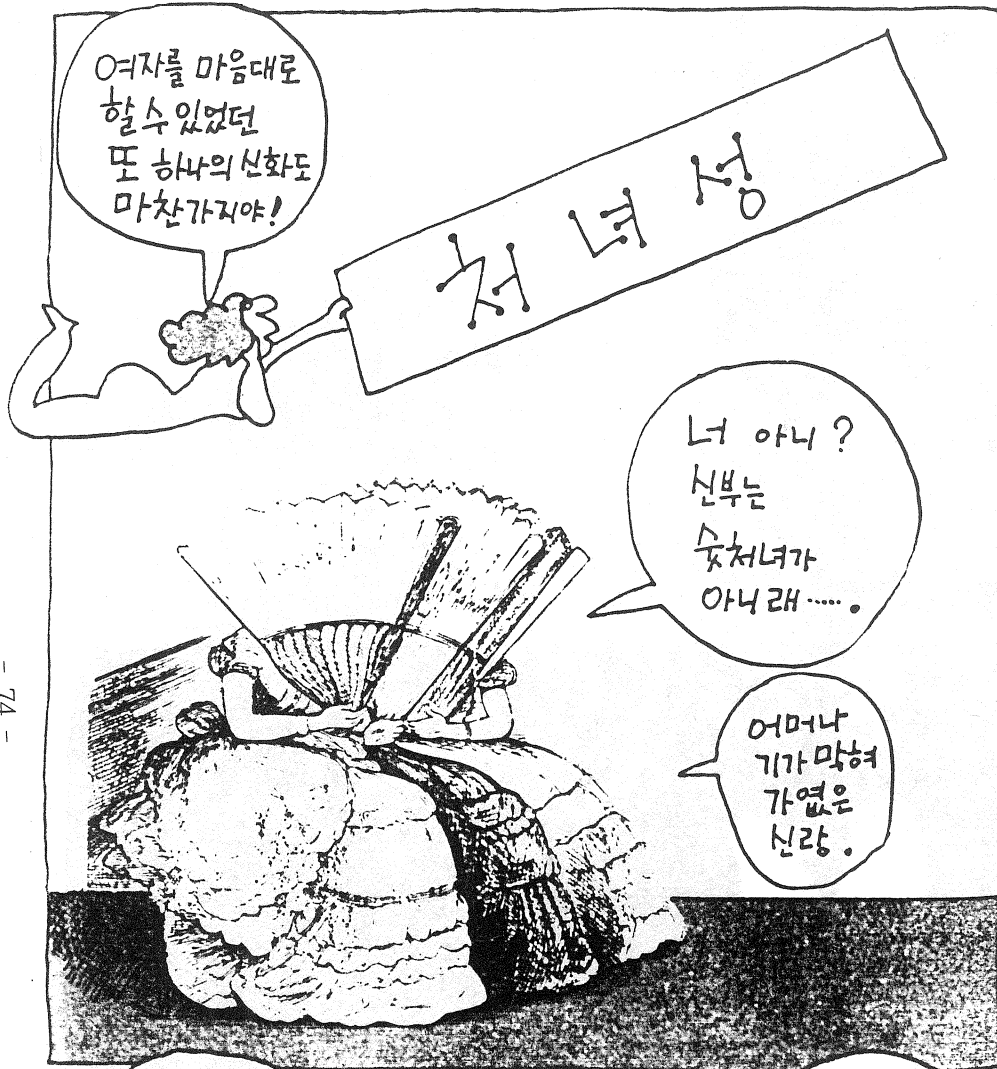


음, 난  
그런여자의  
남편이야



약하다고  
?!!  
내마누라?  
@\*#!

사실, 신사이거나 숙녀이거나 로타리클럽의  
회원이거나 우리들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러저러한 것이 남자라거나 혹은 여자라는  
식의 여러가지 유형을 갖다 붙이는 것은 결국  
**신화**에 불과하다.



어차피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 처녀성을 지켜야 탈리지 않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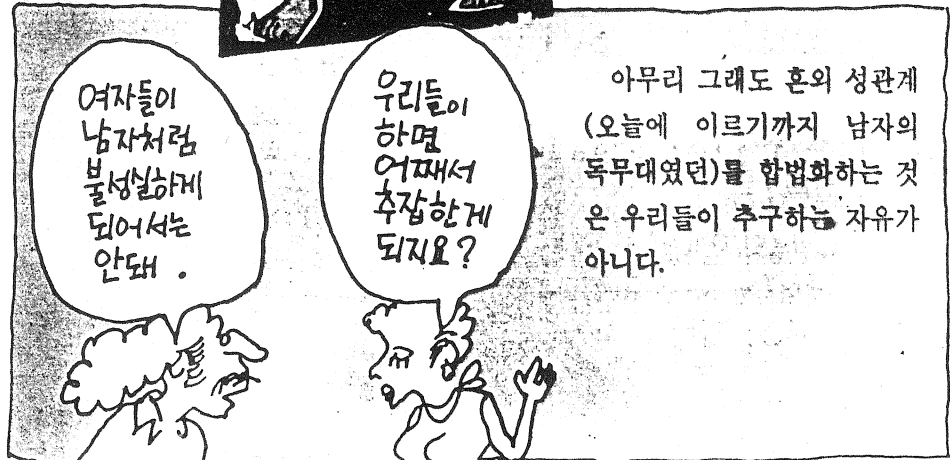


왜. 남자는 동정이지 않아도돼?

그래도 처녀가 아닌게 좋아요



남자의 혼전 여성관계는 자랑처럼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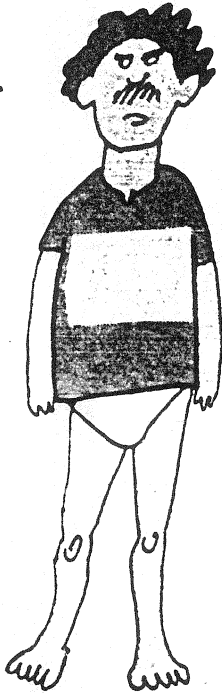


여자들이 남자처럼 불성실하게 되어서는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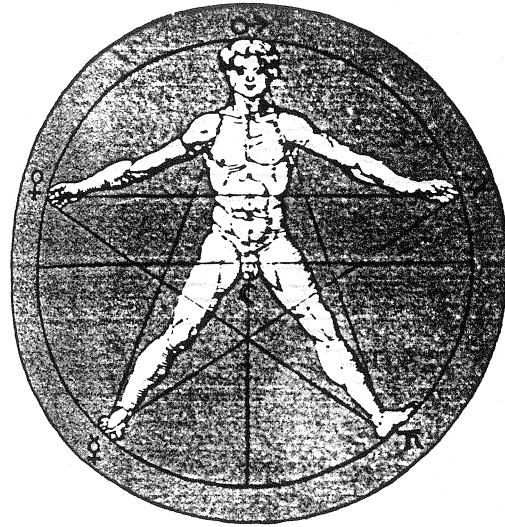
우리들이 하면 어쩌서 추잡한게 되지요?

아무리 그래도 혼의 성관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자의 독무대였던)를 합법화하는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지배자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야



이 신화는 여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남자들이 만든 것이다. 처녀성, 또한 봉건제 최고의 표현!



결국 뭐야 남자와 여자는 같은 말이야?

생리적으로는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이없지 않은가!) 그러나 남자들이 '여성'의 생물적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관습, 전통, 남녀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신화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자는 밤이 깊어  
남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종교, 신화)는  
일련의 신화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신화  
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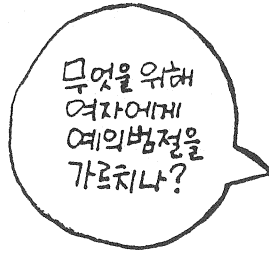
"여자다움"  
"남자의 절대적인우위"  
"필요한 예속"  
"여성의 약함"  
"남성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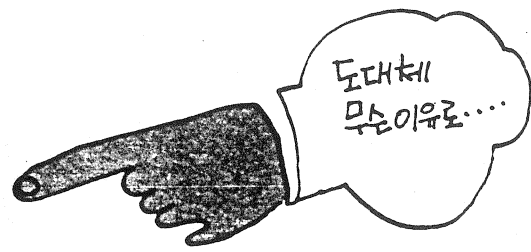
어쨌든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죠



그것은 아름답기 위해,  
남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요염하고 화려하여  
눈에 들기 위해, 시집가서  
잘살기 위해, 수다떠는걸  
좋아하고 비굴해지기 위  
해, 쓸만한 가치가 있기 위  
해, 화장에 뛰어나기 위해,  
그리하여 돈벌레가 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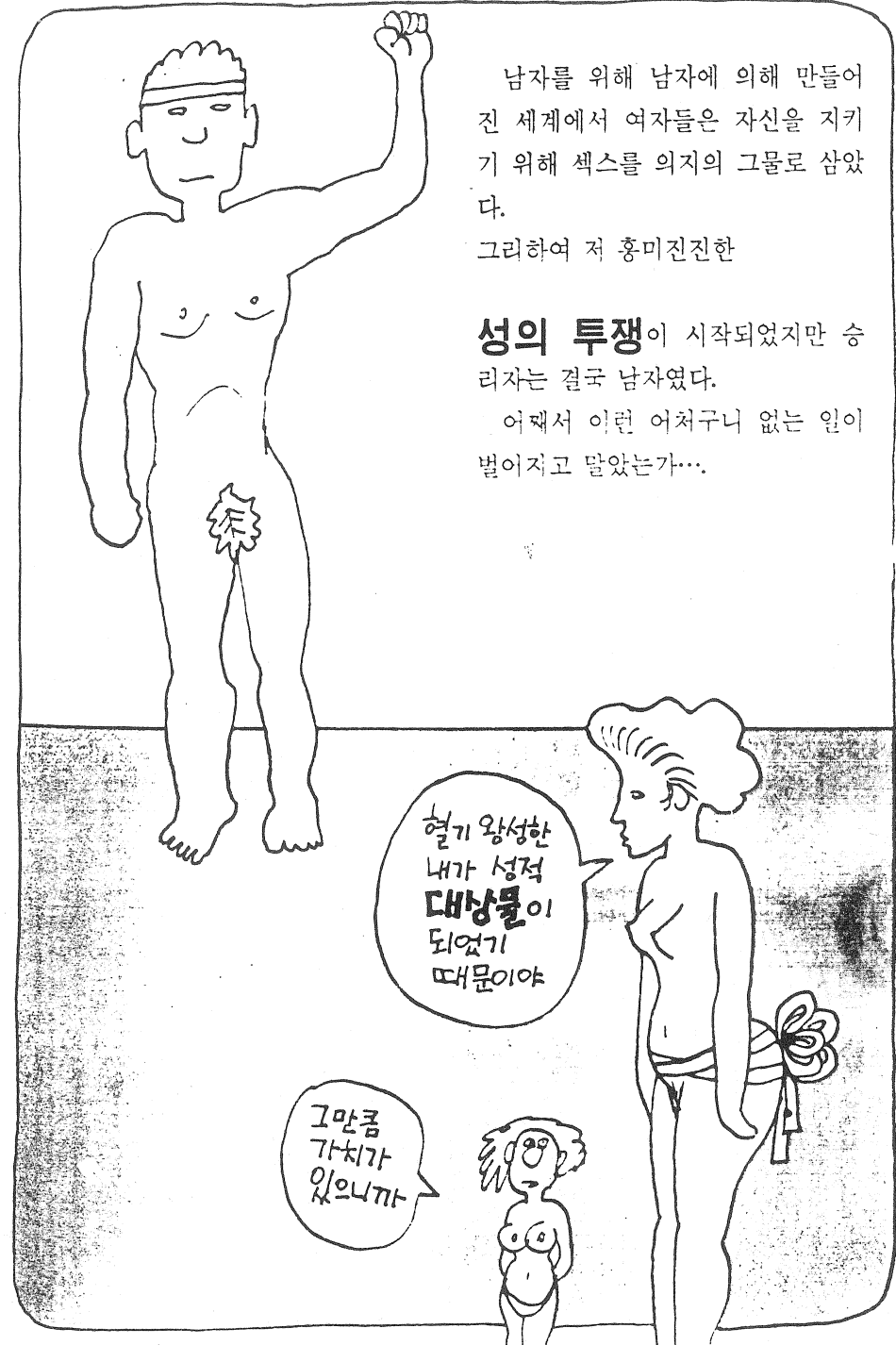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의존 하도록 가르침 받아 왔다 (이러니들이 더욱 이성이 온전해진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 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대부분 이성이)



더욱 나쁜 경우

어머니들은 이가 써 몰래 이렇게 말한다  
"내버려 두면 허사야 자네가 사내대장부임을 알게 해서 보내게"



남자를 위해 남자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여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섹스를 의지의 그물로 삼았다.  
그리하여 저 흥미진진한

**성의 투쟁**이 시작되었지만 승리는 결국 남자였다.

어쨌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남자가 추구하는 쾌락을 이용하면 여자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아내가 될 것인가, 애인이 될 것인가, 약간 바람기 있는 상대가 될 것인가.



마리린먼로 전설이 있잖습니까!



이 경우, 여자는 도구이고 도저히 섹스 심볼 따위로는 될 수 없다.

보통 수준의 여자는 침대용이나, 노동력으로 이용당하는 중류 계급의 부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노동력과 육체는 남자의 소유물로 된다. 특히 졸부(부호)는 여자를 세련되게 하여 침대에서 사용, 이용하기 위해 허세를 부린다.

나의 여신 나의 보물이여!



그리고 보통 수준 이하의 여자 (우연하게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지만)는 운명대로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한 평생 **쾌락**이라는 것과는 인연이 멀다.  
(이 경우가 제일 많다...)



섹스를 무기로 삼은 것은 결과적으로 여자에게 역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그것밖에 무기가 없을 경우 비참했다.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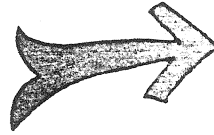
왜냐하면 전통적인 남성우위사회에서 여성은 사용물로서 침실과 부엌에서 최대한 활용되기 위한 교육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그래도 남자가 쓰는 물건인 것에는 변함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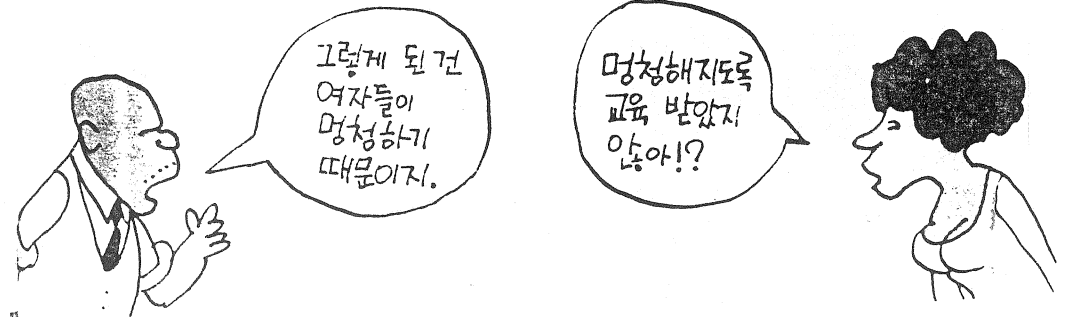
몸을 즐겁게 하면 되는거야.



여자는 아득한 옛날부터 교육에 있어서도 부차적인 위치로 내몰렸다.



여자들은 언제나 '일면적인' 교육만을 받을 수 있었다. 책을 좋아해도 하찮은 것들만 허락되었다. 남자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피니오 피데노 에스피노사는 아내인 안나 마리아 레센데스를 때리고 발로 찬 끝에 집안에서 질질 끌고다니다 밖으로 나와 성난 소리로 쫓아다녔다.

안나 마리아 레센데스 라미레스(27세)는 피라데헤크시 세레타 41번지에 산다. 호적에 따르면 1968년에 이피니오와 결혼, 세 자녀가 있다. 이야기에 의하면 안나는 피우데헨크 사회 보장청병원의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를 못마땅히 여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월요일 오후 출석하여 밤 8시경 피가하였다고 한다. 이때 이피니오는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그녀를 때리고 집안에서 끌고 다녔다. 그 때문에 안나는 이따루코구 코레피도라가 1번지에 있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자가 배우는 것을 당연히 억압하였다.



공부하려면 시집은 뭐하러 가요?



결혼한 여자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질투하고 아내가 '각성'한 것은 아닌기 하고 흠칫흠칫한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지 알텐데... 가난하면 먹을 과자가 어디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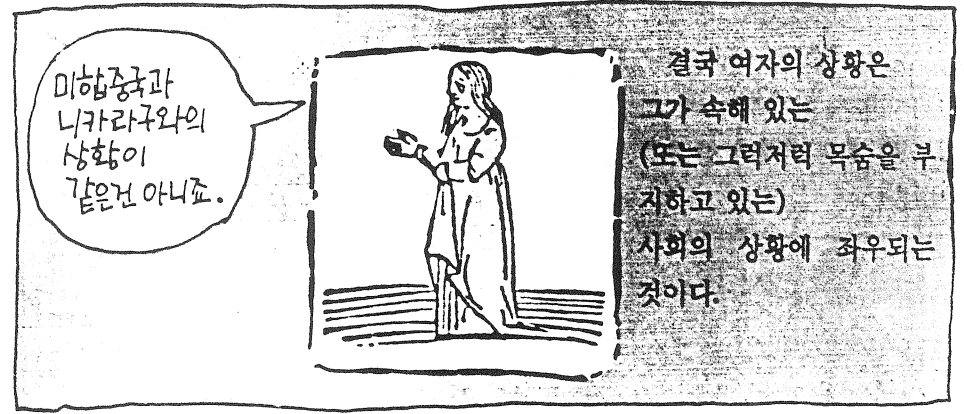
우리들은 되고 싶어서 바보가 되었던 것이 아니다.

여자들은 평소에 교육이나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법률과 문화에 관계할 수 없었다.

지배하는 사람,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항상 남자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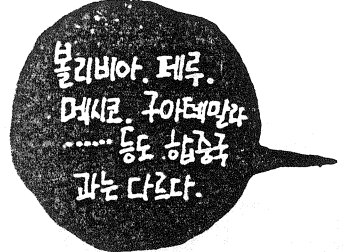
즉, 그들은 과자를 함께 나눌 때 언제나 달고 바삭바삭한 맛있는 것만 가져버리는 사람이었다.





미합중국과  
니카라과와의  
상황이  
같은건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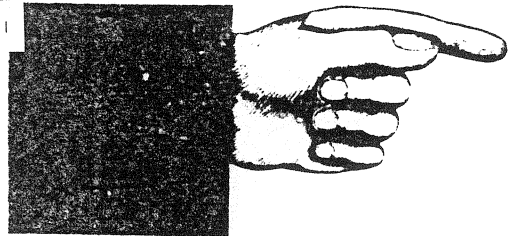
결국 여자의 상황은  
그가 속해 있는  
(또는 그러저러 목숨을 부  
지하고 있는)  
사회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다.



볼리비아, 페루,  
멕시코, 구아테말라  
..... 등도 합중국  
과는 다르다.



아메리카합중국 여성들  
은 제3세계 여성들 덕분에  
운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내  
한 억압은 다른 사람들의  
해방에 유용하기 때문이  
다.(혹시 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아도 우리는  
결국 경제라는 문제에 당도하게 된다.  
그것은 여자가 우주인도, 지옥에서 온 마녀  
도 아니고 사회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  
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디자인 여자  
중상류의 여자  
중하류의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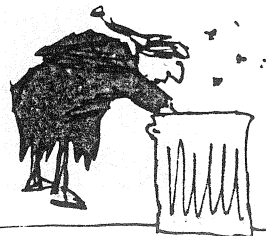
그리고  
항상  
가난한  
여자...

그리고 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치장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돈 많은 여자의 문제도 다르다.



여러분. 더이상 제가  
입을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뱃속  
을 채울 수 있을 것  
인가?  
필사적으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여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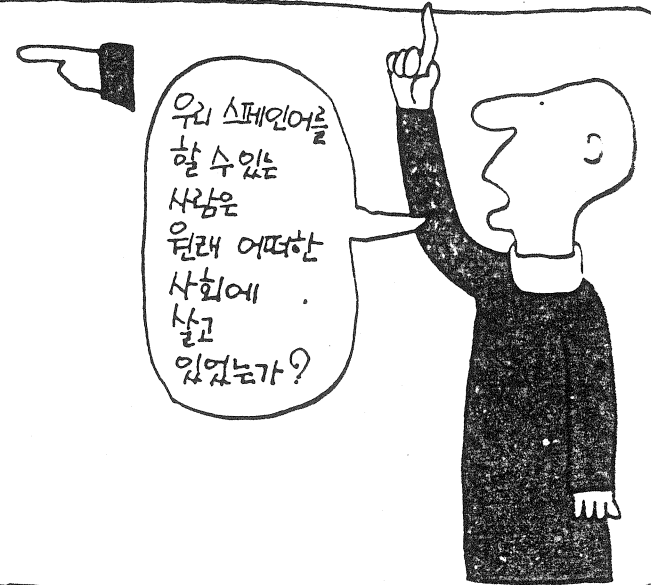
좀 정리  
해보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  
해 볼까요?



이미 해방된  
쿠바를 예외로  
하면 우리들은  
자본주의의 법  
칙,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  
취를 토대로 하  
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었는가?



저런  
남자들만의  
착취와는?

물론 다르지요, 부인!  
자본주의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  
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착취하  
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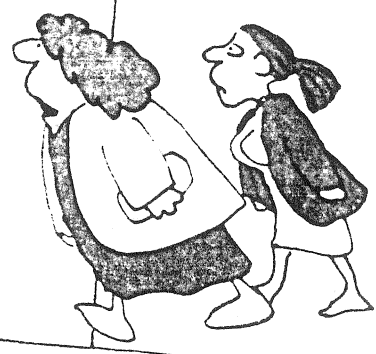
가난한 사람  
(남자)에 대한  
부자(남자)의  
착취.



예전에는 남자만이  
가족의 경제적 지주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나게 되어 여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자. 딸아  
너는 지배인이고  
나는 부지배인이야

산업혁명으로  
여자도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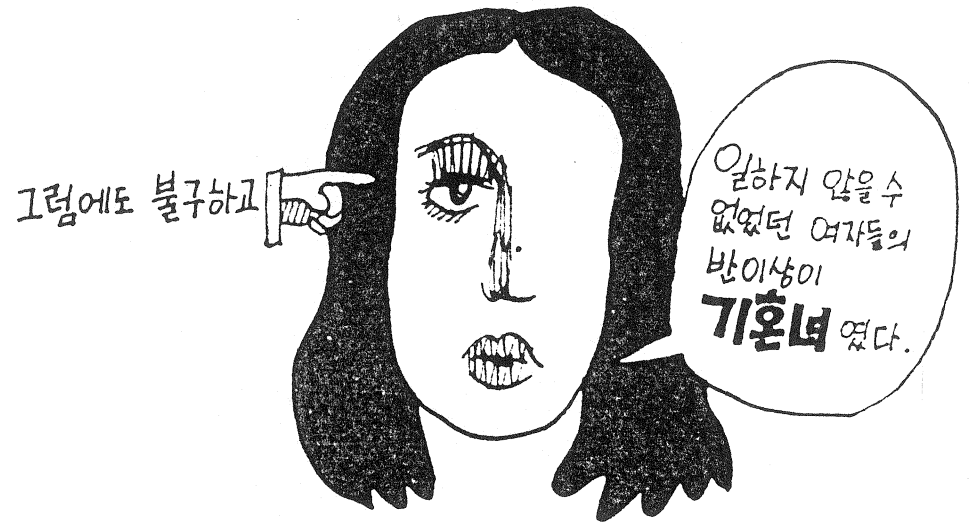


여자는 온전한 직업에 취업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은 임금과 형편없는  
일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급사. 양로원이나  
형무소의 잡역부.  
요리사. 정원  
가정부들.....

일용노동자. 파출부  
종업원. 미싱사.  
사무실의 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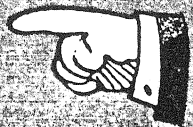
어떠한 자식도 필요없는 중노동을 남자와 똑같이 해치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임금은 남자보다 훨씬 나쁘다.  
남자의 임금조차 낮다고 하는 판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여자들의  
반이상이  
**기혼녀**였다.

그녀의 가정은 당연히  
위태롭게 된다.  
자식들의 가정교육에도 무  
책임하게 되고 게다가 남  
편은 침대에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사금...



어이  
저녁밥  
아직이야?  
그리고  
셔츠는!!  
이 멍청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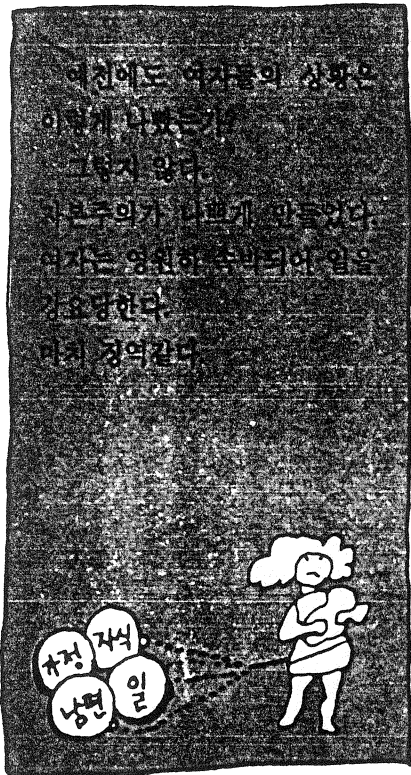
여자는  
한층 고된 세 가지 일을 해치워야 한다.  
그중 가장 고된 것은,



가사노동  
어머니로서의  
일.

그것도 거의가 자식  
이 달려 있다.  
이런 가정은 대체로  
어떻게 되어 버릴까?

붕괴하거나  
거의 파탄



자정 자식  
남편 아들

그리고  
덧없이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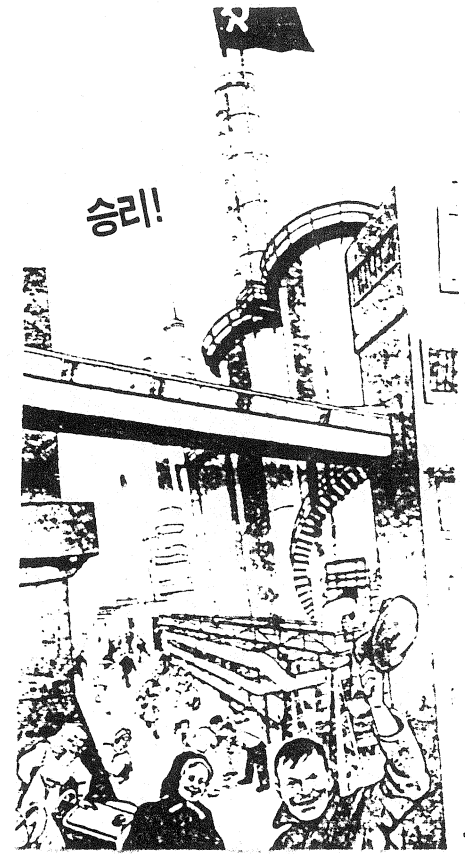
이전에는  
남자에게 지금은  
남자와 처제에게  
착취 대상은  
신세 .....

만약 남자가 자본주  
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면(물론 그렇지만)  
여자는 - 소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착취당하  
는 사람 중 가장 착취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반역은 당연했다.



1917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법률로 선포하였다. 이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였던 것이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모든 문명제국에서 여성의 상황은 가정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리는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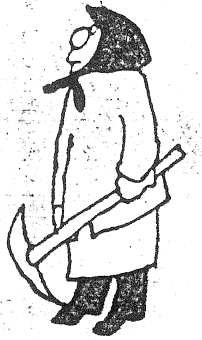
소비에트 공화국의 임무는 무엇보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는데 있다. 소비에트 권력은 이혼재판을 완전히 폐지시켰다. 부르조아 사회에 있어서 이 재판은 치욕, 억압 그리고 비굴의 원천인 것이다.

소비에트공화국에서는 여성을 종속상태에 놓여 있게 하는 법률을 강화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여성에서 불리한 상황을 특별하게 만드는 법률이다. 그것은 여성이 불평등한 권리의 희생자였고 대개의 경우 모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즉 이혼법, 친자법, 그리고 부친에게 자식의 양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어떠한 과장도 없이 말할 수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여성은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모욕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레닌은 이어 말한다.

“여성은 가사를 떠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껏 구속당하며 살고 있다.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또한 여성과 남성에게 유효한 평등성을 위해 집단적 경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은 공동적인 생산노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야말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이나 노동량, 시간, 그리고 노동 조건에 있어서 여성을 남성과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와 다른 경제조건에 의해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ДОЖДИК ДОЖДЬ ВПУСТЮ ЛЬЕШЬ  
Я НЕ ВЫЙДУ БЕЗ ГАЛОШ.  
С ПОМОЩЬЮ РЕЗИНОТРЕСТА  
МНЕ ВЕЗДЕ СУХОЕ МЕСТО.  
ПРОДАЖА ВЕЗДЕ**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여성을 가사와 육아로부터 해방시키나?

우리들은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 가정의 노예상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돕기 위해 탁아소, 식당등의 시설을 만드는 중이다.



사회주의자의 여성에 대한 테제는 이중 단순하다. 사회주의는 지금까지 여성이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준다. 그것은 공부하여 자기 개성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식들을 적당하고 안전한 장소에 맡길 수 있고, 남자와 똑같이 일하여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결과는 어때요?



조금 뒤에 보시요.부인!

물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방되려 하였었다.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럼 소비에트 혁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나?

1691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 그러나 이 권리는 1780년 상실.

1788 프랑스. 철학자며 정치가인 콩도로세, 여성의 교육권, 참정권, 공직에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요구.

1792 영국.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 메리월스톤크래프트, 『여권옹호』 출판.

1840 미국. 루크레티아 모트가 남녀평등권협회 설립, 여성과 흑인의 평등한 권리 요구.

1857 미국. 3월8일 뉴욕의 섬유·봉제여성노동자, 남녀동일임금과 1일 10시간 노동을 위한 스트라이크를 일으킴.

1859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여성해방운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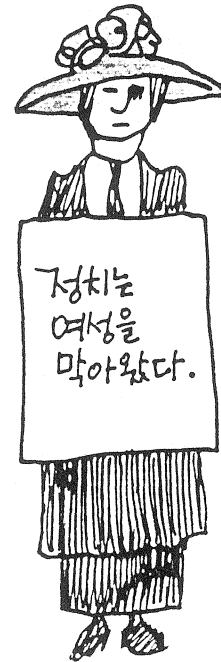
1862 스웨덴. 여성이 시의회 선거에 투표

1865 독일. 루이제 오토가 독일여성협회 설립

1866 영국. 철학자며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 하원에서 여성의 투표권 요구

1868 영국. 여성참정권 획득을 위한 전국협회 설립.

1869 미국. 여성참정권획득을 위한 전국협회 설립, 와이오밍 주는 북부동맹 가입에 필요한 선거인 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함.

1870 프랑스, 스위스, 여성의 의학교육 참가 승인.

터어키, 소·중학교의 여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설립.

1874 일본, 여자사범학교 설립.

1878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최초의 여자대학 설립.

1882 프랑스 공화당지도자이며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도움으로 11월 여성 권리획득을 위한 동맹 설립.

1888 미국, 스잔 B 안소니가 전국여성회의를 설립. 이어 유럽과 북미의 여성조직들이 워싱턴에서 국제회의를 설립.

1889 러시아, 여성수학자 소피아 코바레프스카야가 러시아 수학회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됨.

1893 뉴질랜드 여성이 투표권 획득.

1901 프랑스 사회당원 루오 비비안에 의해 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투표권에 대한 토론을 개최.

1903 영국, 에머린 판크화스트가 여성의 사회·정치 연합을 조직.

1904 미국, 국제여성동맹 설립.

1905 영국, 안 게오디와 판크화스트가 맨체스터의 여성 데모에 참가했다고 체포됨.

1906 핀란드, 여성 투표권 획득.

1908 영국, 여성자유연맹 설립.

1910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회 국제여성사회주의자회의에서 클라라 제트킨이 뉴욕 섬유노동자 파업을 기념하기 위해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하고 제안.

1911 일본, 여성해방을 위한 청담사 설립.



1912 중국, 1월 22일 남경에서 여러 여성단체가 모여 조정위원회를 설립.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고 5월 20일, 손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

1913 노르웨이, 여성 투표권 획득.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집회에서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 요구.

1914 터어키, 최초의 여자대학, 이스탄불에 설립.

1915 스웨덴, 작가 엘렌 케이가 산아제한에 관한 알 권리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원조 주장.

1917 네덜란드, 러시아, 여성의 투표권 획득. 러시아, 10월혁명. 최초의 소련헌법(1918년)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남녀평등 규정

1918 영국, 30세 이상 여성에게 의회 선거권, 피선거권 인정.

1919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여성 투표권 획득.

1920 미국,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 획득.

1923 라틴아메리카, 4월 26일 지리노산자고에서 열린 제5회 미주회의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

1925 터어키, 케말 아타주르크가 권력을 잡은 후 여성해방운동이 크게 발전함.

일본, 3월 30일 보통선거법 채택.

1929 에쿠아도르, 여성 투표권 획득.

1931 스페인, 제2차 공화계 헌법 여성 투표권 획득.

1934 프랑스 파리에서 인종차별과 전쟁에 반대하기 위한 국제여성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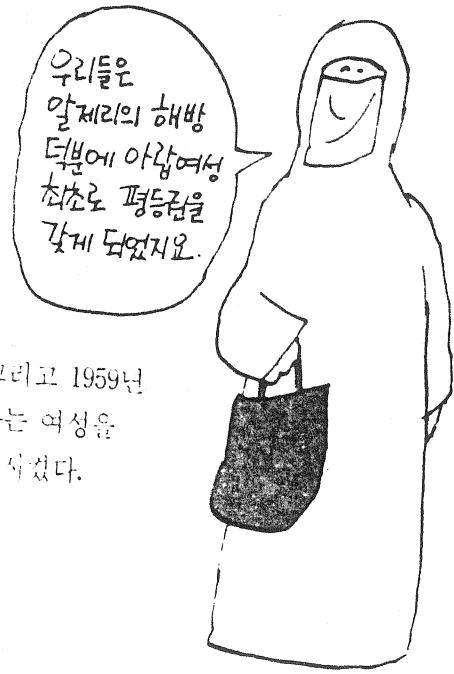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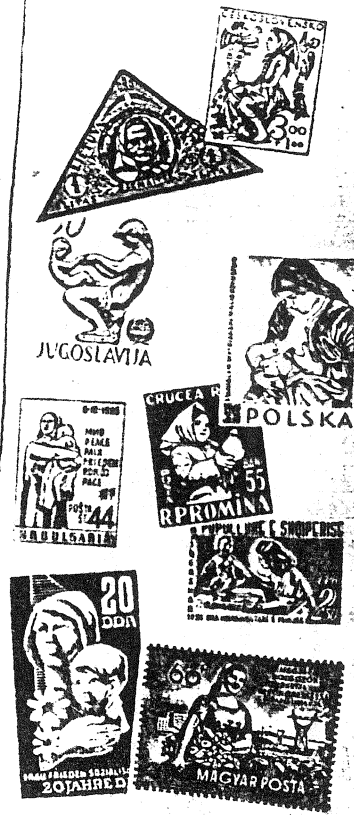
1936 프랑스, 여성의 투표권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인민전선정부에 3인의 여성이 입각.

1945 프랑스, 이탈리아, 여성 투표권 획득.



1949년, 여성 억압이 매우 심했던 중국이 해방되어 사회주의 국가로 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졌다. 베트남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1946년, 사회주의 덕분에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여성들이 해방되었다. 남자와 동등한 권리들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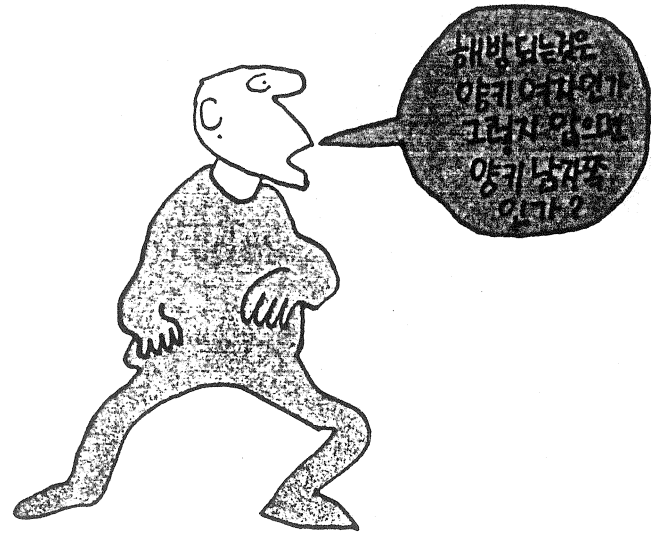
우리들은 알제리의 해방 덕분에 아랍여성 최초로 평등권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1959년 쿠바는 여성을 해방시켰다.



이후 계속 발생하였던 이러한 해방은 의심할 나위없이 사회주의 국가가 취한 '나쁜 본보기'가 원인이었다. 그것은 세계의 여성들을 해방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자들은 무엇에서 해방되고 싶어하지?



해방되는게 양키 여자인가 그러자 양키 양키 남자가 양키 남자가?

왜냐하면 기묘하게도, 해방을 원하는 여성들의 최초의 움직임과 절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부유한 문명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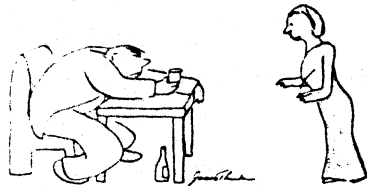
북아메리카 사회는 전통적으로 거대한 가부장제 사회라고 여겨졌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



미국의(때로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사회를 배우게 하였다. 즉 여성이 지휘봉을 휘두르면 남자는 피를 흘리며 빨래를 하고, 자식을 돌보거나 각테일을 준비하여 가정의 일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이러한 상상 속에서의 여성은 남편이 시골에 결승했거나 쇼핑을 즐기고, 술주하고, 자선활동에 참가하고, 비딱하게 앉아 담뱃재를 떨어뜨리면 남편에게 호봉을 친다.



일류 물건에 둘러싸인 사치스러운 생활. 배울 기회가 풍부하고, 맛있는 것과 근사한 드레스, 약간의 자녀와 많은 하인... 이러한 여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것인가?



미국은 여자를 여왕으로 대하는 평등하고 완전한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까?

미시컬 코메디는 우리를 우롱하였는가?



남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마구 화장하여 그를 매료시켜서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닌가?



대부분의 여성이 소비사회 내에서 소외되어, 어떠한 식으로 살고 어떻게 화장하고 무엇을 입고 어떤 춤을 출까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번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여성들은 남자들보다도 한층 앞서가고 있었던 것일까?  
이미 어느 정도 정치의식에 눈떠가고 있었던 것일까?



미국의 형벌은 대체 어떤가?

음, 조금도 대수롭지 않아요!



350만의 여성이 일하고 있다. 그중 3분의 1은 비서나 사무원, 4분의 1 이상이 종업원, 간호사, 사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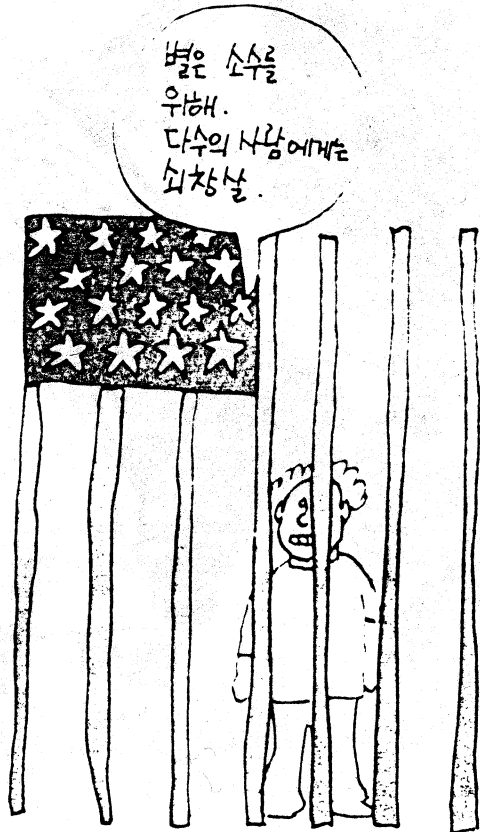
이 경우에도 여자들은 남자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대상으로 이용될뿐.



흑인, 멕시코인, 푸에르토리코  
인, 중국인, 폴란드인...  
이 나라를 서대하게 만든  
모든 소수민족은(원주민인  
인디언도 포함하여)  
빈곤과 비위생과 실업과  
악습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빈민가 속에는  
연년없이 낮은 집, 허술한 학교,  
상비가 부족한 병원 따위가  
그들(그리고 그녀들)을 위해  
있어서 안 된다.



자본주의 라는것은  
선악을만  
나쁘게 하는  
스포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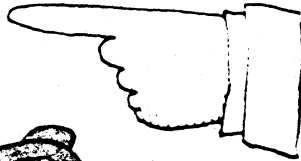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에서 여자에 대한 착취는 기가 막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환경에 의한 이중의 착취이다.  
흑인여성, 멕시코 여성은 공포, 빈곤, 차별, 폭력, 매  
춘단속, 불법 낙태, 도둑질, 자살의 세계에서 살고 있  
다.

사무원이나 비서,  
호텔 여급, 하녀 등  
으로 일하는 여자들  
은 모두 고용주의  
침대를 통과해야 한  
다.



몸을 파시오  
안그러면  
일할수가없어  
당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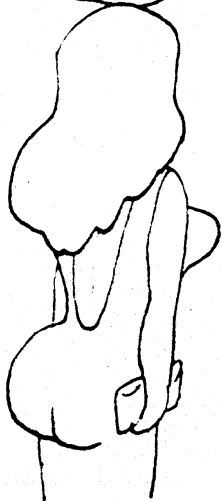
스튜어디스와 영화·연극·TV의 여배우  
들, 적널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또한 지극히 평범한 노동자가 되고 싶은  
여성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취직의뢰장  
을 침대위에  
올려놓게. 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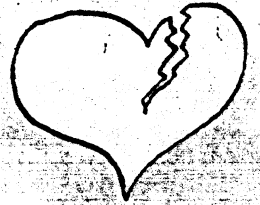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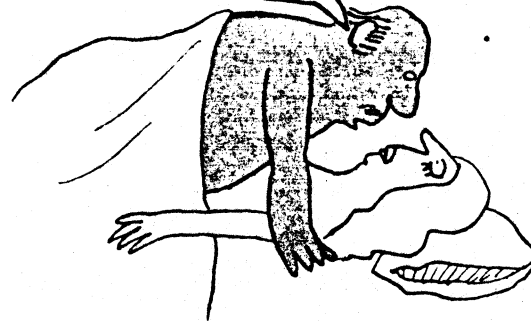


사무실에서서의 섹스는 미국의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현상  
도 야기시킨다.  
미국의 아내들은 성적으로 욕구불만  
에 싸인 여자의 상징이다.



자동화된 가정의 여자 노예들은 미국  
사회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피곤에 지쳐  
버린 남편들과 단지 아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섹스를 생각한다.

작년과  
똑같은것  
같지?  
여보.



다양한 연구 및 킨제이  
박사의 리포트 등이 미국  
가정의 감춰진 현실을 폭  
로했다.



미국의 아내들은  
오르가즘을  
몰라요!



시몬느 드 보바르의  
『제2의 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의 반역을 부추기는  
다양한 책이 출판된다.

그러면  
여자는  
여러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나도 역시  
뭔가를  
깨달아야  
할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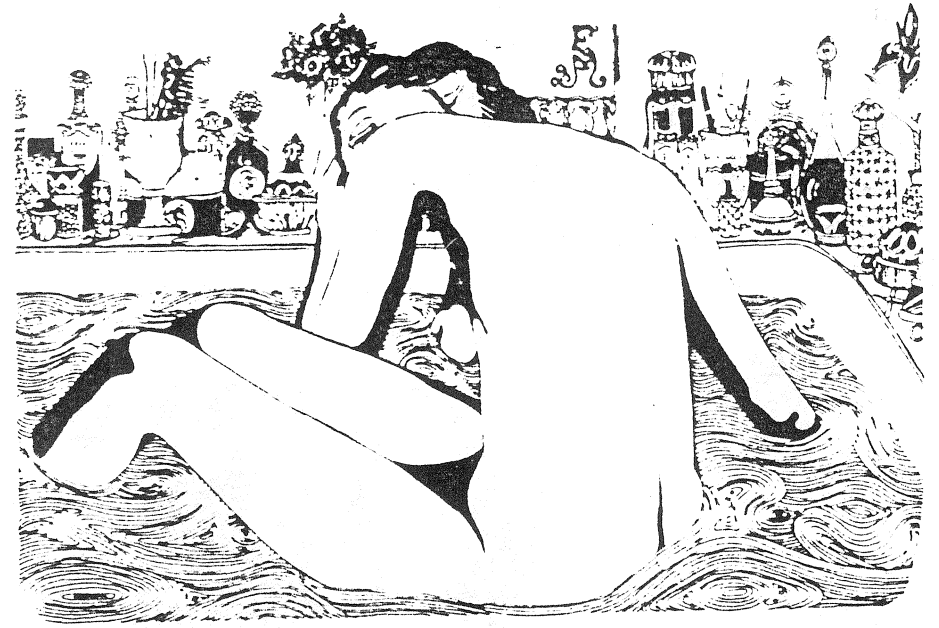
무엇이라고?  
주3회의 사랑  
(make love)도  
권리라고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르가슴을  
느끼는게  
한답니다.



잡지 『플레이보이』를 시작으로  
성혁명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나라의 성 억압의 터부는  
날아가버렸다.  
여자들은 본주한 주부나 따분한  
아내 이상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당신의  
여자가 ♪  
되고 싶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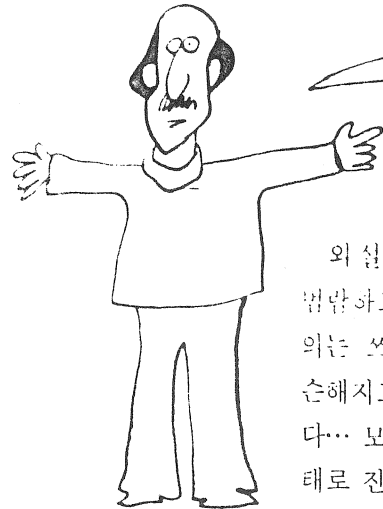


갑자기 양키 여자들은 자신들도 남편과 똑같은 정도의 섹스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집안에서만 아니라는 것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플레이보이』와 다른 잡지에 가슴이 들뜨게 되고, 성 해방에 대한 자각이 여성해방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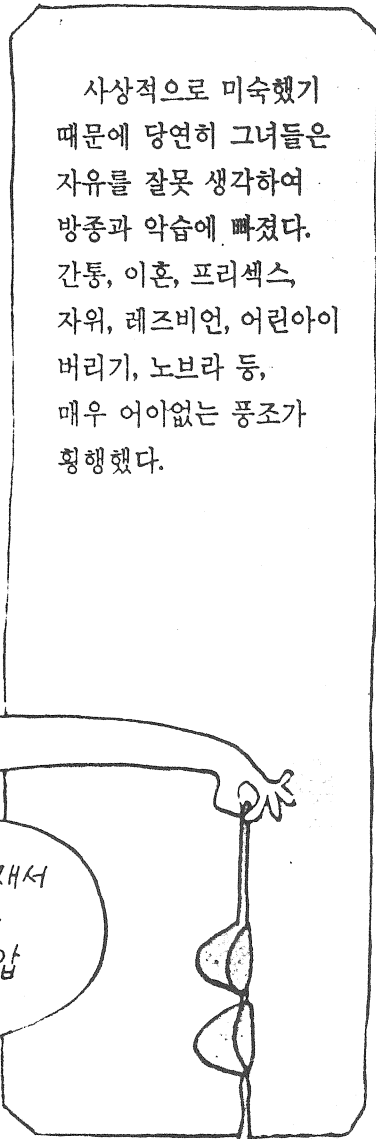


사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들은 자유를 잘못 생각하여 방종과 악습에 빠졌다. 간통, 이혼, 프리섹스, 자위, 레즈비언, 어린이 버리기, 노브라 등, 매우 어이없는 풍조가 횡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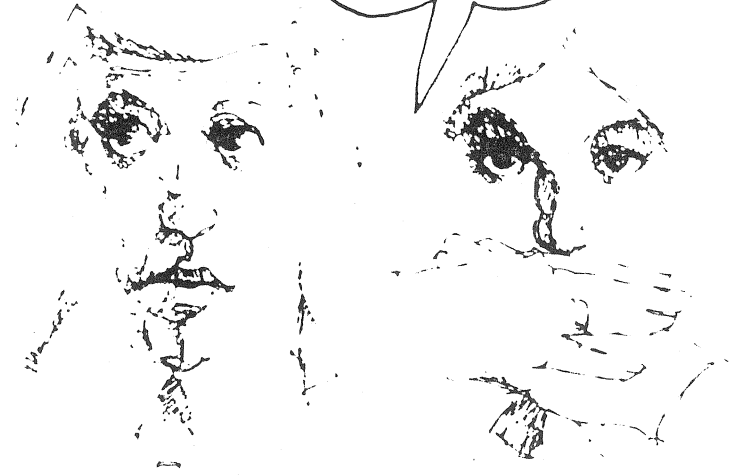


대체 어찌해서 브레지어가 남성적 억압인가!

외설책 (pornography) 이 범람하고 전통적 청교도주의는 쓰러졌다. 관습은 느슨해지고 성병이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이러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1963년, 베티 프리던이 『여성의 신비』를 출판할 때까지 미국의 불만에 찬 여자들은 현실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밖에는 자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여성의 신비』라는 책의 희생자이다. 결국, 교사, 매스컴, 기업이 공모하여 강요하는 사회적 신화의 희생자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성과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허용된 일이라는 신화다”

“여성을 해방하는 길은 섹스가 아니다.”라고 도리던은 지적했다. 여성이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은 남성과 똑같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창조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가지는 것이다. 1966년, 베티는 전국여성동맹(NOW)을 창설한다.

지금 곧



다른 많은 그룹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목적은 모두 똑같  
았다. 곧 법 개정과 남녀동등권의 달  
성이었다.

이제  
침대만이  
해방의장  
이라구요.



지금 곧?

지금, 바로 일어나라!  
NOW는 「평등의 나  
라」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정착시키기 위  
해 중도적인 압력단체  
로서 활동한다.



이들 그룹이 직면한 문  
제는 미국남성과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였다.  
그녀들의 대부분이 착취당  
하고 있다라는 인식,  
곧 남성에 의한 착취는 별  
개로 하더라도, 체제에 의  
한 착취에 대해서는 인식  
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게  
뭔데?



무엇 간단하다.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자  
유」세계의 리더들)이 주장  
하는 것은,

1. 남자는  
억압자  
이다.

2. 모든  
사회는  
남성우월주의  
로 고통  
받고있다.

3. 남성과  
남성지배사회에  
반대하여  
우리는  
단결했다.

4.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 시키자.



그런 식으로 제기된 투쟁 가운데 페미니스트들이 잊고 있었거나 또는 몰랐던 몇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1



남자들이 성적 분업을 제멋대로 음모에 의해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만일 내가 취미로 전쟁이나 맘만 사냥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네 등은 비보멍텅구리야.

남자들도 역시 자본주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을 여자들은 잊고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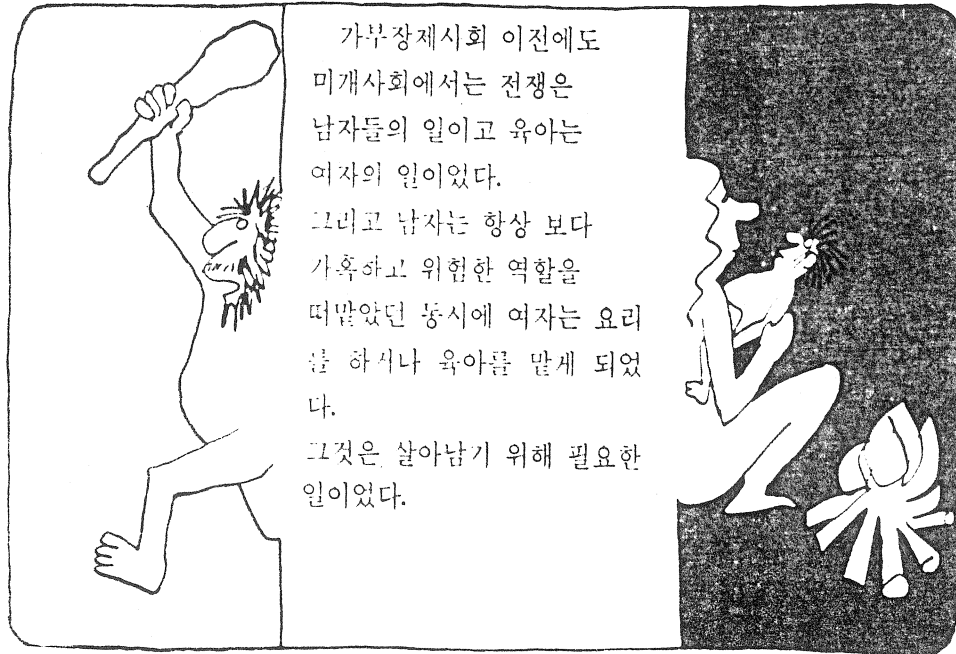
자신들이 희생자가 되기 위한 체제를 남자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여자들은 누가 남자들을 키우는지를 잊고 있다. 그것은 어머니요, 여선생이며 할머니이지 남자들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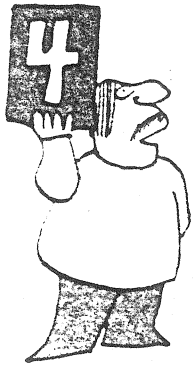
3



자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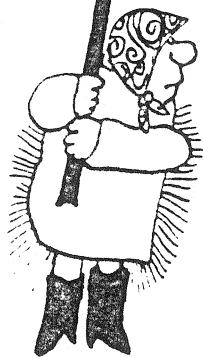


가부장제사회 이전에도 미개사회에서는 전쟁은 남자들의 일이고 육아는 여자의 일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항상 보다 가혹하고 위험한 역할을 떠맡았던 동시에 여자는 요리를 하거나 육아를 맡게 되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선전으로 명해지고  
부족한 정치의식에  
눈이 흐려져  
이것을 잊고 있는것  
같은데.....

1917년  
부터 세계는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의무.

(당연한 일이  
지만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반  
공주의를 교육받  
는다)

이것은 엄청난 관  
이다!

1917년 러시아에  
사회주의라는 전  
의 다른 또다른 제  
가 탄생했다. 세  
로운 사회의 하나의  
일으키며, 여기서  
의 남녀의 평등을  
이성원 법칙이 공로  
고 이상과 교육의  
이것이 성되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서는 이제 매  
춘도, 버려진 여자  
도, 미혼모도, 미인  
대회도, 더이상 존  
재하지 않고 성적  
대상물로서의 여성  
도 없다.



사회주의는  
여자를  
해방시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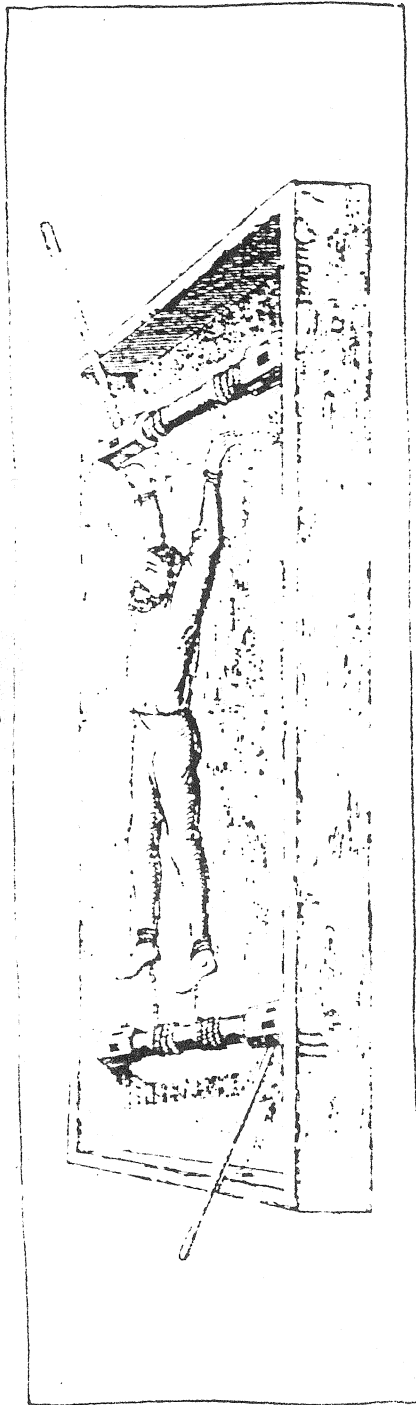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노예가  
아니라 동지가 되는 사  
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였을  
때보다  
훨씬 행세를  
못하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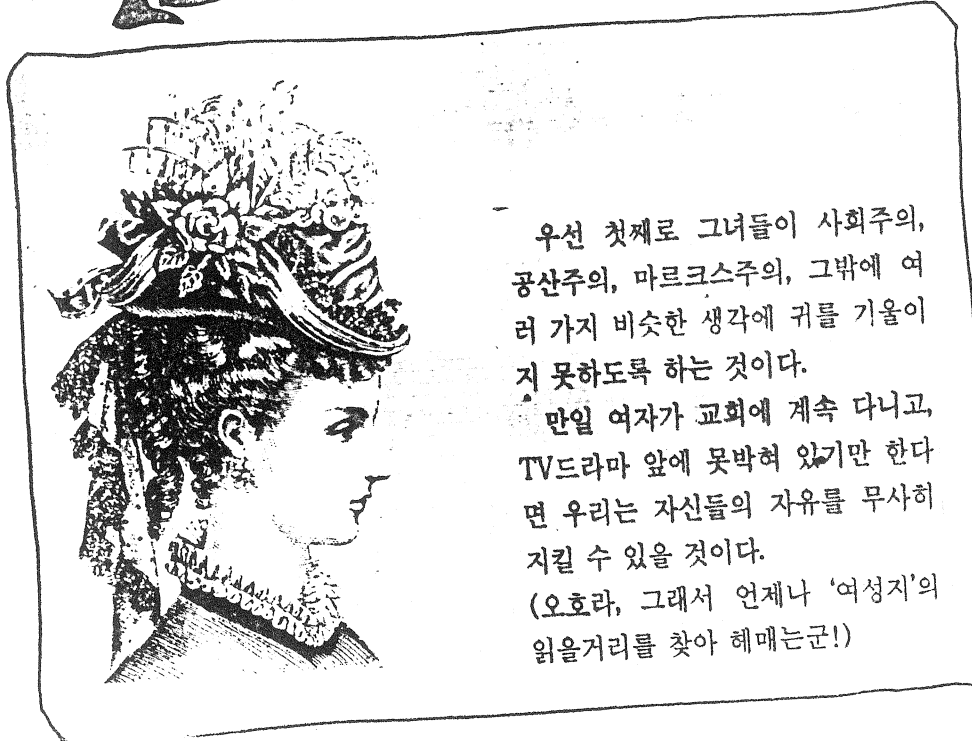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세계의 약 절반의 여자들이 해방되어 남  
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남성의 절대적 우위성의 위험은 사라지  
고 있다!  
세계는 양성평등의 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다!  
관악(신의 모습을 꼭 닮은) 날자들이 변  
한 것은 그것은 자연에 대한 범죄가 아니  
는가!



여자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미. 좋다구  
여보시오.  
마누라가 이제 곧  
이혼하고 나를  
차버릴거야!



우선 첫째로 그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밖에 여  
러 가지 비슷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  
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여자가 교회에 계속 다니고,  
TV드라마 앞에 못박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신들의 자유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오호라, 그래서 언제나 '여성지'의  
읽을거리를 찾아 헤매는군!)

어떤 사회가, 모든 인간(남자든 여자든)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가?

어떤 사회가, 여자에게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가?

어떤 사회가, (그들이 예를 들어 농부의 아내들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들을 보호하는가?

어떤 사회가, 여자들에게 3개월의 출산휴가를 주는가?

어떤 사회가, 모든 여자들에게 일할 기회와 무료 교육의 기회를 주는가?

어떤 사회가, 어머니들이 교육받거나 일하고 있을 때에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가?

어떤 사회가, 여자에게 임신중절의 권리를 주는가?

어떤 사회가, 송내안 최악으로서의 남성우월주의를 없애어 주는가?

결국 자본주의로는 불가능해. 역시 사회주의 어서라야 .....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남자의 '특권'이 역사의 휴지통으로 버려졌다.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부터 중국까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베트남, 불가리아, 몽고, 동독, 북한, 알제리, 쿠바를 통과했다.

쿠바에서도 이미 남성우월주의가 무너졌다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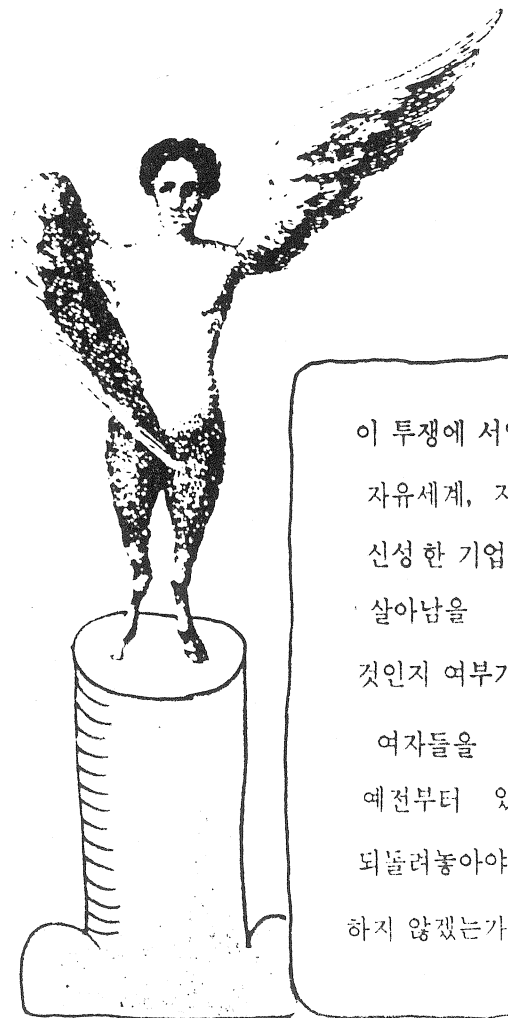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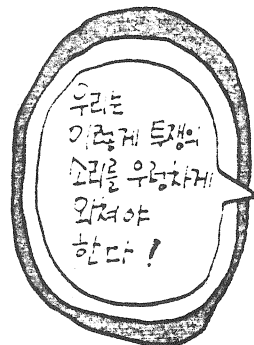
그러나 분명히 그렇다. 쿠바놈들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그 위에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여자가 (물론, 하고 싶을 때는 해야겠지만) 침대나 요리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놈들은 확실하게 분별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에 서는 종파에 관계없이 아직 까지 여성 신부를 인정 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더욱이 이혼 이나 동성, 약 등의 인 공적 피임, 임신중절도 인정하지 않는다....

# 그리스도, Yes! 페미니즘, No!



이 투쟁에 서양문명, 자유세계, 자유롭고 신성한 기업 등이 살아남을 것인지 여부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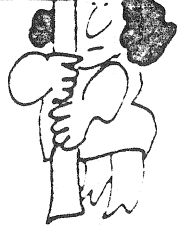
여자들을 예전부터 있던 장소로 되돌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째로,  
이 부쟁이 정치적으로  
되는 것을 피할  
것.



해방과  
사회주의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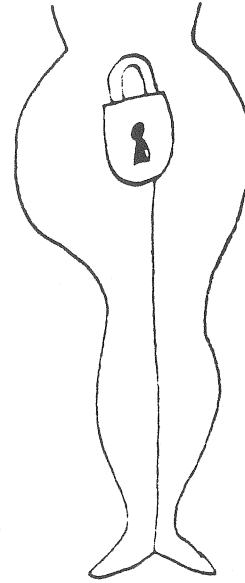
그녀들의 운동의  
목적은 히피족들의 목  
적과 마찬가지로  
공상적이며 추상적인  
것이라고 선전해야 남  
자가 아니겠는가.

사랑  
과  
평화



히피들의 운동이  
마약과 록음악으로 깨  
진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는 섹스로 여자  
들을 깨뜨릴 수 있다.

자유로운  
사랑을!  
남자들과 똑같이



미국에서는 자유  
로운 사랑 따위는  
충분히 획득되어  
있다.  
여성해방운동은 이  
합정에 빠져 섹스의  
자유 정도만 외치고  
있다.



레즈비언과  
호머섹스의  
자유.



좋다.  
우리는 기꺼이 그녀  
들에게 포르노그래  
피를 내줘야하지 않  
겠는가!



우리는  
여자를 위한  
포르노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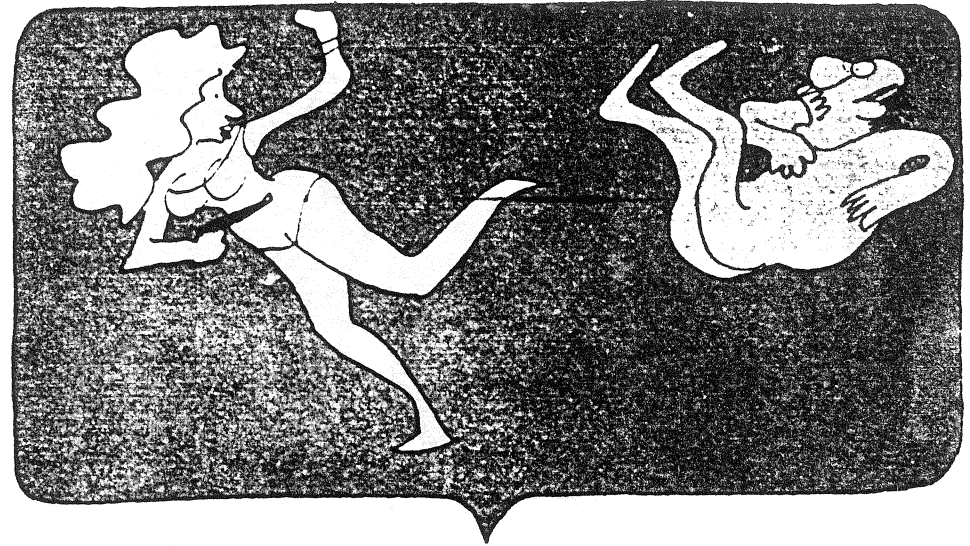
여자는 남편과 아  
이들을 데리고 외출  
하고, '그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남  
자로부터 남자에게  
로 전전한다.  
그것이 곧 '자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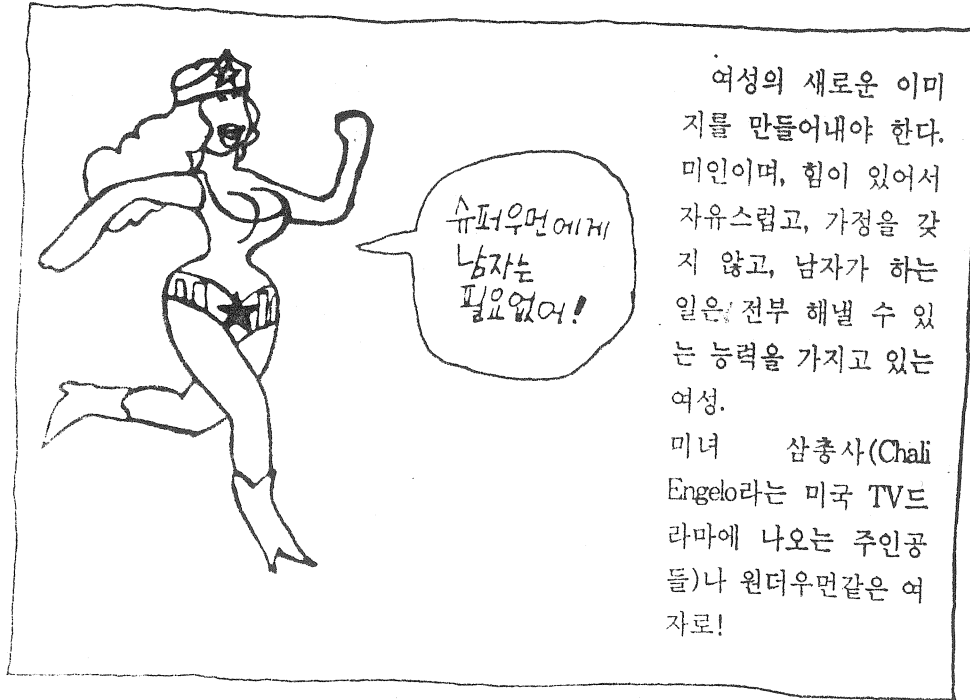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을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보게 만들자.

레즈비언과 호모 섹스를 장려하지 않겠나...

남자가 여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도구로서는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스토리를 널리 퍼뜨리면 안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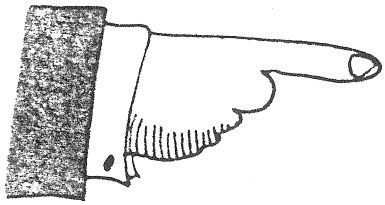


여자는 어떤 분야에서든 남자와 경쟁한다. 그러나 그 남자와 거침없이 한 침대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가 저녁을 한턱 내고 그녀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미인이며, 힘이 있어서 자유스럽고, 가정을 갖지 않고, 남자가 하는 일은 전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미녀 삼총사(Chali Engelo라는 미국 TV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나 원더우먼같은 여자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미국의 여자들은 이미 예전에 남  
자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세  
계를 향해 말하기 전부터...



그녀들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실 수 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도박을 할 수도 있다...  
남자처럼 싸울 수 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또한 가능한 것이다!



거짓 자유로 여자  
들의 정신을 딴 데  
로 돌리는 것이다.  
그녀들 자신을 이용  
하여...



이토록 자유롭게  
되었던 적은  
없었어요  
슈퍼브라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탐폰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죠!



쿨링은  
자유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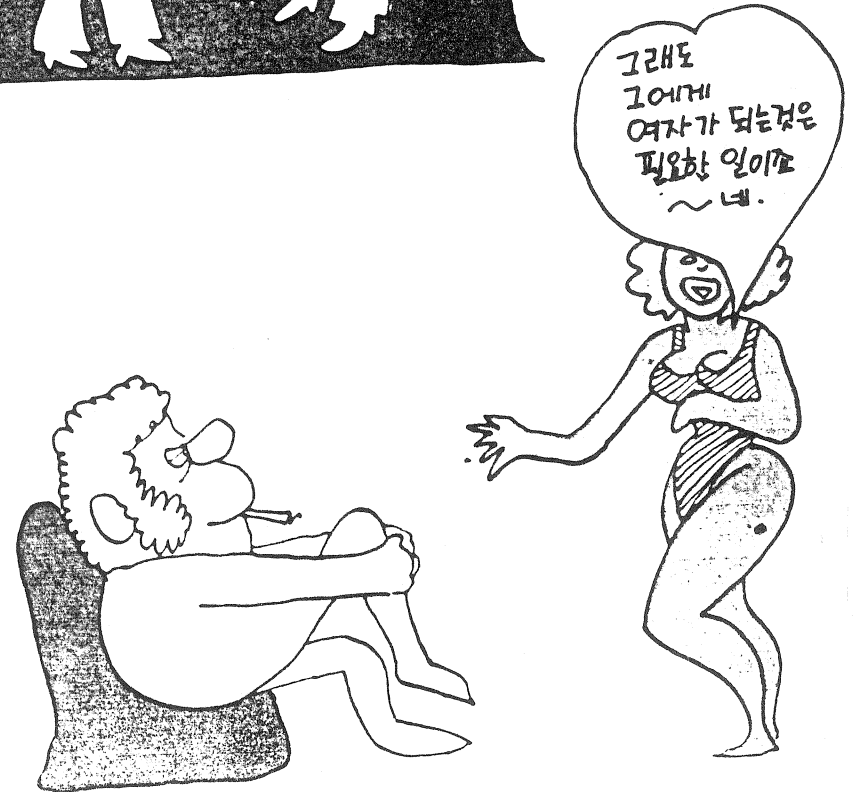
이자를 섹스와 쾌락,  
기분 전환과 근사한 생  
활의 상징으로서 표현  
해야 한다!



안녕, 화장과 인조 속눈썹, 보석과 모피, 사치스런 속옷이여, 안녕

안녕, 프랑스제 향수, 미용실, 미용 클리닉, 매니큐어, 화장품, 퍼머와 세트머리, 안녕, 유방확대수술, 살빠지는 약 모든 헛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우리는 여자들을 '쇼핑 로봇'로 만들었다. 그녀들은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것을 커다란 낙으로 삼고 살고 있다. 돈 지갑을 가진 남편을 잡아 끌고서는 드레스를 사러 여기저기를 헤맨다.





주인님들  
안녕을!  
사태는 이미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패션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를걸 우리 눈으로  
볼수는 없지.

나같은  
자남하겐  
어떻게  
속은  
과도  
반석과  
상표로  
만들어졌으니까.



게다가 미인대회에서는  
만나체로 소처럼 줄줄이  
일렬로 서서 눈요기 서비  
스까지 한다. 자신들의 비  
참함에는 전혀 신경을 쓰  
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소비를 여자의 제2의 본성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가 그녀들에게 팔고 있는 시시한 것들을 사지 않고  
택할 수 있는 여자는 없다.

대충이 그녀들 자신이 자신들의 봉료(다른 여자들)를 세뇌하여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여자를 본래 그런 존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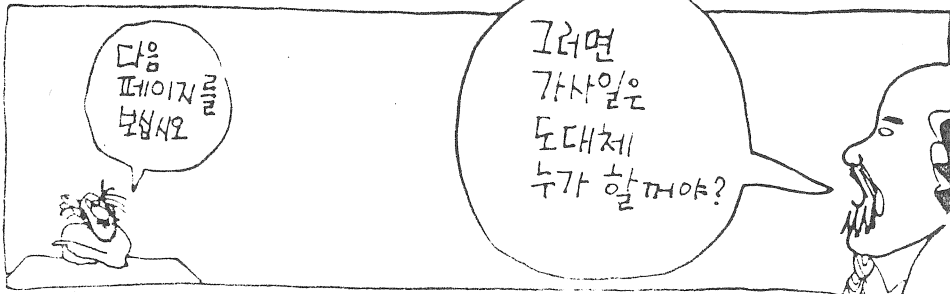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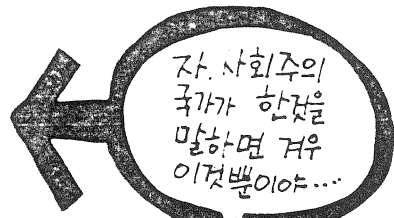
그럼  
사회주의  
국가는?  
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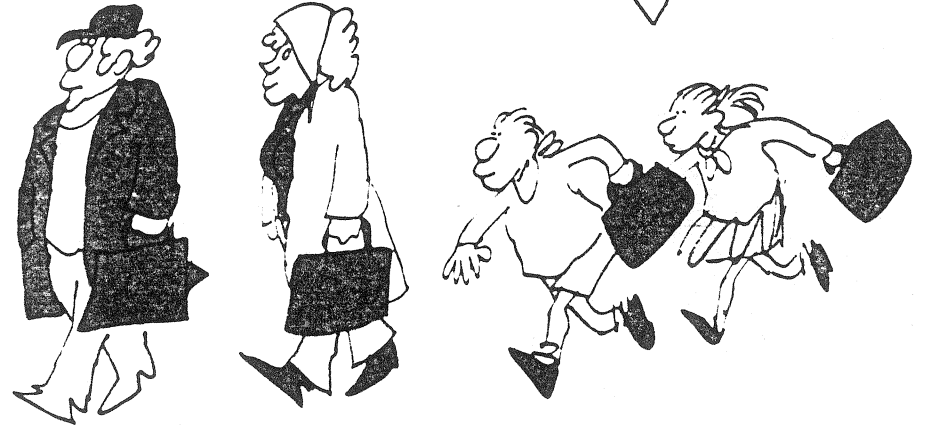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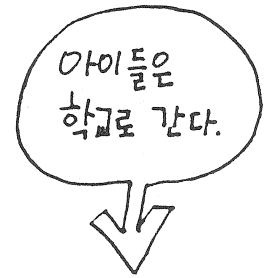
아내  
자네.  
이싸움에서  
우리  
장하고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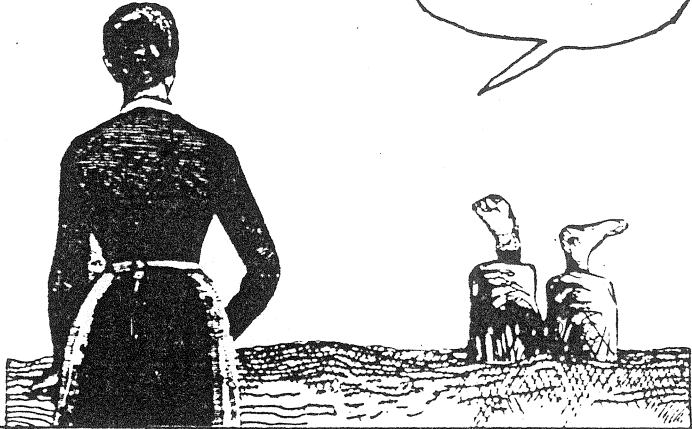
자본주의는 여성을 해방  
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남성을 해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사정을  
살펴 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는, 공장이나 사무  
소로 일하러 간다. 어머니  
도 마찬가지다.



설거지나 집안 청소 등은 가족  
전원이 한다.(필요한 경우에는 남  
자도...)



휴일 이외에는  
아무도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비스의 질은 사회주의  
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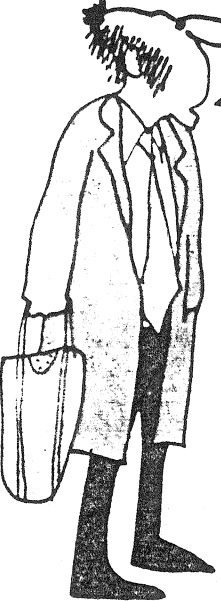


시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자각에 따라서도  
.....

이러한 서  
비스는 모두  
가 저렴하다.  
(무료인 경우  
도 있다.)



모든 식사는 일터에서  
한다. 아이들은 세끼를 전  
부 학교에서 먹는다. 그러  
면 고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육원과 유치원이 책임을  
지조 부인...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세탁소, 청소공장,  
바느질 공방, 식당,  
수리공장 등등.

사회주의가 여자를 남자  
의 명으로부터(사실은 남  
자의 억압이 아니라 사회  
적인 억압이지만) 해방시  
켰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다.(YES)



영영  
이럴수가!  
신부님은  
내게  
틀리게  
말씀하셨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사의 50%~85%가 여자다.

50만 명이상의 소련 여성이 공장장, 또는 농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선장, 기장, 또는 열차 운전수이다.

폴란드에서는 법관의 36%가 여성이다.

중국의 국회의원 중 35%는 여성.

대학생의 50~60%가 여학생이다.

소련의 음악가 중 반은 여성이다... 이렇습니까?

헌법 및 가족법, 노동법은 가족과 노상에 관하여 대단히 발전적인 것이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그러면, 사회주의 구마에 대해 알아보시



## 사회주의 쿠바의 가족법

24조 결혼은 부부 쌍방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구성된다.

25조 부부는 함께 살고, 성실과 경의, 그에 합당한 존경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한다.

26조 부부는 함께 창조한 가족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양자는 협력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적 도덕의 원칙에 따라 훈련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능력과 가능성에 따라 두 사람은 가사 운영에 참여하고 그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

27조 부부는 그들의 결혼에 의해 생겨난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자의 능력과 경제력에 따라 공헌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사람 만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의해 이러한 생계유지에 공헌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그러한 일과 육아에 협력할 의무와는 별도로 생계유지에 단독으로 공헌해야 한다.

28조 부부 양쪽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학문을 계속하거나 지식을 탐구하는 것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과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러한 활동이 본 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의무의 수행과 합치되도록, 가정 내에서의 생활의 조직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간틴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남성우월주의가 전면적으로 내팽개쳐졌군!



그럼 사회주의 이외에 해방의 길은 없는가?



여성의 해방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그 자체가 하나의 해방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내에서는 여성해방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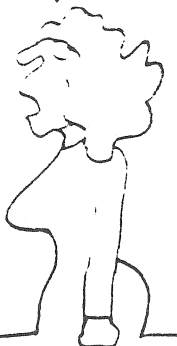




천만에, 당치도  
않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야말로  
더욱 해야 할  
일이죠!

아마 많은 여자들은 자  
신들의 해방을 위해 허  
리를 올리는 것이 좋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자들의  
투쟁은 남자들의 투쟁  
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하교보어하도록  
시키지 않으면  
안돼!



유감스러우나 좌익은  
이식된 여성의 해방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표하지 않고 있다.  
여의 성향에의 여성 참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산당 내에서도  
남성우월주의가  
존재하는건  
아닐까?



그 당의 노선에  
따른것이다.  
그래도  
소비에트인에게는  
대단한 것이다.

(요컨대 융통성이 있는 공  
산주의자로서 풀대가리 마르  
크스주의자일지라도, 그것을  
씻는 다위로 '영락하기'가 싫  
은 것이다...).

자, 이런 뜻에서 우리 남자와 여자 모두가 여자  
만이 유일한 피억압자가 아니라 많은 피억압자  
집단 가운데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페미니스트  
(쌀)은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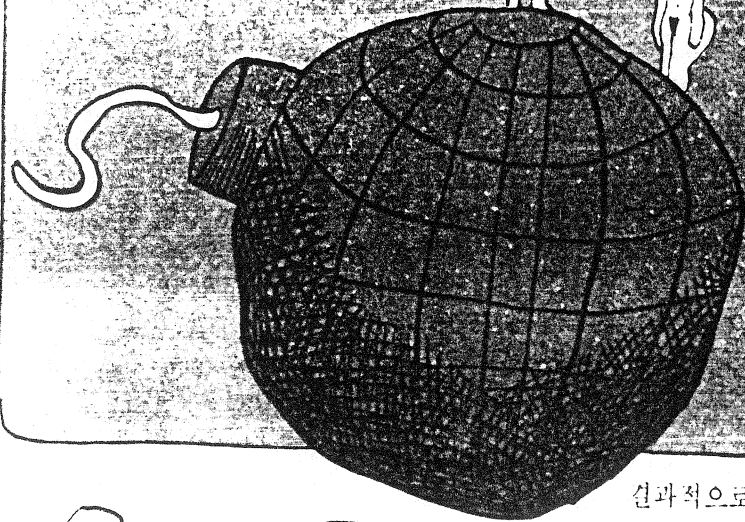
그리고.  
**양자**를 위한  
해방동맹만이  
우리에게 현실을  
가져다 준다.



여자들만의 땅이라고?  
세상에는 어이없는 일이  
자꾸 늘어 괴롭군.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 지구는  
이미  
파멸 직전인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적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남자도 여자도, 더욱 단결하여  
싸울 수는 없을까?

누군가  
대항하여  
싸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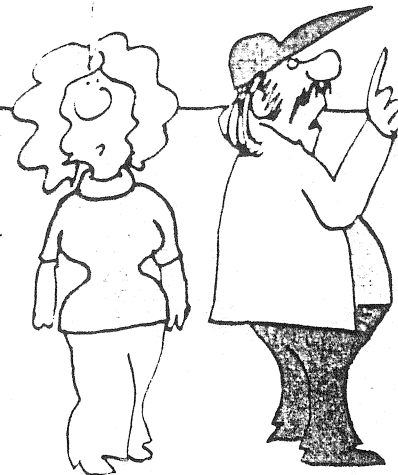


자본주의 내부에서  
의 싸움은 법률상의  
평등, 곧 동등한 노  
동, 남자와 균형잡힌  
임금, 임신중절의 권  
리, 교육의 기회, 강  
간에 대한 처벌 등을  
획득하기 위해 행해  
진다.



결국  
역할남의  
평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한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구.



성에 내재하는 생리적·심리적  
조건을 문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기에서는 사회적 이유, 특히 각  
나라의 경제구조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투쟁은 어느 정도의 개혁  
과 보다 나은 법률, 몇 가지 신화의 붕괴 등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 그것을 해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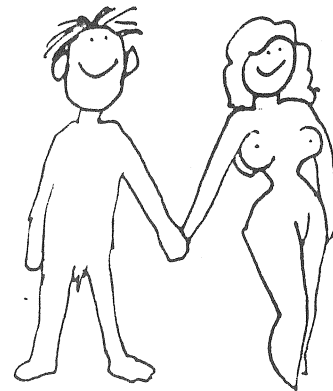


여자들이여,  
결혼하거나 취직하기 위해서  
부모의 집을 나오는 것을 해  
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따위로 생각한다면 그대  
들은 계속 억압적인 사회의  
희생자로 남아 있게 될 것이  
다.

사회가 해방되지  
않으면 여자들도  
해방되지  
못한다.



사회적인 문제들은 남자에  
게나 여자에게 있어서나 모두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이란 남자와 여  
자가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  
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 여성 해방, 남성 해방 제안서

## 컴플렉스 컴플렉스, 컴플렉스 세상

### 1. 일곱가지 여성 컴플렉스

### 2. 남성연구

---

※ 편집자 주 : 여성문제나 남성문제들을 대부분 외국의 번역서로 접근해 가는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한국사회의 우리 현실과 처지에 맞는 해방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여성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남성해방제안서는 여성의 적이 결코 남성이 될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매우 획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

## ##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 참고문헌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여성을위한모임 지음 1992년 4800원 <한임사>

### 1. 착한여자 콤플렉스(Good Girl Complex)

- 최근 임상 심리학자인 윌리엄 페즐러, 엘레노어 필드는 '착한 여자'로 키워진 여성이 열등감과 의존심, 무기력 등으로 분노가 쌓이는 데서 생기는 병적 증상을 분석하여 "착한여자 콤플렉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정의) "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여사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며, 식하고 귀여운 여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줄곧 자신의 욕망과 개성을 희생하려는 심리 상태 "

◎ 왜 여자는 착한 여자여야 하는가

예부터 인간은 말과 행동, 마음씨가 바르고 어질어야 한다고 하여 착한 사람을 본보기로 칭찬하였다. 착한 사람이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뜻한다. 특히 여성에게 좋은 아이,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라는 말은 최상의 칭찬이다. 그러나 '착하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남자는 "뛰니뛰니 해도 착한 여자"라고 답한다. 그리고 착한 여자란 어떤 사람이라는 물음에는 "~~일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임전하며, 한마디로 다루기 쉬운 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성실하고 선한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자에게 최고의 칭찬이 착한 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여자가 되고싶다~~"고 응답했다.

결국 '~~착한 여자~~'란 전통적인 부덕을 갖춘 헌도 양치로서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자인 ~~여자가~~이다. 그러나 여성 스스로는 착한 여자를 성실하고 희생심 있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덧붙여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착한 남자'란 말은 남녀 모두 선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한다.

## 2. 신데렐라 콤플렉스(Sindeclela Complex)

- 여성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알게 모르게 여성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을 주입받는다.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배우고 익히는 모든 규범은 당연히 남성중심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여성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한다.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규범을 잘 지킨다. 그러는 가운데 여성은 그 규범만 잘 지키면 정죄 당하지 않고 세상을 편히 살 수 있다는 안위에 빠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억압적인 고정 관념은 타고난 천성인 것처럼 차츰 여성 내면 깊숙히 스며들어 사고와 감정, 행동으로 드러나 홀로 서려는 의욕을 여지없이 꺾어 버린다. 결국 여성은 이 세상을 무리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이나 결혼에, 남편이나 자녀에 맹목적으로 매달린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폴레트 다울링은 여성에게서 볼수 있는 이러한 증후군을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정의) " 억압된 내도와 불인이 뒤얽혀 여성이 창의성과 의욕을 한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미세발 상태로 묶어두는 심리 상태 "

### @ 신데렐라 아직 깨지 못한 꿈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여성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해야 할때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낀 나머지 주저하며 포기 하려는 상태에 이른다. 실제로 못하게 막거나 억압하는 대상이 없을 때도 미리 겁을 내거나 두려워 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 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여성은 어릴때는 부모에게, 어른이 된 뒤에는 애인이나 남편에게 의지한다. 특히 일정한 나이를 먹으면 일생을 책임져 줄 남편감을 찾기에 급급해진다. 동화 속의 신데렐라 처럼 자기의 일생을 뒤바꿔 줄 왕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의 꿈을 깨지 못하는 것이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서 여성이 도전이나 경쟁을 기피하게 만든다. 또한 여성에게 어머니와 아내라는 '여성다운' 매력을 지키도록 하고 홀로 자립하여 살아가려는 독신 여성, 이혼녀 등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여 여성들간의 분리를 조장하기도 한다.

## 3. 성 콤플렉스 (Sex Complex)

-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서만 성 관계가 허용되었다. 남성은 자신의 부를 자신의 혈통에게 물려 주려고 여성에게 순결과 정절을 강요하고, 자신은 매음과 축첩을 통해 성의 자유를 누려 왔다. 결국 여성은 생식의 목적이

아닌 성생활은 불필요하고 성을 밝히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성적인 불감증이 여성의 속성인양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정력을 남성다움으로 여기며 드러내지만 여성은 정수를 여성다움의 표상으로 삼는, 성의 이중 규범이 보편화 되었다. 이러한 성 규범을 받아들여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본래 남성의 성은 적극적이며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반면, 여성의 성은 소극적이며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여긴다.

정의) “ 그릇된 성규범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성적 욕망과 성적 표현, 성에 대한 흥미를 억제하는 동안 갖게 되는 심리적 갈등 상태 ”

#### ◎ 여성, 그 속박된 성

성이라는 말은 원래 육체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 행동방식 같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인 만남이 전제된 동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도 성은 오랫동안 여성에게 금기시 되고 억압되어 왔다.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을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지표로 삼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척도로 삼는데서 여성은 성 콤플렉스에 깊게 빠져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여성도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에 대한 갖가지 신화와 편견을 밝혀 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 4. 외모 콤플렉스

- 외모가 자신의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은 더 예뻐지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황신혜의 십분의 일이라도 닮았으면, 최진실의 입이라도 닮았으면 ... 하며 선망의 대상을 세워 놓고 그를 부러워 한다. 이것을 흔히 외모 콤플렉스라고 말한다.

정의) “ 외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열등감으로 표현되든 우월감으로 나타나든 여성의 의식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갈등 상태 ”

◎ 뭐니뭐니해도 여자는 예뻐야한다.

사회학자 클리는 ‘거울에 비친 자아(the looking-glass self)’라는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각자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며, 타인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나의 장단점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판단에 비추어 자아를 형성해 나아간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성들이 스스로 미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하고 물을때 거울이 되는 것은 부모나, 친구, 친척들과 같이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쁜 공주님’이라는 칭찬을 듣는다. 그러지 못한 아이는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네요” 또는 “그래도 참 착해요” 등의 이차적인 칭찬을 듣는다. 남자 아이들에 대한 칭찬이 주로 그들의 행동이나 능력을 가르키는 것인 반면, 여자 아이들에 대한 판단은 주로 타고난 외모에 바탕을 둔다. 아이들의 성장과 성격을 크게 규정 하는데, 예쁘다는 것이 옳으며, 여성의 본질은 아름다움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어려서부터 들어 왔던 예쁘다는 칭찬은 커서도 지속된다. 외모를 본질로 받아들이는 여자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칭찬은 취업이나 결혼해서 실제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 5. 지적 콤플렉스

- 우리 사회에서는 “첫 손님이 안경된 여자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압타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없다” 등등의 말로 배우고 똑똑한 여자에 대한 심한 편견과 거부감을 드러내어 여성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기보다는 교양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

지적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여자도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을 사회의 적재 적소에서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여성은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적극성을 잃어버린다.

정의) “ 사회가 부여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적 능력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여성 스스로 내재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적 열등감 ”

### @ 보이지 않는 벽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야기를 할때 여성은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여성을 싫어한다. 그리고 남성의 주장은 받아들여면서도 여성의 주장은 어딘지 미심쩍어 한다. 특히 “여자가 너무 많이 알면 팔자가 세다”, “여자가 똑똑하면 시집가는데 지장 있다” 등의 말은 여성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정한 환경 덕분에 - 부모의 진보성이나 정신적, 경제적 혜택 등 - 자신의 지적 능



력을 인정받는 여성들도 같은 분야의 남성들에게는 지적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들에게는 거꾸로 지적 우월감을 갖는다. 과거부터 남성들의 독점 영역이라고 하는 법조계, 의료계, 정치계, 언론계에서 소수의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회에서 '여자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즉 가정법원, 산부인과, 소아과, 문화부, 여성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로 이들은 남성들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은 하지만 동료인 남성에게 지적 열등감을 가지며 다른 여성들에게는 능력이 자기들보다 모자란다고 우월감을 갖는다.

## 6. 만딸 콤플렉스

- 만딸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유교적 전통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남과는 다른 기대와 지원을 받으며 '살림뱃천'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전통적으로 만딸은 '딸'과 '만'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해내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아를 성취하며 살아가기 힘들다.

정의) " 인국 사회의 인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만딸의 모습을 부각시킨 만딸만이 느끼는 공통적인 갈등 현상 "

### ◎ 첫딸은 살림뱃천

만딸은 딸이라는 점에서 아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만이라는 이유로 '살림 뱃천'이 될 것을 강요받는다. 즉 만이면서도 장남과는 기대치가 달라 지원도 적은 반면, 자신의 능력과 희망과는 동떨어진 '살림 뱃천'이라는 역할을 맡아 알게 모르게 복합적 심리를 지니게 된다. 자아 실현이나 자아 성취에 한계를 느끼는 한편, 부모나 동생들에게는 만자식으로서 기대를 충족시켜야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렇듯 만딸이 느끼는 이중의 갈등과 강박 관념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재화하여 '만딸 콤플렉스'로 나타난다.

## 7. 슈퍼우먼 콤플렉스

- 최근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집안에 있던 여성이 직업을 갖고 사회로 나오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1990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46.5%에 이르며, 그 가운데 기혼 여성이 46.8%이고 미혼 여성이 46.5%로 기혼 여성이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 속에서 우리 사회의 한편에 직장일과 가사일 모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슈퍼우먼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여성들이다.

정의) “ 사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직장인, 주부, 어머니, 아내, 며느리라는 서로 상충되는 역할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갈등 현상”

#### ④ 왜 슈퍼우먼 ?

우리 사회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과 규범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여성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다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서 성공하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배우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하면 취업의 문이 남자에 비해 좁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간혹 이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해 보려고 도전해 보지만,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규범’이라는 엄청난 조직과의 싸움이라서 결국 자포 자기 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자포 자기한 여성은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집안일과 직장일을 모두 잘하여 모범이 되고자 한다. 또한 타아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는 직장에 다닌다해도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차지이다. 그러니 이러한 일인 이역은 힘겹고 고통스러울수 밖에 없다.

### ♣ 상식세계에 도전하고 컴플렉스에 벗어나는 삶

#### - 이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몬느 보부아르의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유명한 지도자가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야흐로 여성 자신이 직접 삶에 뛰어들어 변혁을 시도할 때이다.

여성을 가혹하게 몰아부쳤던 가치관과 규범은 수없이 많았다. 삼종지도, 칠거지악, 남녀유별 같은 가치관은 남자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도록 거들었던 문화적 장치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강제로 여성의 삶에 자리잡고 여성 스스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남성지배가 계속 되었다. 해방 후 민주주의의 바람이 휘몰아지면서 신분질서가 무너지자 남녀 불평등은 형식적으로나마 제도의 개선을 보였고 유교적 전통이 수구러지는 조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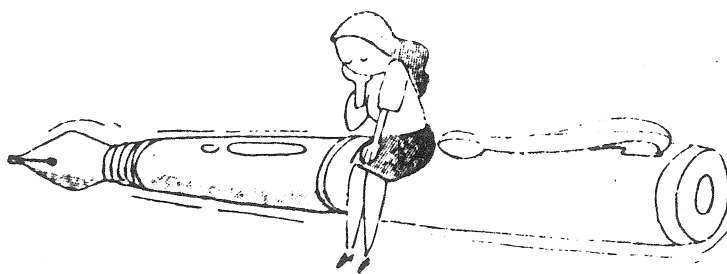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했다. 남아선호사상과 성의 이중윤리 등 여성을 억압하는 통념도 그대로 있다. 지금도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며 여자는 그저 남자 하나 잘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현실이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 심지어 직장여성들은 물론 여대생까지도 “현모양처”를 미래의 꿈으

로 생각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의 권위에 회의하거나 도전하는 일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남성이 만들어 준 가정이라는 둥지에서 제각각 동떨어져 살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 중심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1920년대 여성운동을 이끈었던 신여성이 그랬듯이, 몇몇 여성만이 개혁에 앞장 선다면, 여성의 의식을 일깨워 여성의 지지를 받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오늘날 교육, 언론을 포함한 거대한 대중 매체를 비롯하여 경제, 군대, 산업, 과학기술, 행정 등 모든 힘의 통로는 남성이 장악하고 있다. 그물처럼 쳐 놓은 거대한 통제력과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여성은 남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곧 남성 지배 구조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성의 동의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그리하여 여성 자신이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 내고 남성이 억지로 주입 시킨 '길들여진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면, 남성도 '남성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남성과 여성은 더불어 평등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여성 자신의 내면을 속박하는 여성 콤플렉스를 깨달아야 한다. 여성이 이른바 여성의 '천성'에 얼마나 몰입해 있는지 깨닫는 것은 바로 자신을 아는 길이며, 남녀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다. 다유으로 미쳐 자신의 삶을 깨닫지 못한 여성을 포용하고 여성 모두가 공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 사회에서 소수 깨어있는 여성들이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남성이 기득권을 흔쾌히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남성은 지배자답게 스스로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성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남녀 불평등 문화에 길들여져 인식조차 못한다. 여성이 남성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간의 단합은 어려워져 제도적 개선은 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여성이 깨어난다는 것이야 말로 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를 더 이상 가부장이라는 남성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성이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 일곱가지 남성 콤플렉스

- 참고 문헌 : '남성 연구, 여성모임 사랑 지음 1993년. 4800원 <나라사랑>
- 편집자 주 : 간혹 총여학생회에서 성교육 강연회를 하면 남성 비난 일변도의 강사님의 언변에 남성도 해방해야 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남학우를 볼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더구나 가부장제 속에 억눌러오고, 뒤틀리게 교육 받아온 우리 사회의 남성들이야말로 해방되어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남성문제 상담소를 비롯 남성문제 연구소를 세우고 여성과 더불어 고통받는 남성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들의 문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진단한 내용을 실어본다.

### \* 들어가면서

-앞의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와 마찬가지로 남성 콤플렉스의 원인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역할과 여성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3년간의 군대 생활 등에서 부단히 '남자다움'을 학습해온 과정에서 사회가 바라는 기준에 맞추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한 남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남성 콤플렉스의 심각성은 개인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있다. '여자는 예쁘고 착해야'하는데 비해 '남자는 능력있고 박력 있어야(이것은 성적인 능력과 항상 통해 있다)'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좀더 손쉽게 성공하기 위해 젊은 층에서는 신종 '온달 콤플렉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남성 콤플렉스의 원인 분석은 남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자기 진단이며, 그 다음은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릇됨을 시정하려는 노력과 실천일 것이다.

## 1. 마더 콤플렉스(Mother Complex)

- 한국남성들은 맞벌이 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샌드위치살이를 한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집안 생활이 몹시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이다. 고생 끝에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아내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이에 맞서는 아내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들의 갈등을 완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고달픈 것이다.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많다. 두여자 사이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곤란해지고 해결이 어려우면 대부분 어머니에게 맞추어야 할 듯 싶어 아내를 억박지르기도 한다. 이 정도 태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존재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틀에 얽매어 자신의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마더 콤플렉스로 확대 되기도 한다. 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일정 맥을 같이 한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고 방식과 취향에 따라 성장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이른바 '마더 콤플렉스'의 소유자가 된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게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성장과정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강한 의무감을 갖게 된다. 결국 어머니의 애정과 기대를 많이 받는 남성일수록 마더 콤플렉스를 갖기 쉽다.

요즘 젊은 남성들 중에는 어머니로부터 과잉보호를 받고 맹목적인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 공부만 잘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어머니가 대신 도맡아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어머니의 텃줄에 꼭 묶여 이유가 낮어지고 있는 성인이 늘고 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어른처럼 성장하고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다.

## 2. 능력 콤플렉스

- '여성은 외모로 승부하고 남성은 능력으로 승부한다.'는 말처럼 남성의 의미는 사회적 성취에 있고 여자의 의미는 아름다움에 있다는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남녀를 지배해 왔다. 여성의 반대급부로 남성에게는 능력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 남성은 낙오되고 못난 남성으로 매도당하기 쉬운 것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여성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남성은 남들보다 실력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그런데 요즘 신세대 월급쟁이들의 세태는 좀 다르다. 이들은 출세보다 실속을 더 차린다. 승진을 빨리 해 봤자 정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승진에 목이 매어 그 자리를 지키고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젊은 시절이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사 눈치보거나 인사과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대중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자 한다. 요즘의 남성들은 조직보다 개인의 삶에서 더 큰 가치를 찾고자 하여 명예라는 추상성 보다는 실속있는 현실을 더 중요시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들이 능력 콤플렉스를 극복한 모습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사회에서 요구하는 요령이나 인맥에 의한 비틀린 능력이 빚어낸 현상일 뿐이다.

### 3. 크기 콤플렉스

- 『18 Cm 여행』이라는 책에서처럼 남성들은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성기의 일부가 밖으로 일부 돌출되어 있는 남성들은 대부분 사춘기를 경과하면서 자신의 성기 크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남성의 자존심은 성기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도 있듯이 청년들은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가장 오랫동안 소변을 보는 남자를 치켜 세운다. 성기가 큰 사람은 자신 만만해 하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성적 만족은 남성의 성기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회 일반의 통념 속에서 “자신이 과연 여성에게 성적 만족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여성을 사로 삼는 주된 핵심을 성기 중심으로 사고 하는 성문화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 사고를 심어 놓는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성에 대해 소극적이어야 하며, 성관계에서도 남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의 성기 크기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부채질 한다.

이러한 크기 콤플렉스는 남성들이 성을 성기 중심의 신체 접촉을 뜻하는 지극히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임이나 임신, 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로 제외 시켜 버리는 경향을 드러낸다. 또 남성에게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정서적인 교감이나 친밀감의 확인 등을 포괄한 총괄적인 애정의 체험이라기보다는 상대 여성에 대한 소유의 확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 4. 온달 콤플렉스

-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남성들은 삶의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온달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못어성들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하루 아침에 천덕꾸러

기 재투성이 아가씨에서 왕비로 신분 상승하였던 신데렐라를 꿈꾸듯이, 남성들도 또한 재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평강공주 같은 여성을 배필로 만나 신분의 상향이동을 수월히 하고픈 열망을 갖고 있다.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외모나 착한 성품을 가꾸어 왔던 것처럼 요즘의 온달은 학벌과 능력으로 자신의 성공 기반이 되어 줄 평강공주를 맞을 준비를 한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사랑과 결혼을 일생의 지상 과제로 보는 복합적인 여성의 내면 상태이다. 그런 여성 심리의 반대편에 온달 콤플렉스가 존재하고 있다. 온달 콤플렉스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실로 다양하다. 여성이란 남성이 하는 일에 성공이 보탬이 되는 예쁘고 착하고 인내하는 존재로 왕자님을 만나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때문에 남편보다 성공한 여성, 능력있는 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온달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은 평강공주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부담감에다 자존심 따위는 일정 정도 무시해야 하는 처가살이 고충까지 감내해야 한다. 더욱이 재력과 권력을 가진 처가에 의해 자신의 출세가 가능했다는 점은 마음 한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장인, 장모에게 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워 무례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다.

## 5. 가장 콤플렉스

- 한국 사회의 가족형태가 가장인 남성에게 원하는 역할은 엄청나게 피곤한 노릇이다. 자신의 뜻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처자식이라는 피부양자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에게는 책임감, 합리성, 자제력, 결단력 등의 부양자 윤리가 형성된다.

만약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남성은 무능력한 가장으로 낙인 찍혀 집안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무시당하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 가장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만도 못하다.

요즘의 가장노릇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듯하다. 전쟁터와도 같은 직장에서 돌아와 집에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집에서는 또한 따뜻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사회가 여성에게 현모양처뿐 아니라 이제 뛰어난 사회적 능력도 가질 것을 요구하듯이 이제 아버지에게도 현부양부가 되길 요구한다. 그러나 당연할지도 모를 이 일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게다가 장남에게는 여기에 욕이 더 붙는다. 장차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장남은 장차 부모님을 봉양할 부양자요, 조상을 모실 상주요, 미래의 가장으로서 어려서부터 기대속에 자라고 그와 함께 책임감과 부담감도 함께 지니고 자란다.

## 6. 허세 콤플렉스

- 연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선전용 허풍으로 자신을 과장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압박감을 허세 콤플렉스라고 정의한다.

여성들에게 순종과 겸손이 미덕으로 자리잡이 이러한 미덕(?)을 가진 여성에게는 '여성적'이라는 찬사가 주어지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여성에게는 '잘난 여자는 밥만 없어'라는 비틀어진 눈길을 받는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보다는 주위의 어른이나 오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어야 하고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우월해야 하는 경쟁심리를 가지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한 구석에서 읽은 글 몇 줄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인 양 열변을 토하는 남성은 내심 박식한 사람으로 인정받음을 기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이면에는 상대방이 사실을 눈치 챌까봐 초초해 하는 초 초감이 함께 존재한다.

## 7. 카사노바 콤플렉스

- 역사적인 실존인물 카사노바는 1725년 양친이 희극배우인 집안에서 출생했다. 흔히 카사노바하면 성적 편린으로 유명한데 그의 회고록을 통해 보면 실존 인물 카사노바는 실제로 팔방미인의 제요소를 두루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매력이 증만하다는 카사노바는 후대 사립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사노바 이후에 나타나는 카사노바 콤플렉스라는 심리상태는 모든 여성을 자신의 성적 대상 범주에 놓고 실제로 수많은 여성과 쉽게 관계를 맺었다가 끊는 행동을 말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에대한 사회적 통념은 남성들에게 매우 관대하다. 어찌 생각하면 남성들의 성적 일탈을 사회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느껴질 만류이다. 그것의 결과인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는 자기 성과 다른 성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많이 보여진다. 즉 남성들에게는 그깟 성의 방종쯤은 큰 허물이 안되면서도 여성은 순결해야 되고 정조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혼 남성들 사이에서는 동정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거나 주변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성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섣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극히 남성다운 남성이라는 것을 공인 받는 것처럼.



## 우리 깊고 아득한 강을 이루자

고 정 희

우리 강을 이루자  
깊고 아득한 강을 이루자  
북한산 하늘이 절하러 내려오고  
첫 동트는 새벽이 이마를 담그는  
맑고 큰 강을 이루자  
저 빈 거리에서 홀로 깊어지는 강,  
너나없이 눈을 씻고 귀를 씻기도 하는  
초록빛 용융한 강을 이루자  
해동의 슬픔이 깊은 강물 이루는 날  
바람이 달려와 옥문을 열어젖히리  
돌들이 일어나 해방노래 부르리  
광화문통 사람들이여  
퇴계로와 을곡로 사람들이여 오  
수유리 사람들이여  
우리 일어나 강물로 흐르자  
굳게 닫아지른 빗장을 활짝활짝 열어젖히고  
순금 족쇄와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더운 목숨 저 깊은 곳  
다만 도도한 강물로 흐르자  
서대문에서 남대문까지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동대문에서 북문로까지

최루탄과 총칼을 잠재우는 강,  
마포진에서 강남진까지  
강남진에서 강동진까지  
강동진에서 강북진까지  
온갖 쓰레기들 쓸어가는 강,  
넓고 찬란한 강을 이루자  
그 강물에 돛 올리는 일천의 거룻배  
고향으로 달려가 자유 하늘 만나려나  
그 강물에 띄우는 일만의 봉화불  
서천서역국에서 민주세상 비추려나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강물은  
바로 어머니의 핏줄 속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람은  
바로 우리 가슴속에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여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리운 사람이여  
우리 황홀한 강을 이루자  
수억만리 타관까지 흐르고 흘러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강,  
오천만이 엮드려 혼을 씻기도 하는  
대천세계 가이없는 강을 이루자  
최초의 최대의 부활을 이루자

## 이순심 사건 개요

### 1. 이순심의 성장 과정 및 결혼 경위

가. 이순심은 1955.1.19.생으로서 현재 1녀(이신애, 22세) 2남(이동수, 21세, 이동현 20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순심은 무학인데다가 어렸을 때 모친이 사망하였고 10세 때에 부친에 의하여 버려지다시피 하며 남의집 식모살이로 보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친과 부친의 성명은 물론 자신의 출생지도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심의 형제는 3남 1녀로서 오빠와 두 남동생도 이순심이 버려질 함께 버려졌는데 그 후 고아원에서 성장한 오빠 이문선만 성인이된 후 만났을 뿐 나머지 두 동생은 아직도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10세때 처음 전주시 다가동에 있는 남의 집 식모로 보내졌는데 그집에서 3년 동안 살면서도 월급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주인 아저씨로부터가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측은히 여겼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순심을 군산에 있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몰래 보내주어 이순심은 다시 군산에서 3년간 식모살이를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심이 16세때에 부친이 군산으로 이순심을 찾아와서 이순심의 그동안 일한 월급을 모두 받고는 이순심을 대구로 데려갔습니다. 그 때 부친은 계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순심을 종이공장 사장집의 식모로 보내놓고 자신은 위 사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벽제에 있는 종이공장에 취직을 해서 벽제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후 부친은 위 종이공장을 그만두자 이순심을 다시 벽제로 올라오게 해서 벽제에 있는 현대건설의 건축현장내에 있는 벽돌공장에 다니게 하였습니다. 다만 겨울에 벽돌공장이 쉬는 동안에도 계모가 이순심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벽돌공장에 다녔습시다기도 하였습니다.

다. 이순심이 18세때 봄이되어 벽돌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벽돌공장의 기사인 이상용의 소개로 역시 같은 벽돌공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 이근태(당시 26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순심은 이근태를 무서워 하였을 뿐 좋아하거나 결혼을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순심의 집에까지 쫓아 왔습니다. 이 날 이를 본 계모는 이순심을 연애하고 다닌다며 연탄집게로 마구 때렸고, 이순심은 저녁에 월급을 타러 공장에 나왔다가 친구가 자기 집에 빈방이 하나 있으니 사용하라고 하여 결국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5.25.경)

## 2. 남편의 구타속에서 살아온 23년간의 결혼생활

가. 이순심이 남편과 결혼한지 몇개월후부터 남편의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심은 결혼하던 해 여름부터 벽제에 있는 골프장에 풀매러 다녔고 남편은 계속 벽돌공장에 다녔는데 이 때부터 남편은 전혀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 와서는 수시로 이순심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작대기로 구타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웃에 살던 이상용의 부인이 와서 말려 주기도 하였지만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

습니다.

심지어 이순심이 첫아이를 임신하여 만삭이 되었을 때에도 남편은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고 3일이 멀다하고 구타를 하였지만 이순심은 남편이 너무 무서워 반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할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나. 그 후 이순심이 첫아이를 낳은지 2개월 후에 남편은 울산에 있는 현대건설의 건설현장내에 있는 벽돌공장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이순심도 얼마후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여 벽돌공장내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간이 건물에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순심은 5년동안 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거의 월급을 타면 술마시는데 모두 소비를 하여 집에는 거의 한푼도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순심이 아이를 업은 채 공장내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벽돌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번돈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내려간 이후에도 남편은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이순심을 구타를 하였습니다.(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는 구타는 하지 않았지만 이순심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울산에 내려간지 2년정도 지났을 때인 1973.경(당시 둘째아이를 출산 한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임) 저녁 10시경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별다른 말도 없이 무조건 몽둥이를 들고 방방에 있던 선풍기, 시계 등을 마구 부수고 이순심의 얼굴과 온몸을 구타하였고 첫째 딸이 울면서 벽을 붙잡고 일어서려하자 아이를 발로 차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쌀을 퍼서 사방으로

뿌리고 돈도 찢어 버리며 자신의 옷도 입은 채로 찢어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날 이순심은 이마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가 많이 흘렀지만 당시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마의 윗부분에 카다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이날 위 공장에서 거주하던 30여명의 인부들과 그가족들도 모두 위와 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해 주거나 말려주지 않았고 이순심 본인도 벌벌 떨면서 당하기만 할 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 후 1974.경 이순심은 막내 이동수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축공사현장내에 있는 벽돌공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이사하여 역시 위 공장내에 가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3일이 멀다하고 술을 마셨고 그 때마다 이유없이 이순심을 구타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말리는 시어머니에게도 욕설을 퍼붓곤 하였습니다.

이순심은 압구정동에서 사는 동안에도 남편이 전혀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남편과 함께 벽돌공장에 나가서 번돈으로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라. 그 후 1977.경 남편을 이순심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이상용이 남편을 찾아와서 남편을 고려레미콘에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그 때 이순심은 서울 청담동에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였고 남편은 서울 사당동에 있는 고려레미콘으로 입사를 하여 이사건 당시까지 약 15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때부터 이순심은 이사건 당시까지 한꺼번에 세군데씩 파출부로 다니기 시작하며 생활비와 아

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남편은 여전히 3일이 멀다하고 술에 만취된 채 집에 들어와 구타를 계속하였고, 어쩌다 파출부로 다니던 주인집 아주머니와 상의하기도 하였지만 왜 그렇게 사느냐며 딱하게만 여겼을 뿐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 이순심은 서울 청담동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파출부로 나가서 돈을 모아서 겨우 보증금 300만원짜리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1981.경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가계수표를 쓰고나서 갚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순심은 남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또 어떤 횡포에 시달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전세보증금 300만원을 빼서 그중 150만원을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 사당동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만5천원짜리 방을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위 사당동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이순심은 술취한 남편으로부터 온갖 무시와 구타를 당하는 공포의 결혼생활을 계속하며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였지만, 자식들 때문에 죽지못하고 다만 죽은 듯이 파출부의 일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 3.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경위

가. 이순심은 1990. 봄에 남편의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해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에 건설되는 건영아파트 20평형에 당첨이 되어 그동안 이순심이 부었던 적금과 남편이 직장에서 들었던 적금을 합하여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1992.10.4. 위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1992.2.경 광운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둘째 아들은 카센타에 다니고 있었으며 큰딸은 양재동에 있는 약국의 종업원으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전혀 생활비를 도와 주지 않았지만 가정형편은 많이 나아 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양으로 이사를 한 후 여전히 월급을 전혀 집으로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이순심과 딸에게 자신은 회사에서 이자가 높은 재형저축을 들어서 월급으로 그 부금을 냈��니까 이순심과 딸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심이 1993.3.경 우연히 이상용의 집을 들렀다가 이상용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하면서 회사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심이 회사경리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재형저축에 대하여 물어 보자 위 경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순심은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하였구나 생각하였으나 남편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서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사실을 알았는지 술에 잔뜩 취한채 집에 들어와서는 “너 회사로 내가 적금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알아 보았었지”라고 추궁을 하며 구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심이 너무 무서워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남편은 회사가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 망치 가지고 다 때려부수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심은 다음 날 아침 여자 경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남편이 물어보거든 내가 알아 본 사실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남편은 다시 술에 취한채 밤 늦게 집에 들어 오더니 다자고짜 밥상을 집어 던지고 물병을 내던지며 이순심을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이순심은 공포속에서 밤은 지센후 다음날 아침 남편이 술이 깨었을 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 나. 1994년에 들어서도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이순심을 구타하며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릇을 내던져 부시기도 하고 자신의 와이셔스를 입은 채로 찢어 버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나기 2일전인 1994.1.14. 저녁 11시경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채 집에 들어와 예의 그 폭력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자 남편은 밥상을 내던지고 밥 그릇을 부셨으며 작은 아들 동현이가 아바는 술마시고 와서 왜 물건을 부수느냐고 항의 하자 남편은 이순심에게 네년이 술먹었다고 하니까 애새끼들도 술먹었다고 한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본인을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지켜보기만 할 뿐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순심은 또 다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날 남편은 이순심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쏟아지게 하더니 발로 이순심의 가슴을 걷어 찼습니다.이어서 전화기를 빼서 부시려고 하길래 이순심은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남편이 다시 이순심을 세차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순심은 발랑 넘어져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순심이 잠시후에깨어 났을 때 딸아이가 청심환을 꺼내 가지고 왔고 작은 아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때 이순심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며 밥먹었어요라고 묻자 남편은 네가 미쳤냐, 미친척하는거냐고 반문하는 거였습니다.

다. 이순심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경위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추후에 이순심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특히 일요신문 1994.1.30.자 참조)

#### 4. 결론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아내구타의 실상, 특히 우리의 이웃에서 23년이라는 오랜세월동안 그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닌 아내구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는 법 제도에 의한 보호는 물론 이웃에 의한 보호조차도 전혀 받지 못한채 방치되어 왔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변호인단은 재판과정을 통하여 우선 이순심이 23년간 당하였던 가정폭력의 실상을 낱알이 밝히고, 왜 법제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상황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여자가 오랜세월동안 남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황폐화 되는가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전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 나가려고 합니다.

1994. 3. 3.

이순심의 공동변호인단

(서울)조병룡, 배금자, 이종걸, 이명숙

(수원)고재정, 김철준, 김동균, 신장수

북한바깥보기 - 여성해방문제

북한의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 속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다. 즉 사회생산과 재분배가 존재하는 한 여성들에 대한 억압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회적화 철폐가 여성해방의 전제조건이 되며 그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성해방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북한 사상의 독특한 측면을 보인다. 먼저 북한은 1945년부처 1년 반 정도이 시기에 여성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여성들이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나 압박에서 벗어나 남성들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의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의 초점은 주로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한 부류들중에서 여성들을 보인 여성정책 역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사회적 맥락 아래서 보고 있다.

그 바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동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절반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듯 강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중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반면, 여성들은 경노동분야에서 일한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은 것은 북한이 해방 후 무려 15년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강요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과 국가의 계획이외에 경제 활동을 해야했고 특히 한국전쟁을 계기로 폐허라된 사회를 복구시키기 위해 남녀노 할 것 없이 모두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집안 일에 구애받지 않고 밖에서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여가까지 강제로 취하게했다. 먼저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어린이가 생후 3년이 되면 탁아소에 보낼수 있고 출장이 잦은 여성들은 주탁아소에서 1주일 배부거기등을 맡길 수 있게 하는 등 탁아소를 발전 시켰다.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점도 특히 할 만 한 것이다. 여성들이 결혼해서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부족한 보충적 용지를 해결하는 측면뿐 아니라 기교라 기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다.

정치참여의 경우 북한여성들의 활동영역 중에는 가장 많이 발전한 것이 정치 영역이다. 그러나 전체 북한 여성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또한 정치 영역이다. 현재 여성당원의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1980년 10월 당원회의 경우 전체 대표자 (3,220명)의 20% 비율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인의 비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정도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그리 높지 않은 수치로 접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사회활동과 기사 활동이 이중부양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북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이보다 앞을 많이 한다. 통안국장은 부부사들이 '대개는 남성 동료들의 계승중에서 비롯된다.' 고도 되었다. 이는 확실히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이다 반면,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줄이려는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다. 현재로서는 상호보완점을 발전시켜

여성들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품이나 반제품등을 보급하고 밥과 차 등 안들이  
 공급하는 밥공장, 가족식당, 세탁소 등의 편의 시설을 봉사 확대시키며 현대적인 부엌 설비를  
 이룩하면 가정용 냉동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가마 (전기밥솥), 재봉틀 등의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출산은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은 사회를 떠나갈 후대를 양육하는 '사회적 기증'이다.  
 따라서 사회는 당연히 양하는 여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성보호이다. 북한은 모성보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전 7개월 출산후 7개월  
 합해서 150일이다. 선정 산후 휴가 기간에 여성은 '임시직 보충'이나 '평안남도'를  
 받는다. 산모가 건강 상의 이유로 쉬는 등등의 정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신  
 6개월간 평안남도 적용한다. 산모가 휴가의 시간을 야간봉을 금지 한다. (1년 이내의  
 휴가를 가진 여성은 하루 2번 30분씩 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쉬지 못하는 여성들은  
 1시간 마다 5분씩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다. 휴제봉을 하는 여성노동자들 중에서 만  
 13살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출산 6개월간 휴가한다. 이 경우에는 임신 6개월부터  
 받는다. 북한에서는 미안한 기증은 김정숙과 생애 김정숙과 같이 모용 기증 동등한  
 일종의 미안한 첫째 2인간을 지어 준다. 이는 모든 여성들이 분할해야 할 '여성노동의' 김정숙을  
 받도록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양심에서 양심적 양하는 '사회주의 여성상'으로 부합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결코 아이 같은 눈썹에 작고 긴 눈을 하고 부끄러운 양에 웃고  
 보다 작은 입술로 가진 여성이 북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미안한 양으로 강요되고 있다. 한여름 북한에서는  
 등산객이면서도 건강한 여성이 희미 미안한 양으로 곱히러 왔다.  
 북한여성에게 "여자가 직장에 나가게 되는 원인은 남편이 버는 돈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의무적 2명씩 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 이에 북한여성은 "아니요. 돈도  
 아깝다. 우리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요. 배우처럼 여자들이 밖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자들 스스로가 자아를 실현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는 것만 갖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서로 서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한다.

# 양애리 학우 구명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사업

---

“이제 우리 몫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듯 싶다.  
우리를 걱정해 주는 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래서 세상 살 맛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보은아, 우리 좀 더 큰 사랑하길 노력하자.”

- 진관이가 보은이에게 보낸 옥중 편지 중에서 -

## 1. 사건개요

---

지난 1월 14일 부산의 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해자로 기소된 사람은 부산 인제대학교 92학번 생물학과 양애리 학우입니다.  
현재 애리는 '아버지를 죽인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되어 수감중입니다. 그러나, 애리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의 얘기가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애리는 결코 아버지를 죽인 그런 몹쓸 아이가 아닙니다.

양애리 학우의 어머니 장순희씨(42세)와 아버지 양용학씨는 1973년에 결혼하였고 애리

는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76년부터 아버지의 주벽과 도박이 심해지면서 어머니에게 온몸의 상처와 칼자욱(팔에 6센치 정도)이 남을 정도로 상습적 폭행을 가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생활속에서 자식들의 (애리와 동생 건우) 장래를 위해 참고 살아왔으나 알콜 중독상태의 아버지는 식칼을 들고 다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애리, 건우에게까지 구타를 가했고 92년 8월 어머니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집을 나와 서울 이모댁으로 피신하고 동생 건우도 고등학교 1학년때 학업을 포기하고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건우는 이후 외삼촌댁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건우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아직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며 애리 또한 93년 1월 구두발로 얼굴을 짓이겨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내연의 처도 아버지의 구타로 뇌사상태에까지 이를 정도이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집을 나간 상황속에서도 애리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가 변하는 길이고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월부로 스쿠알렌을 사줄 정도로 착한 딸이었고 충실한 학교생활을 해온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1994년 1월 14일, 애리는 다음날이 아버지 생일이라 생일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 갔으나 특수키로 문이 잠겨있자 계속 벨을 울렸습니다.

30여분동안 벨을 울리자 만취된 상태에서 먼저 들어온 아버지가 문을 열어 “XX야, 도대체 불만이 뭐냐?” 며 다짜고짜 큰방으로 끌고 들어가 불만이 얘기하라고 계속 강요하던니 “특수키로 잠그면 아버지께서 문열어 주려고 나와야 하니까 다음부터는 특수키를 잠그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자 “니년도 니 애미년도 똑같다.”라며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무언가 눈에 띄인듯한 눈빛으로 애리를 쳐다 보며 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에 놀란 애리는 “아버지 제가 여자로 보이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찾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구타할 때마다 가위나 칼을 들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해 왔는 습관이 있었는데 애리는 아버지가 흥기를 먼저 들기 전에 먼저 칼을 숨겨야 겠다는 생각으로 부엌으로 뛰어가 칼을 찾아 숨기지 못하고 있는 순간 아버지가 칼을 쥐어든 애리의 팔을 잡고 큰방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애리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실갱이가 오가는 사이 아버지의 손이 칼을 잡고 있는 애리의 손을 당겨 자신의 배를 1회 찌른 뒤 “지금 이 피나는 것을 보라. 배에서 피가 난다. 내가 피 흘리고 죽으면 될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리는 몸을 돌려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애리의 팔을 놓치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애리의 팔을 당겨 한번 더 찌르고 쓰러졌습니다.

애리는 쓰러진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 2. 사건의 본질

### 1> 가정폭력은 어떤 사회속에서도 결코 은폐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애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 법적으로 제기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왜곡된 사회적 통념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현실은 제2, 제3의 양애리 학우 사건을 언제든지 재발시킬 것입니다.

가정폭력, 특히 아내 구타(애리의 아버지 또한 아내 장순정희씨를 폭행,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만성 살인적 행위가 될 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폭력과는 대조적으로 가정안에서는 으레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받아들여져 구타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문제로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260조 1항(일반폭행)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타남편의 전과 기록이 있어야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부싸움이나 가정내의 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의 왜곡적 관점으로는 용납되기 힘든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마저도 빈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이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고 가정폭력이 그릇된 사회적 통념에 의해 보호되어서도 안됩니다.

### 2> 양애리 사건의 본질에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양애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간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여성에게만 순종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여성의 몸(남성도 마찬가지)을 성적인 도구나 상품으로 전락시켜 인간경시 풍조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병폐를 만들어 놓은 재벌입니다.

둘째, 현 정권입니다. 가정폭력은 통계적으로 보면 성폭력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성폭력 순위 세계 3위! 이런 수치스러운 것에 1,2,3위를 다투는 것이 다름 아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제화 개방화를 부르짖는 김영삼 정권의 실태입니다. 성폭력특별법 등등 운운하면서 여성유권자를 현혹시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외세입니다.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사대주의, 노예 의식을 유포시켰던 것은 바로 종교를 앞세워 들어온 외세이며 음란문화, 음란 비디오 등 퇴폐 향락 폭력문화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썩어들어가게 하면서 인간경시 풍조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의 온상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아닌 미군기지, 미국놈들입니다.

### 3. 양애리 학우 구명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과제

---

#### 1>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여학생-여성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애리 학우 사건의 본질은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회적 관심과 참여에 기초하여 사회적 동의에 의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몇가지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학우 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을 보다 과학적인 대안과 전망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주체의 능동적인 계획과 실천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의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왜곡된 가정-성문제를 옳게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민족적-계급적 근원을 자각하는 과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회적 동의와 법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구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을 비롯한 그릇된 여성운동의 흐름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인간사랑의 관점에서 올바른 한국여성운동의 전망을 마련하고 여학생운동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탄원서 작성운동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당장 당면 정세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단선적인 생각이나, 조금하게 마음먹어 알아 안된다고 쉽게 지치거나,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주고 받거나, 여학생회만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학생회 전체에서 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여 함께 실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제를 주동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단위를 적극 지도, 조직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양애리 학우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우리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새세상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따라서 5월 초순까지 가장 핵심적인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은 바로 '양애리 학우 사건 옳게 알기 운동'과 '탄원서 작성운동'입니다.



## 이순심 사건 개요

### 1. 이순심의 성장 과정 및 결혼 경위

가. 이순심은 1955.1.19.생으로서 현재 1녀(이신애, 22세) 2남(이동수, 21세, 이동현 20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순심은 무학인데다가 어렸을 때 모친이 사망하였고 10세 때에 부친에 의하여 버려지다시피 하며 남의집 식모살이로 보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친과 부친의 성명은 물론 자신의 출생지도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심의 형제는 3남 1녀로서 오빠와 두 남동생도 이순심이 버려질 함께 버려졌는데 그 후 고아원에서 성장한 오빠 이문선만 성인이된 후 만났을 뿐 나머지 두 동생은 아직도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10세때 처음 전주시 다가동에 있는 남의 집 식모로 보내졌는데 그집에서 3년 동안 살면서도 월급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주인 다저찌로부터가 수시도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측은히 여겼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순심을 군산에 있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몰래 보내주어 이순심은 다시 군산에서 3년간 식모살이를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심이 16세때에 부친이 군산으로 이순심을 찾아와서 이순심의 그동안 일한 월급을 모두 받고는 이순심을 대구로 데려갔습니다. 그 때 부친은 계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순심을 종이 공장 사장집의 식모로 보내놓고 자신은 위 사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벽제에 있는 종이공장에 취직을 해서 벽제고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후 부친은 위 종이공장을 그만두자 이순심을 다시 벽제로 올라오게 해서 벽제에 있는 현대건설의 건축현장내에 있는 벽돌공장에 다니게 하였습니다. 다만 겨울에 벽돌공장이 쉬는 동안에도 계모가 이순심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벽돌공장에 다녔습니다기도 하였습니다.

다. 이순심이 18세때 봄이되어 벽돌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벽돌공장의 기사인 이상용의 소개로 역시 같은 벽돌공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 이근태(당시 26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순심은 이근태를 무서워 하였을 뿐 좋아하거나 곁을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순심의 집에까지 쫓아 왔습니다. 이 날 이를 본 계모는 이순심을 연애하고 다닌다며 연탄집게로 마구 때렸고, 이순심은 저녁에 월급을 타러 공장에 나왔다가 친구가 자기 집에 빈방이 하나 있으니 사용하라고 하여 결국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5.25.경)

## 2. 남편의 구타속에서 살아온 23년간의 결혼생활

가. 이순심이 남편과 결혼한지 몇개월후부터 남편의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심은 결혼하던 해 여름부터 벽제에 있는 골프장에 풀매러 다녔고 남편은 계속 벽돌공장에 다녔는데 이 때부터 남편은 전혀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무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 와서는 수시로 이순심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작대기로 구타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웃에 살던 이상용의 부인이 와서 말려 주기도 하였지만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

습니다.

심지어 이순심이 첫아이를 임신하여 만삭이 되었을 때에도 남편은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고 3일이 멀다하고 구타를 하였지만 이순심은 남편이 너무 무서워 반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할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나. 그 후 이순심이 첫아이를 낳은지 2개월 후에 남편은 울산에 있는 현대건설의 건설현장내에 있는 벽돌공장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이순심도 얼마후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여 벽돌공장내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간이 건물에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순심은 5년동안 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거의 월급을 타면 술마시는데 모두 소비를 하여 집에는 거의 한푼도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순심이 아이를 업은 채 공장내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벽돌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번돈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내려간 이후에도 남편은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이순심을 구타를 하였습니다.(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는 구타는 하지 않았지만 이순심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울산에 내려간지 2년정도 지났을 때인 1973.경(당시 둘째아이를 출산 한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임) 저녁 10시경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별다른 발도 없이 무조건 몽둥이를 들고 방방에 있던 선풍기, 시계 등을 마구 부수고 이순심의 얼굴과 온몸을 구타하였고 첫째 딸이 울면서 벽을 붙잡고 일어서려하자 아이를 발로 차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쌀을 퍼서 사방으로

뿌리고 돈도 찢어 버리며 자신의 옷도 입은 채로 찢어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날 이순심은 이마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가 많이 흘렀지만 당시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마의 윗부분에 카다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이날 위 공장에서 거주하던 30명명의 인부들과 그가족들도 모두 우와 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해 주거나 말려주지 않았고 이순심 본인도 벌벌 떨면서 당하기만 할 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 후 1974.경 이순심은 막내 이동수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축공사현장내에 있는 벽돌공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이사하여 역시 위 공장내에 가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3일이 멀다하고 술을 마셨고 그 때마다 이유없이 이순심을 구타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말리는 시어머니에게도 욕설을 퍼붓곤 하였습니다.

이순심은 압구정동에서 사는 동안에도 남편이 전혀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남편과 함께 벽돌공장에 나가서 번돈으로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라. 그 후 1977.경 남편을 이순심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이상용이 남편을 찾아와서 남편을 고려레미콘에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그 때 이순심은 서울 청담동에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였고 남편은 서울 사당동에 있는 고려레미콘으로 입사를 하여 이사전 당시까지 약 15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때부터 이순심은 이사전 당시까지 한꺼번에 세군데씩 파출부로 다니기 시작하며 생활비와 아

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남편은 여전히 3일이 멀다하고 술에 만취된 채 집에 들어와 구타를 계속하였고, 어쩌다 파출부로 다니던 주인집 아주머니와 상의하기도 하였지만 왜 그렇게 사느냐며 딱하게만 여겼을 뿐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 이순심은 서울 청담동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파출부로 나가서 돈을 모아서 겨우 보증금 300만원짜리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1981.경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가게수표를 쓰고나서 갚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순심은 남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또 어떤 횡포에 시달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전세보증금 300만원을 빼서 그중 150만원을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 사당동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만5천원짜리 방을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위 사당동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이순심은 술취한 남편으로부터 온갖 무시와 구타를 당하는 공포의 결혼생활을 계속하며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였지만,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다만 죽은 듯이 파출부의 일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 3.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경위

가. 이순심은 1990. 봄에 남편의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해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에 건설되는 건영아파트 20평형에 당첨이 되어 그동안 이순심이 부었던 적금과 남편이 직장에서 들었던 적금을 합하여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1992.10.4. 위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1992.2.경 광운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둘째 아들은 카센타에 다니고 있었으며 큰딸은 양재동에 있는 약국의 종업원으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전혀 생활비를 도와 주지 않았지만 가정형편은 많이 나아 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양으로 이사를 한 후 여전히 월급을 전혀 집으로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이순심과 딸에게 자신은 회사에서 이자가 높은 재형저축을 들어서 월급으로 그 부금을 낼테니까 이순심과 딸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심이 1993.3.경 우연히 이상용의 집을 들렀다가 이상용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하면서 회사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심이 회사경리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재형저축에 대하여 물어 보자 위 경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순심은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하였구나 생각하였으나 남편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서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사실을 알았는지 술에 잔뜩 취한채 집에 들어와서는 “너 회사로 내가 적금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알아 보았었지”라고 추궁을 하며 구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심이 너무 무서워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남편은 회사가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 망치 가지고 다 때려부수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심은 다음 날 아침 여자 경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남편이 물어보거든 내가 알아 본 사실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남편은 다시 술에 취한채 밤 늦게 집에 들어 오더니 다자고짜 밥상을 집어 던지고 물병을 내던지며 이순심을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이순심은 공포속에서 밤은 지낸후 다음날 아침 남편이 술이 깨었을 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 나. 1994년에 들어서도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이순심을 구타하며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릇을 내던져 부시기도 하고 자신의 와이셔츠를 입은 채로 찢어 버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나기 2일전인 1994.1.14. 저녁 11시경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채 집에 들어와 예의 그 폭력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자 남편은 밥상을 내던지고 밥 그릇을 부셨으며 작은 아들 동현이가 아빠는 술마시고 와서 왜 물건을 부수느냐고 항의 하자 남편은 이순심에게 네년이 술먹었다고 하니까 애새끼들도 술먹었다고 한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본인을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지켜보기만 할 뿐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순심은 또 다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날 남편은 이순심의 코를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쏟아지게 하더니 발로 이순심의 가슴을 걷어 찼습니다.이어서 전화기를 빼서 부시려고 하길래 이순심은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남편이 다시 이순심을 세차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순심은 발랑 넘어져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순심이 잠시후에깨어 났을 때 딸아이가 청심환을 꺼내 가지고 왔고 작은 아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때 이순심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며 밥먹었어요라고 묻자 남편은 네가 미쳤냐, 미친척하는거냐고 반문하는 거였습니다.

다. 이순심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경위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추후에 이순심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특히 일요신문 1994.1.30.자 참조)

#### 4. 결론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아내구타의 실상, 특히 우리의 이웃에서 23년이라는 오랜세월동안 그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닌 아내구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는 법 제도에 의한 보호는 물론 이웃에 의한 보호조차도 전혀 받지 못한채 방치되어 왔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변호인단은 재판과정을 통하여 우선 이순심이 23년간 당하였던 가정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왜 법제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상황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여자가 오랜세월동안 남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황폐화 되는가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전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 나가려고 합니다.

1994. 3. 3.

이순심의 공동변호인단

(서울)조병룡, 배금자, 이종걸, 이명숙

(수원)고재정, 김칠준, 김동균, 신장수



☒ 주소록

— 총여학생회 일꾼들.

회 장	송은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2/4 126-12 (395-900)	
		(0444)22-4074, (0331)292-7131	1. 30+
부회장	심인숙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3단지 주공A. 321동 504호 (425-040)	
		(0345)410-3837	2. 6+
서 기	정지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3-4호 (440-290)	
		(0331)41-8516	12. 3+
회 계	이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643-3 (461-163)	
		(0342)41-7057	10. 10+
사 회	박영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85번지 4통3반 (441-100)	
기획부		(0331)295-6837	12. 16+
	양성미	경기도 수원시 교동동 156-113 성도연립 나-202 (441-09)	
		(0331)43-7746	3. 10-
	박종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316-1 (422-041)	
		(032)664-2118	?
선 전	송선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01-100 31/2 (440-290)	
홍보부		(0331)252-3106	12. 12+
	정희영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428-19 (422-040)	
		(032)665-2563	9. 17-
	이수진	서울시 중랑구 면목1동 1275번지 7/1 (131-201)	
		(02)432-0269	1. 23+
	한혜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동동 253-2 3/4 (441-090)	
		(0331)251-4415	4. 19+
학 술	나지숙	전북 군산시 나운동 현대2차A. 나동 501호 (573-350)	
편집부		(0654)61-3822	?
	고자영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4반 231-3 (233-800)	
		(0398)62-8062	?
	이재준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18 (135-082)	
		(02)568-0348	1. 18+
문 화	최승민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 548-8 9/5 (430-051)	
복지부		(0343)49-0505	10. 15+
	마민주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685-55 26/2 (151-017)	
		(02)862-1341	1. 20+
	남경재	서울 강남구 역삼2동 개나리A. 나동 501호 (135-082)	
		(02)553-6484	5. 11
문예	한선이	(02)533-6887	4. 29+
일꾼	조민아	(02)596-7458	2. 22+

- 각과, 각학년 너을내들
- 최만택** 충북 충주시 연수동 657-1 (380-100)  
(0441)847-7886
- 나지숙** 전북 군산시 나운동 현대 2차A. 나동 501호 (573-350)  
(0654)61-3822
- 김지연** 충남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2구 375 (343-840)  
(0457)52-2258
- 한선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 1리 선경음악학원 (476-890)  
(0338)72-8838
- 김현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A. 33-804 (137-030)  
(02)532-2894
- 강미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 1리 2반 (250-830)  
(0366)33-4925
- 배진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69-6 18/4 (441-220)  
(0331)213-1625
- 김현숙**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3동 236-9 (152-023)  
(02)859-0295
- 윤미정** 충남 대천시 명천동 311 (355-070)  
(0452)936-0650
- 최명우** 인천시 남동구 만수 5동 946-19 한샘빌라 301 (405-245)  
(032)465-4062
- 권오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지구 매탄 2동 15BL 1LT (441-370)  
(0331)215-9106
- 이 선**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95-3 (425-130)  
(0345)494-9039
- 남경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개나리A. 24동 403호 (135-082)  
(02)553-6484
- 박영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85번지 4/3 (441-100)  
(0331)295-6837
- 조은숙** 경기도 광명시 광명 6동 322-6 은행연립 3-305 (423-016)  
(02)689-6972
- 정연선**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아시아선수촌A. 16동 604호 (138-227)  
(02)416-2021

# 말뚝아 일어나라

J-104 김 오일 작곡

1.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일어난 땅 곳곳이  
 2. 우-리논이 땅의 노동자 역-사적주 건전 노동자

계곡은 넘은 물 - 피땀 흘려 버리고 말뚝아 일 이나 잘 짓으라 이 땅  
 더 이상 - 피땀 흘려 손 놓을 수는 없다 말뚝아 일 이나 잘 짓으라 이 땅

외 노동자 모 계 - 어나 자랑스런 말뚝아 나

사람도 열-복도 다 배양겨 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 몇 세  
 고귀한 모습으로 다 배양겨 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 몇 세

나가자 배 부수 자 상 차별도 등하 허

물지자 부 계이 다 여 성애방노 등 세 남

Dm

한

Gm

백

Dm

간

Dm

겨



# 애국의 맹세

조민하 작

1.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는 영 세기 있 디  
 2. 빈 도 심전리에 울 어대는 두 견 소리 여

목 숨 기도 바랄 수 없 는 이 국 의 영 - 세  
 이 땅 위 적이여 맹 세 인 조 지 시 앙 이 여

아 - 조 국 의 여 아 - 사 랑 이 여 투 각  
 아 - 조 국 의 여 아 - 사 랑 이 여 투 각

피 땀 은 피 님 기 신 이 건 여  
 온 인 생 의 미 힘 만 명 세 여

나 의 기 념 노 리 조 지 사 랑 의 길  
 모 투 도 내 인 도 조 지 사 랑 의 길

# 조국과 청춘1

이범수 시 더불어 사는 소리 작

Am A7 Dm G7 C E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열정 도 귀중한 청년이 나 신란

Am A7 Dm E Am

한 내일의 희망도 소중 하다 그리 나나 예전 조국이 있 다 하나

F Dm G7 C A

뒤에 있는 조국을 위하여 몸도 없 단 목숨이 지 만 조국

Dm Am Dm D7 E

을 위하여 희생은 보다 더 귀중 한 생명이다 있으 라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최정연 글. 곡



G Am7 D7 G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 기

Am7 D7 G Em Am A Dsus4 D7

꿈의 그날 위해 서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

G Am7 D7 G

혼자라고 느껴 질때면 주위를 둘러 보세요 - 이

Am7 D7 G Em Am B G G7

남겨 남은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입니다 - *Fine*

C B G Bm Em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거예요 - 때로는

Am B7 G G7

모진 탄압에 좌절도하겠지요 - 하지만

C B G Bm Em

동지들과 함께 라면 두렵지않아 - 노동

Am Am7 B

희망 그 날 까지 전진 전진 전진 전진 하자 *DC*



# 우리 학생회

전노련상작단 아침햇살 글. 곡

D Em A D

이름아름-고문을 아서서 아침공기만큼마 시며-

D Em A D D7

학생회들 들어 서는데 한친구가 안맞는 내

G D Em A7

몰어진 방안을 혼자서 청소하는 친구의 모습

C D Em Em7 E A7

학생회 주인은 우리라며 말만 한는 나불보네 비록

D Bm Em A7

착은일이지만 모두를 위해 밝히고 나서는 사랑이면 신뢰와

D F#m G A A7 D

외리의 중동세 자주학원의 미래는 빛날게 아

아침햇살과 함께 (건대노래제편입1집)

# 고동어 두마리와 참쌀떡 다섯개

선녀는 기쁨으로 *DC* *최정연 글. 곡*

G Em Am C Em

낮 없는 밤을서로 몇 여수면 서

G Em Am C A7 D7

다 러운 밤을서로 몇 어주면 서

G Em Am C Em

고-동-어 두마리와 참 쌀 떡 다섯개로 우린

G B7 G G7

오천영도부지부지 배부룰수있 단 다 *Fine*

C G Am Em G7

이천마 리 고동어를 오천 개 나 되는데

C G A7 D7

이리저 리 벗어모아- 저혼자서 다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DC*